

濟州地域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에
關한 研究

指導敎授 李 長 春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2월 일

京畿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管理 專攻
高 柄 俊

高柄俊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	---

審査委員	印
------	---

審査委員	印
------	---

1994年 12月 日

京畿大學校 經營大學院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 目的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 目的	2
第 2 節 研究 範圍 및 方法	3
第 2 章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에 關한 理論的 考察	4
第 1 節 民俗資源의 觀光의 價值	4
1. 觀光資源	4
2. 文化的 觀光資源	10
3. 社會的 觀光資源	16
4. 民俗資源의 觀光의 價值	17
第 2 節 民俗의 概念	20
1. 民俗의 概念	20
2. 民俗資源의 意義	21
第 3 節 觀光商品의 概念	26
1. 商品의 定義 및 特性	26
2. 觀光商品의 定義 및 分類	28
第 4 節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에 關한 研究 傾向	38
第 3 章 濟州地域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및 問題點	43
第 1 節 濟州道의 觀光環境	43
1. 自然環境	43
2. 人文環境	45

3. 觀光環境	58
第 2 節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70
1. 民俗資源 現況	70
2. 其他 民俗資源 現況	72
3.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81
4. 濟州地域 民俗觀光의 育成	87
第 3 節 問題點	93
1. 觀光商品 企劃의 問題點	93
2. 觀光商品化 方法의 問題點	94
3. 觀光商品 節次의 問題點	98
4. 觀光商品 販賣의 問題點	99
5. 行政·制度·法規上 問題點	100
第 4 章 民俗資源 觀光商品化 方案	103
第 1 節 觀光商品 企劃化 方案	103
第 2 節 觀光商品化 方法의 改善方案	108
第 3 節 觀光商品化 節次 改善方案	112
第 4 節 觀光商品化 販賣의 改善方案	114
第 5 節 行政·制度·法規上 改善方案	116
第 5 章 結 論	118
參考文獻	121
Abstract	131

表 目 次

〈표 2- 1〉 클라우슨(Clawson)의 분류	6
〈표 2- 2〉 자파리(Jafari)의 분류	7
〈표 2- 3〉 건(Gunn)의 토지 이용 단위별 觀光資源의 분류	7
〈표 2- 4〉 國際觀光年記念行事協會의 관광자원 분류	8
〈표 2- 5〉 쓰다노브루(津田昇)의 분류	9
〈표 2- 6〉 李長春의 분류	9
〈표 2- 7〉 交通部의 관광자원 분류	9
〈표 2- 8〉 韓國觀光公社의 관광자원 분류	10
〈표 2- 9〉 指定文化財 現況	12
〈표 2-10〉 文化財의 分類	14
〈표 2-10〉 民俗資料의 지정기준	15
〈표 2-12〉 文化觀光의 影響	19
〈표 2-13〉 商品의 特性	27
〈표 2-14〉 觀光商品의 定義	30
〈표 2-15〉 觀光商品의 構成要素	32
〈표 2-16〉 觀光商品의 종합 시스템적 서비스	33
〈표 2-17〉 觀光商品의 分類	35
〈표 2-18〉 WTO와 Burkart & Medlik의 觀光商品 分類	37
〈표 3-1〉 돌굴집 자리	49
〈표 3-2〉 용기굴·원담·포구·염전	50
〈표 3-3〉 環海長城 유적자원	51

〈표 3-4〉 濟州의 城址	52
〈표 3-5〉 제주도 自然觀光資源	63
〈표 3-6〉 濟州道의 文化財 分布現況	64
〈표 3-7〉 近代史 遺蹟	67
〈표 3-8〉 入島 先墓	67
〈표 3-9〉 제주도의 狹小터	68
〈표 3-10〉 民俗놀이	78
〈표 3-11〉 濟州의 民俗文化行事 現況	82
〈표 3-12〉 濟州地域 觀光紀念品 現況	85
〈표 3-13〉 각 마을의 民俗公演 現況	90
〈표 3-14〉 觀光資源 開發 目標	95
〈표 3-15〉 觀光開發 過程의 제 단계	96
〈표 4-1〉 商品의 企劃化 過程	104

그림 목 차

〈그림 3-1〉 『大東輿地圖』에 나타난 烽燧와 煙臺	53
------------------------------------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 目的

1. 問題의 提起

세계에서 가장 魅力的인 觀光地 24곳 중의 하나로 선정된 濟州島¹⁾는 山과 바다의 아름다움이 잘 조화되어 觀光性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火山 活動으로 生成된 웅장하고 신비로운 입지 조건으로 韓半島 어느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景觀과 예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形成하여²⁾ 특이한 언어와 固有의 風俗 및 歷史的, 文化的 遺産을 풍부히 소장된 지역이다.

그런데 現代 產業社會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대와 인간 생활의 번영, 항공기를 비롯한 철도, 자동차, 여객선 등 교통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³⁾과 더불어 오늘날 觀光產業은 외화획득에 따른 國際收支 改善과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 등을 추진하는 無形의 수출산업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친선, 문화교류, 무역증대, 고용증가, 觀光產業 發展⁴⁾에 기여하는 등 증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觀光을 주요 戰略產業⁵⁾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觀光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관광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배우고 습득하고 자신의 內的 成熟과 발전의 媒介가 되어야 하며 이는 바람직한 觀光文化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傳統文化를 세계인의 의식 속에 올바

1) Anonymous, 1975 Faraway Places : Special Report, Newsweek, July 14 1975, pp. 33~43.

2) 建設部,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1974, p. 4.

3) 俞敏喆, "한국의 관광단지 개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1.

4) 李九求, 現代觀光學, 명보출판, 1983, pp. 120~121.

5) 李長春, 觀光統計調查論, 동명사, 1980, p. 36

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에게 훌륭한 경험과 철학으로 다듬은 民俗을 가르쳐 줌으로서 고유한 우리 것에 관심과 애착을 심어 주어야 할 義務를 가져야 한다.

제주지역은 民俗資源의 보고라 할만큼 자원이 잘 保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商品的 潛在能力이 풍부하지만, 단순 방문지로만 이용되는 실정이다. 자연 경관을 위주로 한 觀光에 치중해 온 결과 관광개발에 따른 훼손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觀光客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라 매력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招來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郷土인 전통을 살리고 고유의 민속을 보전하기 위해 民俗의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나 풍속 및 언어, 그리고 무형의 문화재들은 훌륭한 觀光資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國民性·歷史性·民族性·生活相 등이 반영되는 관광자원으로서 民俗資源 商品化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 研究 目的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濟州地域 民俗資源의 商品化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여 제주지역의 民俗을 발굴·보전함과 동시에 觀光의 質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研究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民俗資源의 이론 및 觀光的 價值 概念과 정의를 체계화한다.

둘째, 제주지역의 文化財를 중심으로 한 민속자원의 現況과 기타 민속자원 현황, 그리고 민속자원의 관광 상품화 현황을 고찰한다.

셋째, 觀光商品 企劃, 商品化 方法, 節次, 販賣, 行政, 制度, 法規의 問題點을 도출하여 改善 方案을 제시한다.

第 2 節 研究 範圍 및 方法

본 論文은 제주도의 民俗資源을 관광과 연결하여 觀光商品化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研究이다.

본 논문은 總 5章으로 構成되며 그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研究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民俗資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理論的 背景으로 민속자원의 관광적 가치와 民俗과 觀光商品의 개념,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연구 경향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 3장은 제주지역 민속자원의 觀光商品化 現況 및 문제점을 다루었다. 제주도의 관광환경, 민속자원 현황,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 현황 및 제주지역 民俗資源의 특성을 다루어 관광상품화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 4장은 理論的 틀과 現況을 근거로 민속자원의 觀光商品化 改善 方案을 모색하였고, 제5장은 맺음말로써 마무리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濟州地域 民俗資源 觀光商品化에 관한 모든 사항이 1993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므로 기준년도는 1993년이며 목표 년도는 2001년으로 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제주지역으로 국한했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문헌 및 자료조사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론적 기초를 위해 觀光學과 民俗學 저서 및 관련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실증적 근거를 위해 관광관계 부서 및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民俗資源의 이론을 고찰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 논문 및 저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민속자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 제주시,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第 2 章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에 關한 理論的 考察

第 1 節 民俗資源의 觀光的 價値

1. 觀光資源

1) 概 念

觀光資源(Tourism Resources)은 관광여행자의 活動 根源이 되는 諸現象을 가리키며¹⁾ 觀光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나 관광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인 觀光對象을 말한다²⁾.

그래서 관광자원은 인간의 관광동기(Tourist Motivation)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生態系 內的 有形·無形의 諸資源으로서 保存·保護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內包하고 있는 資源³⁾이다.

구체적으로 觀光資源은 다음 세가지의 概念定義⁴⁾를 할 수 있다.

첫째, 관광자원은 人間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관광은 대부분 旅行이라는 객관적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관광동기는 여행동기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관광자원은 生態系 내지 諸資源이어야 한다. 특히 無形의 자원이란 한나라의 고유한 傳統이나 風俗, 無形의 文化財 등을 가리키는데 이는 훌륭한 觀光資源 要素이며 문화유산은 결코 시각적인 직접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광자원은 保存, 保護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資源이다. 무진장한 천연자원도 복지이용과 調和된 자원관계를 유지

1) 金洪雲, 觀光資源論, 일신사, 1994, p.51.

2) 金相勳, 觀光學概論, 집문당, 1981, p.119.

3) J. C. Crampton, "Lecture on Tourism", Given at unit of Hawaii: Spring Semester, 1972, p.166.

4) 李長春, 觀光資源學, 大旺社, 1988, pp.75~78.

해야 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계획적인 利用 및 保存의 방법인 국토개발계획이 강조되어 진다.

최근에 올수록 觀光資源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관광자원이 갖는 概念的 特徵을 다음 일곱 가지⁵⁾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를 일으키는 「魅力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 觀光客의 行動을 끌어들이는 「誘引性」을 지니고 있다.

셋째, 開發을 통해서 「觀光對象」이 되어 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의 「相互作用」의 結果이다.

다섯째, 자원의 범위는 「自然資源과 人文資源」, 「有形資源과 無形資源」등 아주 다양하고 넓다.

여섯째, 자원은 사회구조나 시대에 따라서 「價值」를 달리한다.

일곱째, 자원은 「保存 또는 保護」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은 人間性을 회복하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야 한다.

전에는 관광자원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대중관광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관광매력을 갖게 되기도 하며 그 반면에 觀光魅力을 잃어 가는 資源도 있다.

韓國觀光公社의 연구보고서⁶⁾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하찮은 것이라도 生命을 불어넣음으로써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市場性이 약한 관광자원이라도 잘 결합하면 좋은 자원이 된다.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던 간에 그것이 觀光客을 誘引 할 수 있고, 觀光收入을 올릴 수 있는 商業性이나 經濟性을 띠고 있으면 觀光資源이 되는 것이다⁷⁾.

5) 金洪雲, 前掲書, p. 55.

6) 韓國觀光公社, 2000년대의 관광환경분석과 전망(1980), pp. 214~217.

7) 趙松彬, 新稿觀光學總說, 형설출판사, 1994, p. 139.

2) 觀光資源의 類型

觀光資源은 지구상 모든 사물이 다 資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종류도 多種多樣하고 그 범위도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는 大衆觀光 또는 國民觀光의 時代로 돌입하면서 관광자원의 범위와 그 指向의 특성도 Sports Leisure 행동과 시설 쪽으로 多樣하게 변모되고 있는 현실도 하나의 추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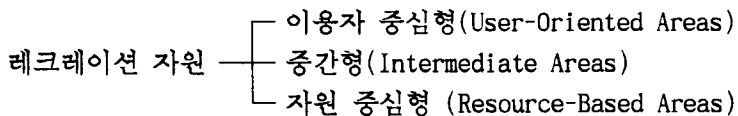
관광자원에 대한 歐美系統의 분류 <표 2-1>, <표 2-2>, <표 2-3>를 보면 포괄적인 관광대상의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하나의 연속체적 성격으로 파악하려는 傾向이 짙다. 日本에서의 觀光資源 분류 <표 2-4>, <표 2-5>는 觀光資源의 二元的 形態를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韓國은 歐美系統과 日本式 分類方式이 혼용되어 있고 관광자원을 대별할 경우는 일본식의 분류방식을 이용하고 세분할 경우에는 歐美系統의 분류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⁹⁾.

交通部와 韓國觀光公社, 그리고 李長春교수는 관광자원을 有形觀光資源(Visible Tourism Resources)과 無形觀光資源(Invisible Tourism Resources)으로 분류하여 無形觀光資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觀光資源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표 2-1>부터 <표 2-8>과 같다.

<표 2-1> 클라우슨(Clawson)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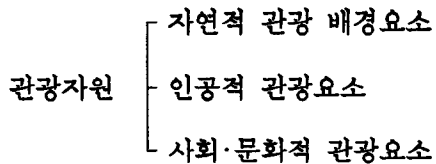


자료: M. Clawson, R. Held and C. Stoddard, Land for the Future (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60), p.136.

8) 李根, 觀光資源論, 학문사, 1985, p.45.

9) 金洪雲, 前掲書, pp.85~96.

<표 2-2> 자파리(Jafari)의 분류



자료 : Jafar Jafari,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No.3, 1974,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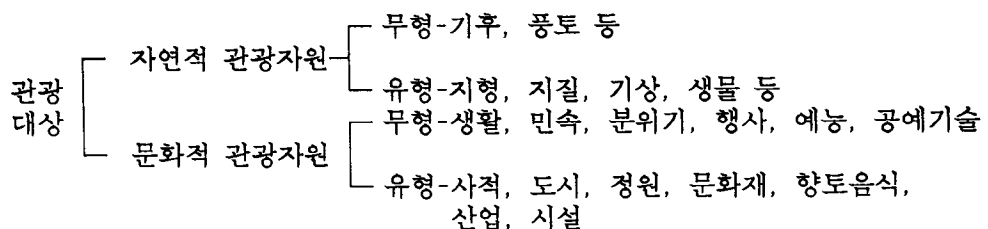
<표 2-3 > 건(Gunn)의 토지이용단위별 관광자원의 분류

유 형	종 류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① 해변 ③ 자연캠핑 지역 ④ 일반경관 지역 (General Scenic Areas) ⑤ 경관지역 (Scenic Spectaculars) ⑦ 화석채취 지역 ⑨ 낚시지역. ⑪ 스노우모빌 지역 ⑬ 동계휴양지 (북부) ⑮ 하계휴양지 ⑰ 마리나, 항만, 보트계류장 ⑲ 동물관찰 지역 ㉑ 휴가지 가정 ㉓ 산림 골재 지역 ㉕ 자연오솔길 지역 (도보, 승마) ㉗ 동물연구 (Spelunking) 지역 ㉙ 마리나 축제, 요트계류장 ② 피크닉장소 ⑥ 암석채취지역 ⑧ 사냥지역 ⑩ 스키·동계스포츠 지역 ⑫ 보트장, 카누장, 항해장 ⑭ 동계휴양지 (남부) ⑯ 캠프, 조직, 단체 ⑰ 야생생물 ㉒ 수로 (Waterways) ㉔ 전망대 ㉖ 트레일 연결지역 ㉘ 조류관찰지역 ㉚ 스쿠버·해저탐험 지역 ㉜ 관광지-자연관광자원중심형

유 형	종 류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①고고학적 유적 ②박물관 ③특수인종적문화 ④최초의 사건 발생지 ⑤역사유적, 유령도시 ⑥공학적·과학적 불가사의 ⑦제조공정 ⑧장엄한 건물 ⑨성지, 성역지 ⑩문화적 관광지 ⑪관광목장(Dude Ranches) ⑫전설유래지역
혼합형 자원 (Natural Or Cultural Resource)	①콘서트, 드라마, 연극장 ②공예품전시장 ③도시 캠핑지역 ④스포츠센터 ⑤골프장 ⑥오락공원 ⑦쇼핑센터 ⑧나이트클럽 ⑨호텔·모텔 ⑩관광음식점 ⑪정보센터, 휴식처 ⑫놀이터 ⑬친척·친구집 ⑭축제, 퍼레이드, 더비 경기장(Derby Areas) ⑮회의장 ⑯운동장

자료 : Clare A. Gunn, Tourism Planning(N.Y:Crane Russak,1978), pp.58~59.

〈표 2-4〉 國際觀光年記念行事協會의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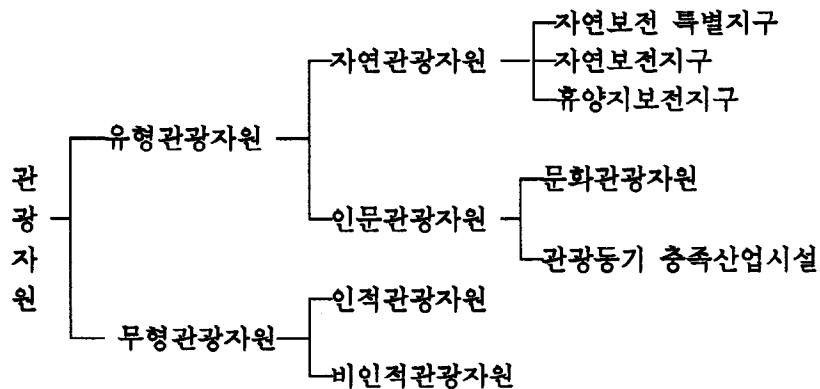
자료 : 國際觀光年記念行事協會, 觀光과 觀光行事, 東京, 1967, pp.86~87.

〈표 2-5〉 쓰다노보루(津田昇)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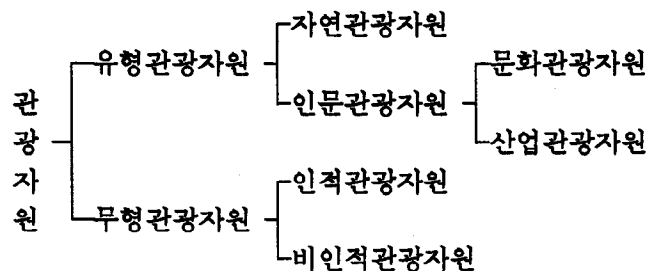
- ① 자연적 관광자원-기후, 풍토, 온천, 천연자원, 동식물, 도시공원
- ② 문화적 관광자원-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원, 기념물
- ③ 사회적 관광자원-인정, 풍속, 행사, 국민성, 생활, 예술, 문화교육
- ④ 산업적 관광자원-공장시설, 농공장, 사회공공시설, 見本市

자료 : 津田昇, 國際觀光論,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964.

〈표 2-6〉 李長春의 분류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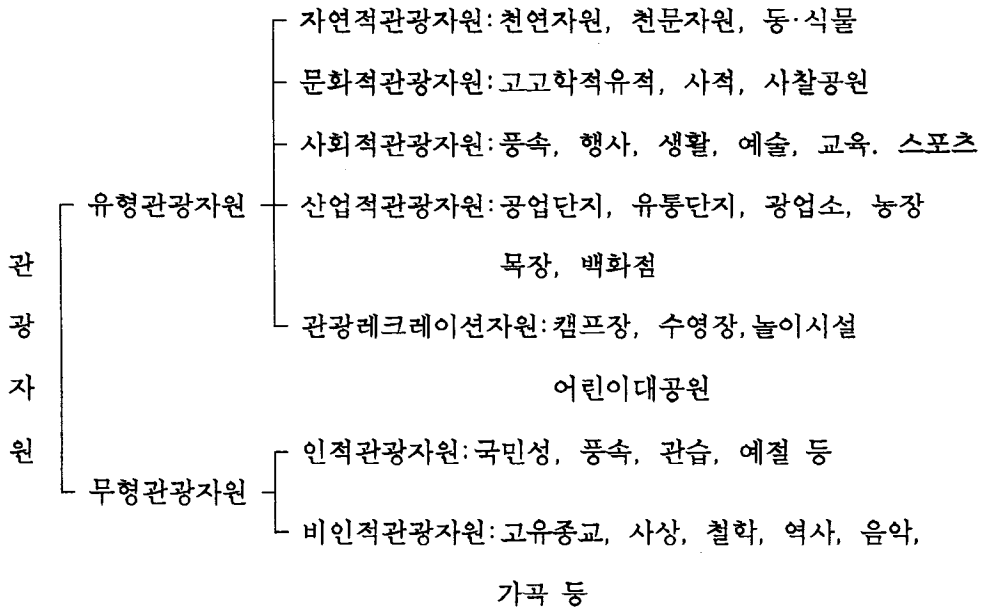
〈표 2-7〉 交通部의 觀光資源 分類¹¹⁾



10) 李長春, 觀光地理資源學, 대왕사, 1974, pp.120~124.

11) 交通部,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교통부, 1981, pp.186~187.

〈표 2-8〉 韓國觀光公社의 관광자원 분류¹²⁾



2. 文化的 觀光資源

文化的 觀光資源(Cultural Tourism Resources)은 民族文化의 유산이며, 국민이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고 觀光魅力을 지닐 수 있는 資源이다¹³⁾. 文化的 觀光資源은 예술성, 종교성, 학문성, 역사성의 측면에서 관광가치가 평가되어 그 가치가 상실되기 전에 주의가 요구되며, 관리가 가능하면 훌륭한 자원의 價値를 갖게 된다.

民族文化의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文化財는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 관광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觀光的 欲求充足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文化的 資源은 文化財資源(Cultural Assets Resources)과 박물관(Museum)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文化財를 내용으로 한다. 文化財資源은 경제상의 재산개념을

12) 韓國觀光公社,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KNTC, 1983, p.166.

13) 李根, 前掲書, 학문사, 1985, p.122.

文化的인 소산에 그 명칭을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상의 價値를 찾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의 가치를 존중하고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自然物과 구분된 인공물 중에서도 경제적인 재산과는 價値觀을 달리하는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¹⁴⁾.

文化財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自主的 文化精神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歷史的 所産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1962년 제정)에는 문화재를 有形文化財(Tangible Cultural Assets)와 無形文化財(Intangible Cultural Assets), 民俗資料(Folk Materials)와 記念物(Monuments)로 분류하며 文化財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지정 문화재로 분류된다. 國家指定文化財는 문화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서울특별 시장, 직할 시장 또는 道知事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市·道 文化財로 指定 할 수가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조 1항과 2항, 제5조, 제6조, 제7조).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 사적, 사적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重要民俗資料 등¹⁵⁾이 있으며 市·道指定 文化財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가 포함된다.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2,414점, 유형·무형 문화재 등 市·道指定 文化財가 2,761점이며 기타 文化財 資料가 1,296점, 傳統建造物이 23점으로 총 6,494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14) 金炳文, 觀光地理學, 형설출판사, 1990, p.235.

15) 문예진흥원, <문예진흥> 제3권, 3호, 1984.

〈표 2-9〉 指定文化財 現況

1993. 4월 말 현재

종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합계	해제
국가지정문화재	653	31	22	8	13	2	231	94	94	157	134	211	487	203	32	42	2414	115
국 보	131	3	0	1	1	0	31	7	8	21	4	15	46	10	0	0	278	0
보 들	371	13	17	2	7	1	112	46	3	70	70	89	239	84	1	0	1155	4
사 적	61	4	3	2	2	1	61	4	10	431	27	24	90	53	2	0	375	5
사 적 및 명 승	0	0	0	0	0	0	0	0	1	1	0	0	3	1	0	0	6	0
명 승	0	0	0	0	0	0	0	1	0	0	0	4	1	1	0	0	7	0
천 연 기 념 들	11	7	1	1	0	0	15	24	20	13	20	39	44	33	18	29	275	29
중요무형문화재	34	4	0	2	1	0	4	2	1	4	1	10	5	9	4	13	94	5
(인간 문화재)	65	14	0	10	2	0	12	5	0	8	7	17	8	27	4	0	179	0
중요민속자료	45	0	1	0	2	0	8	10	21	17	12	30	59	12	7	0	224	4
시도지정문화재	132	63	50	33	54	53	263	175	221	223	240	320	445	419	70	0	2761	83
국 보	131	3	0	1	1	0	31	7	8	21	4	15	46	10	0	0	278	0
시도유형문화재	84	22	30	16	20	23	120	106	149	119	131	153	256	271	15	0	1515	51
시도무형문화재	9	8	8	5	9	1	7	5	1	16	9	15	19	12	9	0	133	10
시 도 기 념 들	12	33	10	12	18	27	128	63	64	76	73	124	78	123	39	0	880	18
시도민속자료	27	0	2	0	7	2	8	1	7	12	27	28	92	13	7	0	233	4
문 화 재 자 료	2	1	25	5	19	34	82	109	11	285	102	157	271	193	0	0	1296	37
전 통 건 조 들	1	0	0	0	0	0	2	1	0	2	1	0	16	0	0	0	23	0
합 계	788	95	97	46	86	89	578	379	326	667	477	688	1219	815	102	42	6494	235

주 : 인간문화재는 제외

자 료 : 문화재 관리국 전산실, 1993.

文化財의 現況은 추가지정이나 지정해제 등의 경우로 해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諸般 심의는 文化財委員會에서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문화부장관은 신규 또는 해제사항을 공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指定文化財의 현황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황 변경사항은 발생하게 될 것이다.

1) 有形文化財(Visible Cultural Assets)

建造物, 典籍, 古文書, 그림, 조각, 기타 유형의 文化的 所産으로 歴史的 價値가 큰 것과 考古資料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觀光자원성이 높아 觀光客 誘致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指定文化財는 2,414여점이 있고 이중 50%이상이 개인소장이다.

2) 無形文化財(Invisible Cultural Assets)

어떤 實體化된 형상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연극, 음악, 공예예술, 기타 無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政府에서는 이러한 無形의 技能을 保存하기 위해 1983년말부터 현재까지 重要 無形文化財로 총 94건에 無形文化財 保有者인 인간문화재 179명을 지정하여 지원 양성하고 있다.

3) 記念物(Monuments)

기념물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사적 및 명승은 388건이고 天然記念物은 275건이 있다

가) 사적(Historical Remains)

패총, 고분, 성지, 窯地, 그 밖의 유적(Ruins, Remains)으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의 가치가 큰 것을 사적으로 지정된다.

나) 名勝(Place of Scenic Beauty)

정원, 계곡, 해안, 산악 그 밖의 景勝地로서, 특히 예술상, 관상상의 가치가 큰 것을 名勝地라 부른다.

다) 天然記念物(Natural Monuments)

식물(자생지 포함), 동물(생식지, 번식지 포함) 및 地質, 礦物 등을 가리킨다.

4) 民俗資料(Folk Custom Material)

민속자료는 우리 民族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衣·食·住, 生業, 信仰, 年中行事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 밖의 風物로서 국민생활의 발자취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민속자료는 총 224건이나 된다.

이상의 문화재 분류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文化財의 分類

분 류	내 용
유형문화재	① 건조물 : 건축, 교량, 석탑 등 ② 미술공예품 :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등 ③ 고고자료 : 출토품
무형문화재	① 예능 : 연극, 무용, 음악 등 ② 공예기술 : 도기, 칠기, 금세공, 염철, 임죽세공 등
민 속 자 료	① 유형의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사용 되는 물건 ② 무형의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의 습속
기 념 물	① 유적 : 패총, 주거지, 고적, 사적, 성지 등 ② 경승지 : 정원, 계곡, 해안, 산악 등 ③ 천연기념물 : 동식물, 지질, 광물
매장문화재	①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

〈표 2-11〉 民俗資料의 指定 基準

지 정 기 준	내 용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낸 것 으로 전형적인 것	① 의식주에 관한 것 ⑤ 사회생활에 관한 것 ② 생산, 생업 ⑥ 신앙 ③ 교통, 운수, 통신 ⑦ 민속지식 ④ 교역 ⑧ 민속예능, 오락, 유희
민속자료를 수집·정리한 것	①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② 시대적,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③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 에 집단적으로 소재할 경 우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음	① 한국의 모든 생활 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민속 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 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3. 社會的 觀光資源

우리 주위에는 觀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多樣하고 깊이가 있는 것들이다. 예전에는 관심의 대상도 없었던 資源도 觀光의 대중화됨에 따라 觀光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社會的資源은 그 나라 그 지방의 人間을 이해하고 그 社會 構造의 생성을 파악하는 觀光대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人間 接觸에서 시작된다¹⁶⁾. 多樣化한 觀光행동의 지향성에 따라 소박한 향토 경관, 향토의 인정, 풍속, 특색 있는 국민성, 음식물, 예절과 제도, 생활자료, 향토의 전통적 행사 및 사회공공시설 등도 觀光資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형태도 외래관광객들에게는 매력성과 흥미를 가지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社會的 觀光資源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말할 수 있다¹⁷⁾.

첫째, 人情, 風俗, 生活樣式이다. 이러한 것은 현재에 있어 커다란 여행매력이 되며 풍토색이 짙은 民俗祭典, 傳說과 史話, 激戰場과 戰記등은 훌륭한 사회적자원이 된다.

둘째, 국민성, 민족성, Tour Guide이다. 국민성, 민족성 등은 觀光의 흥미를 배가시켜 나가며 인간적이고 觀光魅力이 되는 기본적 바탕이 되는 자원이다.

셋째, 생활, 예절, 음식물을 들 수 있다.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직접 生活를 접하여 現地民과 대화를 나누며 傳統音樂을 접하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觀光魅力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民泊(Home Visit, Home Stay)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식도락가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넷째, 예술, 예능, 스포츠(技能)이다. 그 나라의 傳來되는 독특한 예술, 예능은

16) 李根, 前掲書, p. 225.

17) 尹大淳, 旅行社經營論, 기문사, 1992, p. 216~217.

중요한 관광대상이다. 또한 古典的 스포츠나 近代 스포츠도 충분한 社會的 觀光資源이 된다.

다섯째, 교육, 사회, 문화시설은 관광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육시설이나 국회의사당, 대형건축물 등 사회후생복지시설, 도시교통시설 등도 관광대상이 된다. 문화시설로는 도서관, 과학연구소, 무역전시장 등 多樣的 것들이 資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전승예술, 종교, 민간신앙, 신화, 전설, 민담 등도 사회적 관광자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교육적 가치를 띤 旅行行動의 목적물이다. 사회적 자원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짐에 따라 더욱 多樣的 관광상품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은 觀光에 있어서 국민적, 민족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4. 民俗資源의 觀光的 價値

오랜 생활 속에서 각 地方마다 고유하고 특징적인 民俗이 傳承되어 이어져 내려왔다. 관광객이 짧은 기간동안 여행지에 머물면서 그 지방의 自然, 文化, 生活樣態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적인 감동을 받는다. 자기발전, 자기충실을 위한 문화적 성장을 전제로 관광객에게 흥미를 끌게 해야 한다.

聚落形態, 都市構造, 社會施設, 國民性, 民族性的 社會形態와 人情, 風俗, 生活樣式, 음식물, 의복, 습관, 전통적 놀이의 생활형태는 大衆觀光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觀光魅力으로 그 비중을 강화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관광객들에게 크게 興味 誘發을 주고 새로운 觀光商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

유의 傳統과 文化속에서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온 民俗은 매우 魅力的인 관광대상이 되고 있으며 생활의 質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자연 위주의 경관을 위주로 한 관광은 그냥 스쳐 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그 고장의 인정, 풍속, 민속행사, 전통 등과 같은 文化的 觀光資源은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 속에 오래 남아 生의 活力素가 되기 때문이다.

人間에게는 衣·食·住와 性의 기본적인 慾求 이외에 한차원 높은 욕구가 있다. 즉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먹고, 즐기는 관광의 욕구이다.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행동하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생활을 윤기 있게 풍부히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文化觀光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할 긍정적, 부정적인 側面¹⁸⁾을 고려해야 한다<표 2-12>.

향토문화에서 生成된 민속은 일정지역의 국민집단이 長久한 세월 동안에 지역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서의 異質的 特性으로 말미암아 空間的 文化의 다양성을 띄게 한다.

관광상품으로서의 民俗은 다양하여 민속자원으로서 관광적 가치를 極大化 시킨다. 민속은 다양한 상품개발을 가능케 하는 潛在力을 가지며¹⁹⁾ 모든 관광객에게 똑같은 마케팅전략을 投入하는 대중마케팅에서 벗어나 체재형 관광상품 개발에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보는 觀光의 패턴을 아직까지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속자원의 다양한 확대는 관광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수요의 再創造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적 가치를 極大化 시킬 것이다

18) 문화발전연구소, 문화관광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p. 29.

19) 金敬昊, "제주권 여행업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고찰," 제주대 <논문집>

제33집, 1991, p. 267

〈표 2-12〉 文化 觀光의 影響

구 분 영 향	긍 정 적	부 정 적
경제적 영향	○ 외화 획득 ○ 고용창출 ○ 소득증대 ○ 경제구조의 개선	○ 외화 유출 ○ 통화 팽창 유발 ○ 토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 타산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성 ○ 외지 자본 의존에 의한 대외종속의 우려
사회·문화적 영향	○ 교육적 효과 ○ 정보교환 촉진 ○ 상호 이해 증진 ○ 사회, 인종, 종교적 장벽타파 ○ 새로운 사상의 도입 ○ 문화 교류 ○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 ○ 향토애 고취	○ 문화적 갈등 ○ 외국인 위화감 ○ 가치관의 혼란 ○ 매춘 ○ 범죄 증가 ○ 도박 ○ 알코올 및 약물중독 ○ 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변질 ○ 퇴폐풍조 고조
환경적 영향	○ 하부구조 개발에 따른 생활 환경 수준의 개선	○ 수질오염, 대기오염 ○ 동·식물의 생태변화 ○ 쓰레기 처리 문제 ○ 교통혼잡 및 소음 공해 ○ 건축 공해

자료 : 문화발전연구소,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p.28

第 2 節 民俗의 概念

1. 民俗의 概念

민속은 민간의 生活인 동시에 생활의 계속, 반복에서 이룩되어 傳承되는 민간공통의 習俗, 人間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와 신앙으로 엮어낸 生活風俗²⁰⁾이다.

민속은 환경을 같이하는 속에서 形成·成長된 생활결과이며 그들이 속해 있는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신앙과 지혜로 엮어낸 生活風俗²¹⁾이며 백성들의 風俗, 民風²²⁾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풍속은 하루 이틀에 성립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생활하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현재에도 繼承되며, 또한 새로이 양성되고, 물론 미래에도 있을 한 民族의 生活樣式이요, 基層文化²³⁾이다. 따라서 풍토·역사·사회는 民俗成立 문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풍토는 자연환경에 의해 갖추어지며 여기에서 生活이 집약되어 유사한 민속이 이루어진다. 歷史的 事件들은 형성된 민속에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民俗을 정립시킨다. 하나의 민속이 형성되어 바로 소멸되지 않고 傳承된다는 것은 집단 속에서 많은 지지와 공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속은 人爲的 劃一性이 가해지기 이전의 자연적 상황 속에 있는 민간인에 의해 生成·傳承되는 自生·自乘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民族의 원문화이다²⁴⁾

역사성 속에서 전통은 이루어지고 傳統속에서 민속은 자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과정에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

20) 安鍾允編著, 觀光用語事典, 法文社, 1985, p.116.

21) 中央日報社, 증앙대백과, 1990, P.708.

22) 李熙昇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1, P.1081.

23) 김택규, 성병희, 한국민속연구문선(2), 일조각, 1982, p.1.

24) 韓國觀光公社 관광교육원, 민속문화, 1989. p.7

러한 방법들이 집약되어 生活化하게 되면 공통의 민속을 만들게 되고 이런 社會性 속에서 민속은 정착되고 민속에 의해서 人間性이 형성되고 이 인간성에 의해서 사회는 다시 구성되고 운영된다. 이처럼 민속은 民衆들의 삶의 현장에서 生産과 제의 등 생활상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傳承되었다²⁵⁾.

민속은 과거에도 있었고 消滅되지 않고 전승되는 데서 지속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민속이란 보편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通用되어야 한다²⁶⁾. 民族이나 鄉土社會는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오랜 역사를 이루고 생활하는 사이에 지속적인 同質性을 가지며 필연적으로 민속을 낳게 되는 것이다. 민속이 그 민족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民族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양식이어야 한다. 민속이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의 生活樣式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

2. 民俗資源의 定義 및 範圍

1) 民俗資源의 定義

人間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生態系內의 諸資源으로서 保存·保護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을 觀光資源이라 하며²⁸⁾, 관광자원의 가치는 觀光欲求의 충족에 관련하여 관광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관광객 흡인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관광가치에 대해서는 卓越한 魅力, 다른 지역에 없는 진기한 것, 훌륭한 利用價值를 지니고 있는 것 등으로 그 가치가 形成된다²⁹⁾. 환경을 같이하는 속에서 형성·성장된 생활결과인 민속은 신앙과 지혜

25) 孫大鉉,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일신사, 1992, p. 231.

26) 任東權, 韓國民俗學論考, 宣明文化社, 1971, p. 1.

27) 金東旭 외 4인, 韓國民俗學, 새문사, 1994, p. 17.

28) 李長春, 觀光資源論, 대왕사, 1986, p. 75.

29) 末武直義, 觀光論入門, 法律文化社, 1974, pp. 29~30.

로 엮어낸 生活風俗이며 民風인 것이다.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개방사회이건, 폐쇄사회이건 과학적 원리의 보편화가 지역적인 既在 傳統社會文化의 특수성을 점진적으로 消滅시켜가고 있는 狀況下에서 한정된 지역범위 내에서라도 교류의 증추가 되는 人間交流 즉 관광을 통한 地域間 및 國家間 住民들의 상호교류로써 보편성을 띤 깊이 있는 전통문화가치를 지닌 대상을 발굴 과시, 이해 수용하면서 타지역으로 그 의의와 정신을 넓게 확산시켜 일상생활에 침투, 보편화하도록³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여건을 가지며 恒久性이 있고 普遍性을 지니며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닌 것이 민속자원인 것이다.

그래서 民俗資源은 관광가치 측면에서는 탁월한 매력을 가지며 타지역에 없는 진기하고 전통적인 資源으로서 훌륭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속자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생활하면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형성하게 된다.

2) 民俗資源의 範圍

민속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 | | |
|---------------------|---------------------|-------------|
| (1) 住居 | (2) 衣服 | (3) 食制 |
| (4) 漁業 | (5) 林業, 狩獵 | (6) 農事, 農器具 |
| (7) 交易, 場市 | (8) 膳物, 社交 | (9) 勞動, 품앗이 |
| (10) 마을의 組織, 契, 喪頭軍 | (11) 家族, 親戚 | (12) 婚姻, 葬俗 |
| (13) 産俗, 人生禮讚 | (14) 商業 | (15) 歲時風俗 |
| (16) 信仰, 洞祭, 巫堂굿 | (17) 춤사위(舞), 놀이(遊戯) | |
| (18) 아이들 노래, 놀이(童戲) | (19) 作名 | (20) 말씨(語法) |

30) 朴龍虎, “韓國民俗行使의 觀光의 價値,” 경시대 <논문집> 제6집, 1978, pp. 49~50.

- | | | |
|-------------------|-----------------|-----------------|
| (21) 俗談, 수수께끼(謎語) | (22) 民謠, 雜歌 | (23) 交通 |
| (24) 판소리, 假面戲 | (25) 옛날 이야기(民譚) | (26) 傳說 |
| (27) 도깨비, 鬼神 | (28) 占, 詛呪, 禁忌 | (29) 民間醫療 |
| (30) 火田 | (31) 族譜 | (32) 地方의 土產, 鑛物 |
| (32) 地方의 土產, 鑛物 | (33) 地名由來 | (34) 民具 |

이러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생활상을 망라한 것같이 보이고, 어떤 것은 自明한 것같이 보이고, 어떤 것은 허황한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과거의 典籍에 나타나면 歷史가 되는 것이니, 시각과 관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¹⁾.

그래서 관광상품화되는 민속자원은 한 地域內에 사는 民族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향유해 오는 生活樣式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民俗學의 대상과 시점을 같이한다.

위의 34개의 종류 중에 民俗資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衣食住

우리 民族이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모양의 집에서 거주했는지를 연구, 조사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2) 生業과 民俗

우리 民族이 자연을 이용하여 얻은 삶을 위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농경, 어업, 사냥으로 구분하여 傳統生業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농기구·어로구·가구의 제작과 이용 등은 전통유산이다.

(3) 人間의 一生

31) 金東旭의 4人, 前掲書, pp.12~13.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產育儀禮, 婚禮, 葬禮, 祭禮의 관문을 통과한다. 그 때마다 전통적으로 의례가 행해지며 이러한 의례를 通過儀禮라고 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백일, 돌, 혼인, 회갑, 장례, 조상제사 등의 통과의례는 민족마다 그 형태가 다르며 같은 민족이라도 지역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가 있다.

(4) 歲時風俗

農耕文化가 기반이 된 한국의 공동체는 春夏秋冬 4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풍습을 개발해 오면서 단결과 협동정신을 배웠다. 마을의 놀이문화와 마을 공동제사가 존재하게 되었고 농사를 하는데 名節은 휴식과 재충전을 꾀하는 신바람 나는 祝祭였다.

(5) 民俗놀이

民俗藝術과 놀이로 분류한다. 남사당패나 판소리꾼들을 제외하고는 민속예술을 공연하는 장소는 자기 동네이고 공연시기도 연중행사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선배들에게 배우거나 하여 연출하는 것이지 전문인들은 아니다.

(6) 民間信仰

巫俗信仰과 家庭(家神)信仰, 공통제신앙(洞祭), 풍수신앙으로 분류하여 자원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행위는 한 민족의 정신적 기조를 형성하며 生活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無形의 觀光상품이 된다.

(7) 口碑文學

民謠, 說話, 巫歌, 俗談과 수수께끼 등 입으로 傳承되는 문학이다. 문자를 소유하지 않았던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진 정신적 유산이며 일반 백성의 지혜와 상상력의 표상이다

(8) 環海長城과烽燧·煙臺

濟州의 城과 봉수·연대는 완벽하게 保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고 痕迹들만 남아 있다. 이처럼 제주는 歷史性 이전에 庶民들의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삶으로 일관된 변방이었다. 倭寇의 피해가 막심해 바다를 방어하는 것 자체가 삶이었다. 옛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古風이 현저한 곳도 民俗資源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환해장성과 봉수·연대도 민속자원의 범위 안에 놓았다.

(9) 濟州의 돌

일반적으로 문화를 생활양식 또는 행동유형으로 파악할 때, 제주도민의 生活樣式은 역시 石多와 風多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³²⁾.

濟州의 돌은 제주사람들의 生活 속에 항상 같이하여 쓰임새가 다양하다. 신당, 포제단, 방사탑, 돌하르방과 같은 석상, 연자매, 산신단, 산담, 돌담, 팥돌, 험돌, 맷돌, 물통, 돌그물 등 民俗의 동반자이다. 그리고 관아의 입구나 마을입구 도로변에 세워진 碑石群들은 제주민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돌은 제주도민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고 風多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을 活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주의 돌은 제주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 濟州民俗을 형성해 왔다. 그것은 일상의 도구로서, 신앙으로서, 또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는 資源으로서, 또는 의식 속에서 참으로 敬虔하리만큼 제주문화와 결합되어 있다³³⁾.

32) 韓昌榮, 濟州道 隨想, 創文閣, 1979, P. 129.

33) 姜景潘·徐庚林·梁淳珒, “濟州道內 特殊資源의 開發과 活用方案,” 제주대 지역사회 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2집, 1986, P. 272.

第 3 節 觀光商品의 概念

1. 商品의 定義 및 特性

1) 商品의 定義

商品(Commodity, Merchandise, Ware)이란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市場의 교환을 목표로 하여 生産하고 그 생산된 財가 配給機構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에 있는 財(Goods)³⁴⁾이며 자연생산물과 기술생산품을 총괄한 산업의 객체로서, 그것은 實體的·可動的·去來的·實質的인 經濟財貨³⁵⁾라고 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하고 인류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그 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획득된 물자를 시장에 유통시켜서 交換經濟의 대상으로서 商業去來의 목적물이 되는 것³⁶⁾을 상품이라 칭하고 있다.

상품 자체는 문화가치와 사용가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形態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³⁷⁾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商品이란 포장, 색채, 가격, 애프터 서비스, 품질보증, 상표, 제조업체의 명칭이나 명성, 신용, 소매상의 명성, 제조업체의 서비스, 승강기나 주차장 시설 등 구매자의 요구나 욕망을 충족하는 有形(Visible)·無形(Invisible)³⁸⁾의 일련의 특성을 갖고 있는 複合體³⁹⁾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商品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生産된 財貨 및

34) 俞鵬老, 新商品學, 博英社, 1989, p.3.

35) 韓義泳, 商品學總論, 三英社, 1994, p.177.

36) 尙成達, 最新商品學, 박영사, 1981, p.14.

37) P. Kotler, Principles of Marketing,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Hall, 1980), p.11.

38) ① 金在珉·申鉉柱, 관광호텔경영론, 대왕사, 1986, p.15.

② W. J.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4th ed(N. Y.: McGraw-Hill, 1975, p.171.

39) 宋瑑燮, 현대마케팅론, 법문사, 1985, p.200.

서비스⁴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民俗은 상품으로서 무한한 有形·無形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商品의 特性

상품의 특성은 상품능력을 좌우하고 市場價格의 영향을 준다. 商品은 우질성(Superiority), 보존성(Preservability), 운반성(Transportation), 적가성(Moderate Price), 대체성(Substitution), 독점성(Monopoly), 공지성(Publicity)의 특성⁴¹⁾을 지니고 있다<표 2-13>.

<표 2-13> 商品의 特性

상품의 특 성	내 용
우질성	품질과 시장성이 다같이 좋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하고 제조기술이 좋아야 하며 판매시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야 함
보존성	수요의 적합한 공급을 위해 보관과 시간이 필요함. 상품으로서 성립하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상품가치 높임
운반성	상품의 존재장소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상품의 물리적으로 운반이 용이하다는 것 뿐 아니라 비교적 적은 비용에서 외계에서 받은 모든 상해를 적게 하고 운반할 수 있는 성능 의미
적가성	품질이 좋고 값이 싸야 구매가 예민하게 이루어짐. 염가성을 가진 상품 가격은 채산기반에 입각한 상업상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고 구매자는 질보다 가격에 관심 가짐

40) W. S.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4th ed., 1975, p.171.

41) 龔鵬老, 前掲書, pp.4~8.

尙成達, 前掲書, p.17~21.

상품의 특 성	내 용
대체성	매매계약에 의해 동종·동형의 물품을 가지고 대체하거나 대량의 거래를 쉽게 하여 상품의 능력을 강화함
독점성	상품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시장에 나타나는 상품 독점력을 말함. 자연적 조건이나 생산성의 제한에 따른 희소성은 양질 혹은 값싼 대용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품 독점력을 지속케 됨
공지성	상품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존재와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구매력은 생겨나지 않음. 비상한 술책과 과학적인 광고 요함

참고 : 兪鵬老, 前掲書 p.4~8

尙成達, 前掲書, p.17~21 에서 論者 작성

2. 觀光商品の 定義 및 分類

1) 觀光商品の 定義

일반적으로 商品은 소비자의 欲求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生成된 財貨 및 서비스로 有形·無形의 특성을 갖고 있는 複合體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관광상품은 관광객이 자기의 旅行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체재중 여행지에서 택하고 소비하는 물질적인 제품 및 서비스 商品의 結合⁴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상품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무형의 추상적인 상품인 서비스 상품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행상품이다.

觀光商品(Tourism Products, Tourist Product, Travel Products)은 觀光對象으로

42) 崔泰光, 觀光經營學, 백산출판사, p.31.

가치를 가지므로 魅力性과 誘引性을 보유했으며 이러한 관광대상은 인간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행동을 위한 目的物이 된다⁴³⁾. 즉 관광상품은 관광 그 자체가 無形의 성격을 띤 행위로서 무형의 상품인 감상, 관람, 휴식 등 五覺을 통한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慾望이나, 새로운 문물을 보고 자신의 발전을 기하고자 特定地域을 방문하거나 특정사물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조용히 休息하며 명상에 잠기고 싶어하는 욕망 등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가와 위락을 통한 휴식, 자기확대 등의 無形需要의 욕구충족과, 특정토산품을 구매하고자 혹은 觀光地內에서 慰樂을 위해 특정 행위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호텔시설, 관광위락시설,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의 충족을 불러일으키는 有形需要의 要求充足對象으로 구별된다⁴⁴⁾.

觀光商品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외국학자인 Booms & Bitner⁴⁵⁾, Foster⁴⁶⁾, Medlik⁴⁷⁾, Wahab⁴⁸⁾과 국내학자인 金在珉⁴⁹⁾, 孫大鉉⁵⁰⁾, 趙松彬⁵¹⁾, 崔泰光⁵²⁾의 주장한 관광상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3) 孫海植,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 65.

44) 金思憲, "觀光需要函數와 旅行費用 模型에 關한 批判的 考察," <京大 學報>, 1981. 3. 27.

45) Bernard H. Booms and M. J. Bitner, "New Management Tools for the Successful Tourism Manager," Annals of Tourism Research(Vol. 7, NO. 3), 1980, p.144.

46) Douglas Foster, Travel and Tourism Management, (Hong kong : Macmillan, 1985), pp.85~86.

47) S. Medlik and V. T. C Middleton, "The Tourist Product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International Tourism Quarterly, No. 3 Special Article, 1973, pp.132~133.

48) S. Wahab, Tourism Management(London : Tourism international Press, 1975, p.23.

49) 金在珉, "觀光事業 서비스 改善에 關한 研究," 東亞學園 <논문집>, 제9집, 1980.

50) 孫大鉉, 觀光마케팅論, 일신사, 1985, p.25.

51) 趙松彬, 여행자경영관리론, 백산출판사, 1993, p.214.

52) 崔泰光, 前掲書, p.31.

결국, 廣義의 관광상품은 觀光業界가 생산하는 일체의 財貨 및 서비스⁵³⁾라고 할 수 있다. 狹義의 관광상품은 旅行商品과 관광에 연관되는 일체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이고 관념적, 추상적인 것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광업자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판매할 것을 전제로 商品化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最狹義의 관광상품은 순수한 여행상품 그 자체를 意味⁵⁴⁾하는데 여행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패키지 투어(Package Tour)를 의미한다.

한편 世界觀光機構(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여행목적지 숙박, 교통수단, 보조 서비스, 관광매력을 結合시킨 것(Tourist Attractions, Accommodation, Means of Transport, Supplementary)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觀光商品은 관광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위 서비스의 集合體로서, 여행업의 객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한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그 特性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⁵⁵⁾.

< 표 2-14 > 觀光商品의 定義

학 자 명	관 광 상 품 의 정 의
Booms & Bitner	관광제품은 조립과정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조립의 표준화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으며 조립·판매·이용이 동시·동소에서 발생하며 재이용·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 지님

54) 金在珉, 前掲 論文, p.206

54) 國際觀光公社, 여행상품과 유통구조, 1979, pp.4~6.

55) 金敬昊, “濟州圈 旅行業의 市場細分化에 關한 考察,” 제주대논문집 제33집, 1991, p.260

학 자 명	관 광 상 품 의 정 의
Foster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상품과는 달리 잠재고객인 구매자가 구매하여 이용하기 전에는 느끼거나 맛보고, 견본을 선별해 볼 수 없는 패키지로 구성된 것
Medlik	여행자 마음 속의 이미지를 포함한 시설 및 목적에로의 접근성
Wahab	여행(동태적 부분)과 목적지(비동태적 부분)에서의 체류를 이루는 전체적인 상호보완적 요소의 혼합체
金 在 珉	관광업계가 생산하는 일체의 재화 및 서비스
孫 大 鉉	관광객이 집을 떠나 귀가할 때까지의 총괄적인 관광경험과 추억 (Overall Tourist Experience and Memory). 무형적·정신적·추상적 성격 지님.
趙 松 彬	여행의 전 과정에서 생산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유·무형적 재화의 총체
崔 泰 光	관광객의 자기의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체재중 여행지에서 택하고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의 결합

觀光商品이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그 特性⁵⁶⁾을 보면 ①無形性(Intangibility) ②非分離性(Inseparability) ③異質性(Heterogeneity) ④消滅性과 需要의 變動(Perishability and Fluctuating)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56) William J.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McGraw-Hill, 1978, pp.484~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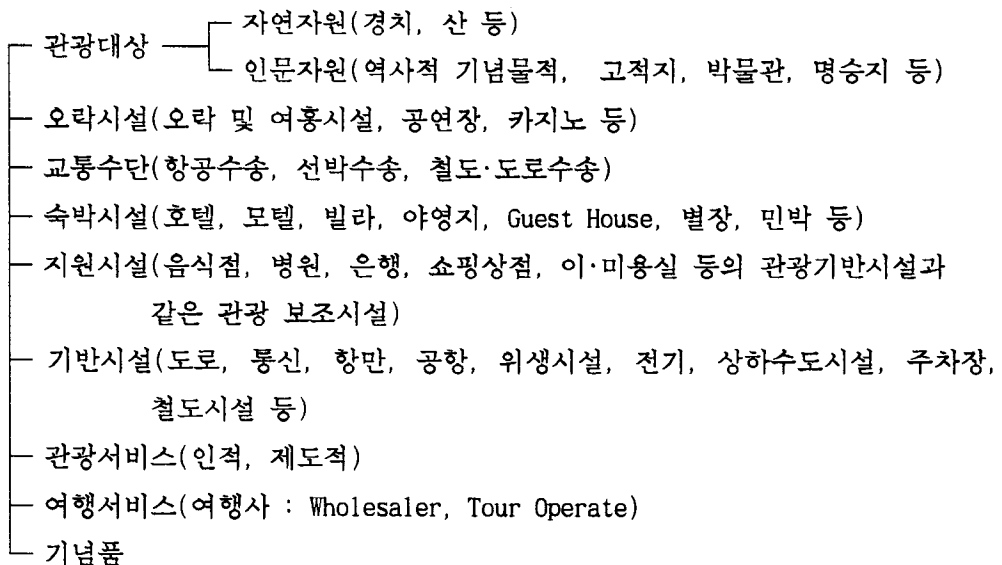
2) 觀光商品의 分類

(1) 構成 要素

관광상품은 관광업계가 생산하는 일체의 財貨 및 서비스이므로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관광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관광행동을 誘發 시키는 유형·무형의 諸觀光對象物로 購買必要와 購買欲求充足을 느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표 2-15>와 같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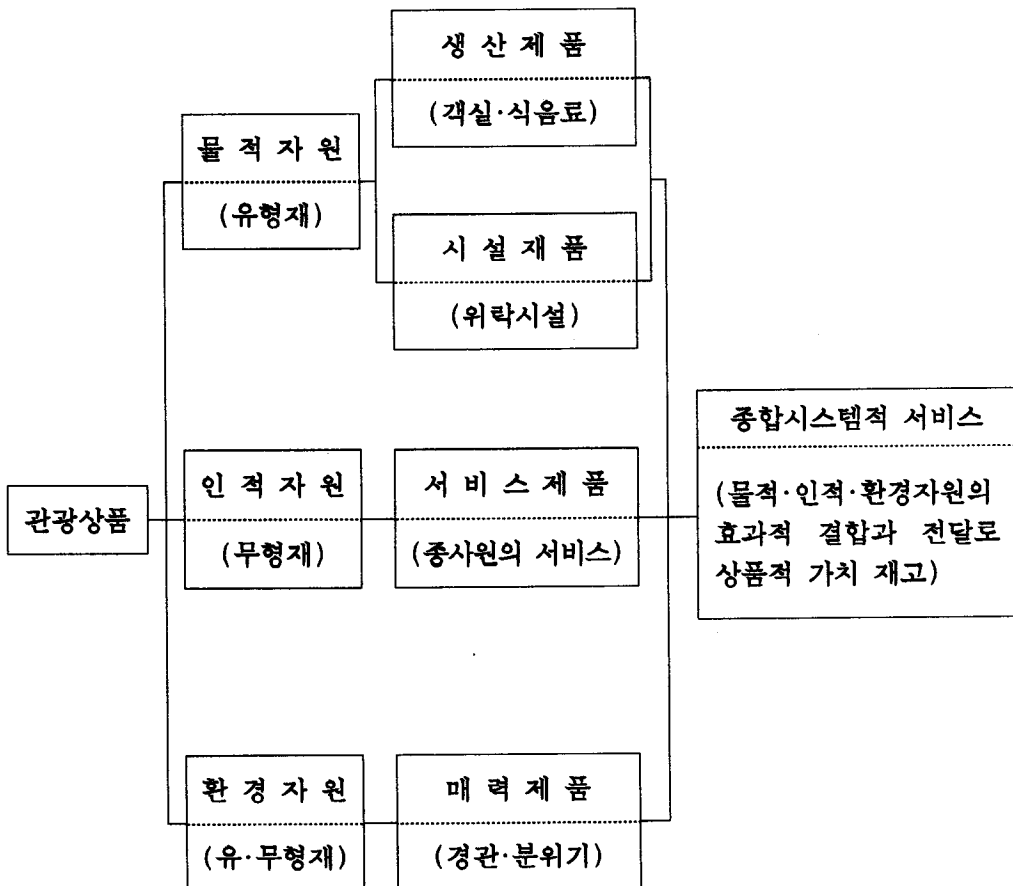
<표 2-15> 觀光商品의 構成 要素



자료 : 鄭益駿, 觀光事業論, 형설출판사, 1990, p.37.

이처럼 觀光商品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구성요소가 관광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물적자원인 생산제품, 시설제품과 인적자원인 서비스제품, 그리고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력제품을 포함한 종합시스템적 서비스(Total System Service)⁵⁷⁾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2-16〉 觀光商品の 綜合 시스템적 서비스



觀光客을 유인하는 목적물로서는 제2장 제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이다 여기서 관광대상의 범위가 자연경관이나 風流感想과 같은 주유형 유람에서 동적 오락행위나 직접 참여하는 관광행위를 선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57) 朴忠熙, “觀光호텔 人的 서비스質의 管理에 관한 實證分析,”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pp. 28~29.

다양한 獨自性을 가진 요소들로 이루어져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관광상품은 각 구성요소의 공급자들이 통합하여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상호협동하고 연합시킴으로써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上昇的 結果를 기대한다⁵⁸⁾.

(2) 觀光商品의 分類

관광상품의 구성요소에 의한 관광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WTO⁵⁹⁾에서는 관광상품을 潛在商品(Potential), 既存商品(Existing Sully), 技術商品(Technical Resources)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9종류로 나뉘고 있다.

Burkart And Medlik⁶⁰⁾은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誘引對象(Attractions), 諸施設物(Facilities), 接近性(Accessibility)을 들고 있다<표 2-18>.

한편 국내의 분류를 보면 國際觀光公社⁶¹⁾는 자원상품, 시설상품, 서비스상품, 특수상품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상품 22개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李長春⁶²⁾은 국제관광공사 분류에다 環境商品이 추가되어 資源商品에 4種, 施設商品에 4種, 서비스 상품에 2種, 特殊商品에 10種을 追加하여 총 50종류의 구체적인 상품으로 세분했다. 孫大鉉·金在浣⁶³⁾은 自然觀光商品, 文化觀光商品, 施設觀光商品, 産業觀光商品의 4가지로 분류하여 27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기존개발 상품 9종류와 미래개발상품 18개로 정리하고 있다<표 2-17>.

58) G. A. Schmoll, Tourism Promotion(London : Tourism International press, 1977), pp.30.

59) W. T. O., Integrated Tourism Planning(Madrid : WTO, 1978), p.35.

60) A. J. Burkert and S. Medlik, The Management of Tourism (London : Heinemann, 1975), p.132.

61) 국제관광공사, 한국관광진흥장기종합계획, 1979, p.40.

62) ① 李長春, “한국형특화관광상품개발과 선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 <논문집>, 제10집, 1980, pp.452~454.

② 李長春,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방향,” 경기대 <논문집>, 제13집, 1983, pp.491~493.

63) 孫大鉉·金在浣, “지역관광 개발계획을 위한 방략,”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제5집, 1986, pp.452~455.

〈 표 2-17 〉 觀光商品の 分類

상품 구분	종 류		
	國際觀光公社	李 長 春	孫大鉉·金在浣
자 원 상 품	①문화유물 및 유적 ②자연경관 ③위락상품 ④보양상품 ⑤학술상품 ⑥Shopping 상품 ⑦고유자원상품	①문화유물 및 유적 ②자연경관: 산악, 하천, 호수등 ③위락형상품(행동형상품포함) ④보양형상품 ⑤학술상품 ⑥Shopping 상품 ⑦고유식음료상품 ⑧토산품상품 ⑨민속상품 ⑩Sports 상품 ⑪관광농원, 과수원, 관광화원	자연 관 광 상 품 ①감상·경관상품* ②위락·스포츠 상품 ③산악 ④호반단지 ⑤공원 ⑥해수욕장 ⑦자연학습 ⑧특산물·명물 ⑨천연기념물 ⑩관광농원
시 설 상 품	①숙박시설 ②기반시설 ③이용시설 ④보호시설	①숙박시설 ②기반시설 ③이용시설 ④보호시설 ⑤방재시설 ⑥방역시설 ⑦안전시설 ⑧Charter 상품	문 화 관 광 상 품 ①토산품·기념품* ②향토음식* ③사찰 ④국보 ⑤매물 ⑥사적·명승 ⑦중요무형문화재* ⑧중요민속자료 유형문화재 ⑨인물
서 비 스 상 품	①인적 서비스 ②제도적서비스 ③지리적서비스 ④출입국수속 ⑤여행정보 ⑥가격	①인적 서비스 ②물적 서비스 ③제도적 서비스 ④지리적 교통 서비스 ⑤출입국 수속 ⑥여행정보 ⑦가격음식의 맛	시 설 관 광 상 품 ①박물관* ②교통 ③숙박 ④여행알선업 ⑤종합관광지* ⑥편익시설 ⑦기타시설

상품 구분	종 류		
	國際觀光公社	李 長 春	孫大鉉·金在浣
특 수 상 품	①Convention ②박람회 및 전시회 ③Incentive Tour ④Package Tour ⑤Charter 상품	①Convention ②박람회 및 전시회 ③Incentive 상품 ④Package 상품 ⑤Merit 상품 ⑥Honey Moon 상품 ⑦Camping Caravan 상품 ⑧여행사 및 항공사의 Brand 상품 ⑨인접국가군과 협력상품 ⑩국기상품 ⑪노인상품 ⑫요양상품 ⑬수학여행상품 ⑭연금생활자촌 ⑮보양관광촌	산업 관 광 상 품 ①산업관광*
環 境 商 品		①친절성 ②배후관광지 ③경유관광지 ④민족성 ⑤경제사정 ⑥정치사정 ⑦경유항공로선 유·무 ⑧쾌청일수	*는 기존개발 상품 임

자료 : ① 國際觀光公社, 韓國觀光振興長期綜合計劃, 1979, p. 519.

② 李長春, “韓國型特化觀光商品開發과 宣傳方向에 關한 研究,” 京畿大 <논문집>, 제10집, 1980, pp. 452~454.

③ 李長春, “濟州地域 觀光開發의 方向,” 京畿大 <논문집>, 제13집, 1983, pp. 491~493.

- ④ 孫大鉉·金在浣, “地域觀光 開發計劃을 위한 方略,” 漢陽大, <社會科學論叢>, 제5집, 1986, pp. 449.

<표 2-18> WTO와 Burkart & Medlik의 관광상품 분류

구 분	상품 분류	종 류
W T O	잠재 상품	문화자원 자연자원 관광행동(예: 해변, 산악, 수렵, 스포츠, 식도락 등)
	기존 상품	접근성 시설 전반적 이미지
	기술 상품	행동의 기능(예: 호텔, 호텔체인) 수단(예: 관광종사원의 자질) 공통적 잠재(예: 언어, 지역적 통신망)
A. J. Burkart & S. Medlik	세가지 구성 요소	관광객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Image)를 포함한 관광목적지의 매력(Attractions)
		숙박, 식사, 환대, 레크레이션 등의 관광목적지의 제시설물(Facilities)
		관광목적지까지의 접근성(Accessibility)

자료 ① WTO, Integrated Tourism Planning(Madrid : WTO, 1978), p.35

② A. J. Burkart and S. Medlik, The Management of Tourism
(London : Heinemann, 1975), p.132.

第 4 節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에 關한 研究 傾向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경향은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와 내용이 같은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사한 研究 試圖은 문헌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民俗學 分野의 활발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觀光을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속자원의 觀光商品化에 관한 선행연구 경향은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活性的인 편은 아니지만 金榮敦의 5인이 저술한 논문⁶⁴⁾을 위주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현황, 가치성, 효율성 및 보존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도의 문화적 관광자원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홍순만의 <濟州道 文化財 概觀>(濟州道 72, 1977), 全昌壽의 <제주도 문화재>(제주도 61, 1970), 현동호의 <제주시 문화재 현황>(제주시 12, 1969), 宋錫範의 <歷史上에서 본 북제주군 문화재>(북제주군 56, 1967), 文基善의 <觀德亭 詳考>(제주시 5, 1967) 등이 있다.

文化財의 保存에 대한 研究는 宋錫範의 <본도 문화재보존에 대한 小考>(북제주 55, 1967), 玄昌淑의 <제주도 문화재보호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제주도업무 개선발표회 발표논문, 1982), 洪貞杓의 <문화재 보호대책>(제주도 55, 1972), 부윤화의 <문화재 보호와 관광사업: 남제주군을 중심으로>(남제주 7, 1969), 정수현

64) 金榮敦·高南旭·夫萬根·申幸澈·金泰保·許鐵洙,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Ⅲ)-사회과학분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집, 1985. pp.325~321.

의 <남제주군 문화재 실태와 보호에 대한 문제점>(남제주 56, 1968)등인데 본도 문화재 보존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존방안을 연구의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민속에 대한 연구도 본도 民俗의 現況, 보존 및 관광자원화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玄容駿의 <제주도 민속 2제> (제주도 61, 1973), 조재부의 <제주도의 풍물과 민속> (북제주 51, 1966), 金榮敦의 <제주민속의 보존> (남제주 16, 1971), <민속촌 지정·보존을 위한 문제점 및 방안> (濟研 4, 1977), 진성기의 <제주도 민속 보존의 문제점> (제주도 60, 1973), 高南旭·徐庚林의 <제주민속촌 구성에 관한 연구: 특히 관광적 측면을 중심으로> (知恩邊時敏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78), 徐庚林의 <제주민속의 관광자원화 방안> (제주대 논문집 10, 1978) 등의 연구가 있다.

제주도의 사회적 및 산업적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는 梁重海의 <제주도 관광과 문화행사> (제주도 30, 1967), 김경호의 <풍부한 수렵자원> (開發濟州 13, 1976), 金君天의 <제주도의 수렵> (제주도 61, 1970), 白雲哲의 <제주도의 木物壽石> (제주도 61, 1979) 등이 「濟州道 名物の 再發見」이라는 특집 시리즈로 발표되었다.

제주도의 觀光資源 現況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韓國觀光公社가 1972년 6월 창간호를 내고 이어서 1978년 9월에 증보판으로 발간된 「韓國觀光資源總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책의 濟州道編을 보면 地域概要, 瀛州十景 外에 각종 계곡, 동굴,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문화, 사회, 산업적 관광자원 등 전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관광성, 開發 潛在力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해설되었다.

그 외에도 개인저술로서 禹樂基의 《國民觀光 : 濟州道篇, 1982》과 梁宇鎮, F. H. Dustin, 康壽彦의 3인 공저인 <Korea's Island Province : An Introduction to Cheju-do>(제주대학 관광개발연구소 간행, 1975) 등이 있다.

金榮敦⁶⁵⁾은 제주의 연자매의 분포상황과 연자매의 형태, 제작, 기능 등으로 나

65) 金榮敦, "제주의 연자매(研子摩)," 제주대제주도문제연구소, <濟研> 제2집, 1975., "제주의 연자

뒤 고찰했으며 또한 성읍리 및 동명리 두지역을 민속촌으로 지정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보존 방안을 연구했다.

玄容駿⁶⁶⁾은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안을 제시했으며, 徐庚林⁶⁷⁾은 표선면 성읍리를 중심으로 제주민속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전통을 살려가면서 이를 관광객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냐는 것은 관광제주가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라 전제하고 觀光地의 人情·風俗은 커다란 자원이라고 했다.

金敬昊⁶⁸⁾는 제주지역의 관광도산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姜景濬⁶⁹⁾은 제주도 전승 연희, 혼인지의 관광자원화방안, 제주 들의 활용방안, 민속 자원의 개발을 다루었다.

또한 梁淳祕·梁鎮健⁷⁰⁾은 지방문화예술의 활동공간, 주체, 재정, 육성, 특이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吳南三⁷¹⁾은 제주도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자원가치를 규명하고 관광자원화 방안을 탐색했다. 李光奎⁷²⁾는 제주도의 婚禮, 喪禮, 祭禮의 특성과 가족계승에 대한 문화사적 중요성을 논했다.

매(물방애),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1집, 1984., "민속촌 지정·보존을 위한 문제점 및 방안," 제주대 제주도문제연구소, <濟研> 제4집, 1977.

66) 玄容駿,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안,"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67) 徐庚林,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 方案," 제주대 <논문집> 제10집, 1978.

68) 金敬昊, "제주지역 관광도산품업의 과제," 제주대 <논문집> 제11집, 1979.

69) 姜景濬·徐庚林·梁淳祕, "제주도내 특수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대 사회 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2집, 1986.

70) 梁淳祕·梁鎮健, "제주도 고유문화의 보존 및 宣揚方案에 관한 연구-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87.

71) 吳南三,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론 고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6호, 1987, "제주도 고유문화의 보존 및 선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97.

72) 李光奎,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사회민속측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연구> 제13집, 1993.

金相勳⁷³⁾은 관광자원과 향토의 개발, 朴龍虎⁷⁴⁾는 민속놀이의 의의를 살펴보고 있고, 朴石熙⁷⁵⁾는 문화재 놀이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金洪雲⁷⁶⁾은 민속놀이를 전통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과 서로 연계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한 民俗酒의 개발도 선행해야한다고 했다. 全梅姬⁷⁷⁾는 민속무용의 생활화를, 고금희⁷⁸⁾는 민속행사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했다. 李長春⁷⁹⁾은 한국고유놀이문화 개발과 무형문화재 등의 觀光資源 活性化方案을 모색했다. 그리고 세시민속, 놀이, 오락, 곡예, 그리고 민속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부족하였다⁸⁰⁾

학위 논문으로서는⁸¹⁾ 宋炳圭, 趙熙成, 朴賢淑, 권혁을, 鄭甲植, 李基春 등⁸²⁾이

73) 金相勳, “관광자원과 향토의 개발,” <용황> 제5집, 1981.

74) 朴龍虎, “한국민속행사의 관광적 가치,” 경기대 <논문집> 제6집, 1978.

75) 朴石熙, “관광지의 배경적 요소 및 놀이의 연출에 관한 연구,” 경기대 <논문집> 제19집 제1호, 1986.

76) 金洪雲, “민속관광자원에 대한 고찰,” <地籍>, 1985. 3., “한국의 지방민속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 1986. 8. “‘86 아시안 게임과 민속주의 개발,” 한국관광협회, <관협>, 1986. 8.,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12호, 1988., “한국의 민속놀이극의 관광축제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제1권, 1989., “문화관광과 민속놀이의 관광자원화,” 한국관광협회, <관협>, 1989. 7.

77) 全梅姬, “민속무용에 관한 小考,” 경기대 <논문집> 제6집, 1978.

78) 고금희, “우리나라 민속행사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0집, 1987.

79) 李長春, “관광수요충족형 관광자원 개발의 향방,” 한국관광협회, <관협>, 1985.1., “무형문화재 등의 정기공연정착을 위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협회, <관협>, 1993.9.

80) 金洪雲,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1988, p.71.

81) 한국관광학회·한국관광진흥연구원, 1967~1993 관광관련자료목록집, 1993.12.

82) 宋炳圭, “傳統文化的 觀光資源化에 關한 研究,”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趙熙成, “傳統 민속놀이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朴賢淑, “濟州島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권혁을, “지역전통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鄭甲植, “한국 전통 민속마을의 합리적인 관광자원화 방안,” 경희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李基春,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있다

宋炳圭는 관광문화를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담은 문화관광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했고, 趙煥成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연계코자 했다. 朴賢淑은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을 인류학적 접근분석을 시도하여 관광지 주민사회로서 그 마을에 나타나는 각 특성과 상호관계를 고찰했다. 권혁울은 지역전통문화를 문명적으로 개발 육성하기보다는 전통적인 특성의 형태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개발 연구했다.

鄭甲植은 전통민속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관광권과 주위의 관광루트와는 상호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대상자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했다. 李基春은 전통민속주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觀光資源化 시키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논문들의 연구 경향은 첫째, 연구범위가 民俗資源에 한정되어 있으나 거시적이며, 둘째,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 중심이다. 그러나 鄉土文化에 민속관광을 접목시키려는 실질적인 연구로 연구 대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第 3 章 濟州地域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및 問題點

第 1 節 濟州道의 觀光環境

濟州의 민속資源은 제주의 자연環境과 역사적 배경에 어우러져 적합하게 형성되어 온 基層文化¹⁾때문에 그 形成 背景이 되는 자연環境과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1. 自然環境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文化財든 그 나라 그 지역의 자연環境과 歷史 背景에서 그 특성이 형성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의 자연적 환경은 자세히 기술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 중 두드러진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서북해상 최남단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섬이다(면적 : 1,819km², 木浦와의 거리 : 약 88마일, 일본 대마도와의 거리 : 170마일). 이러한 위치는 제주도의 풍토, 기후에 영향을 주어 동식물의 분포, 산업의 구조 등에 작용하면서 버림받은 島嶼, 군사적 요충지 등 歷史的 意味를 지니게 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천연기념물이 많고 면적에 비해 城址가 많다.

2)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서 년 평균 기온이 15° C 内外²⁾로 매우 따뜻하나, 계절풍이 심하여 제주시 지역은 北西風이, 서귀포 지역은 北東風이 最多風이 되어 '풍다의 섬'이라 부른다. 이처럼 제주도는 해양성기후 특성이 우세하나 한겨울은 대륙성기후 특성을 띠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局地的인 기상변화가 극심하여 바람과 강

1) 梁淳泌·金順澤의,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서울), 1986, p. 46.

2) 濟州道, 제주도통계년보, 1993, pp. 63~66.

수량의 강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하다³⁾

3) 섬의 중앙에 1,950m의 休火山인 漢拏山이 높이 솟았고 주위에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면서 東西斜面은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넓은 초원과 南北斜面은 이보다 급한 경사를 이룬다.

4) 본 도의 山勢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실드火山體(Shield Volcano)를 이룬다. 360여개에 달하는 寄生火山(오름)이 散在해 있고, 8개의 有人島와 54개의 無人島가 부속돼 있다⁴⁾. 제주도는 돌로 덮인 들섬이라 할 정도로 겹고 多孔質인 玄武岩으로 생활주변에 무수히 산재해 독특한 돌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5) 한라산 北部地域에는 화산폭발 당시의 용암둥굴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용암둥굴의 대부분은 취락과 인접한 곳에 분포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⁵⁾. 南部地域에는 해안부에 폭포가 여러개 형성되어 있고, 하천들은 현무암층을 흐름으로써 降雨時에만 나타나는 乾川이 많고 지하수는 해안선 가까이서 湧出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自然部落이 형성되었다. 지형도상에는 乾河川은 총 40개가 된다.

6) 제주도의 동물은 17종의 포유동물, 873종의 곤충, 조류가 21目 41科 198種으로 겨울새가 63종, 여름새가 40종, 철새가 22종, 텃새가 37종을 헤아리고 있다⁶⁾. 식물종류는 총 1,800여種이 분포⁷⁾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은 제주도의 文化 즉 취락 형성, 산업구조, 의식주의 생활 양식 등의 형성에 작용하여 유형·무형문화재의 특성에도 직접, 간접의 영향을

3) 漢拏日報社, 한라연감, 1991, p. 244.

4) 濟州道, 제주통계년보(33회), 1993, pp. 58~59.

5) 濟州道, 濟州道誌 제1권, 1993, pp. 51~57.

6) ① 禹榮基, 제주도, 정문사, 1980, pp. 550~558.

② 韓國觀光地開發研究所編, 韓國觀光資源論, 1986, pp. 332~333.

7)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資料集, 1984.

주었고 특히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형성시켰다. 觀光하고자 하는 마음⁸⁾을 안겨 주는 자연경관의 美的 魅力은 질서와 다양성이 요구된다.⁹⁾ 제주도의 多文化와 360여 개의 오름(기생화산) 등은 다른 지방에 비해 특이하고 신선한 아름다움을 준다.

日本의 주간지인 <週刊朝日>에서도 기획기사인 '耽羅紀行'을 20회나 다루어 民俗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고,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도 특집 기사를 보도해 神과 바람과 민속의 故鄉 제주도를 알리고 있다.¹⁰⁾

제주도의 자연경관으로서 산악 15개소, 고원 7개소, 분화구 11개소, 동굴 31개소, 폭포 10개소, 계곡 22개소, 해안경관지 46개소, 해수욕장 12개소, 호수 및 하천 35개소, 식생군락 52개소, 부속섬 15개소 등 총 256개소에 이르고 있다.¹¹⁾

이러한 地理的·自然的 環境은 제주도의 농업에 있어서 作日과 農耕法과 衣·食·住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民家の 형태·구조의 특색을 남게 했고 신앙, 민간 지식 등에도 독특한 문화를 形成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을 규정지어 주면서 동시에 民俗의 특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2. 人文環境

1) 歷史的 概觀

제주도에는 先史時代부터 原住民이 살아온 사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시 吞羅洞과 龍潭洞 일대, 涯月邑 일대의 지석묘들의 분포, 朝天邑의

8) 李尤求, 國際觀光學, 탐구당, 1992, p. 26.

9) Albert J. Rutledge, ASLA, Anatomy of a Park, McGraw-Hill, Inc., 1971, pp. 32~36.

10) ① 週刊朝日, 1986. 3. 28~1986. 8. 1(20회 연재), "耽羅紀行", 司馬康太郎記

② Le Monde, 1991. 7. 7 字 특집, "제주, 한국과 바다 사이" 제민일보, 1991. 7. 8 字에서 재인용

11) 高南旭,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진흥방안,"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호, 1985, p. 105

북촌유적, 애월읍의 郭支유적, 한림읍의 挾才유적과 月令유적 등이 발견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고, 근래 애월읍 어음리의 빌레못굴과 서귀포 천지연 근처에서 구석기 유물로 추정 되는 타제석기, 石刀 등의 발견은 구석기 시대까지 선사문화를 거슬러 올라가게 할 가능성 마저 있다¹²⁾. 이와 같이 제주도내에서 한반도 남반부와 연결되는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사실은 확실하게 제주 先住民이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移住民임을 뒷받침하고 있다¹³⁾.

사료에 근거한 濟州의 역사는 毛興穴(三姓穴을 말함)에서 高·梁·夫 3神人이 나와 개척 원주민의 시조가 되고 耽羅·涉羅·耽浮羅·毛羅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耽羅國이라는 부족국가가 세워져 있었다. 문헌 기록에 나타난 육지부 사회와의 교류는 삼국 시대부터 엮었다. 탐라국은 독립을 유지하면서 신라와 백제 양국과 조공무역을 실시하였으리라 보이며 高麗가 건국되면서 탐라군으로 고려에 예속하게 되었다(肅宗 10년:1105년).

元宗 12년(1271년)에 金痛精장군이 진도에서 삼별초군을 이끌고 들어와 애월읍에 성(지금의 항파두리)을 쌓아 항거하자 麗蒙聯合軍에 의해 전원 玉碎하였다. 이를 계기로 몽고가 무려 100여년 동안 제주를 통치하게 되어 제주인의 생활습속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인다¹⁴⁾.

몽고의 외침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략은 제주인의 생활과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조선조에서도 수십 회의 침입이 있었고, 이를 방어하고 살아남기 위해 해변가에 환해장성을 비롯 각 縣·鎭 등 도처에 돌로 성을 쌓았고 봉수대와 연대를 설

12) ① 鄭永和,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고고학적 측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3호, 1984, pp.13~34.

② 이청규, “제주도 선사문화의 여러 단계의 양상,”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학우회 <제주문화> 창간호, 1987.

13) 梁英雄·金種太·金炳澤·李起旭, “한국 문화 속의 제주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 제주대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6집, 1990, p.20.

14) 金宗業, 耽羅文化史, 제주:조약들, 1986, pp.71~77.

치하여 스스로 이 섬을 지켜 왔다. 濟州防禦를 위하여 세종 19년(1437년)에 韓承舜을 안무사로 임명하여 방어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3城(제주성, 대정성, 정의성), 9鎭 및 10水戰所와 25개의 봉수대, 38개의 煙臺들¹⁵⁾이 이때부터 정비되어 갔다¹⁶⁾.

조선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제주도의 모든 제도와 행정력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태종 2년(1402년)에 성주와 왕자의 칭호는 폐지되었고 漢拏山 북쪽을 濟州라 부르고 牧을 두어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山南을 양분하여 동쪽에 旌義縣, 서쪽에 大靜縣을 두고 각각 현감이 다스리게 하였다.

제주에는 버림받은 벽지 도서 취급을 여전히 받아 정객·학자들의 流配地로 이용되어 五賢이라 불리는 金淨, 鄭蘊, 宋時烈 등과 李建, 仁城君, 光海君, 金舜孫, 申命圭, 金春澤, 金正喜, 崔益鉉, 朴泳孝 등 수많은 사람들이 代를 이어 流配되었다¹⁷⁾. 이들의 훈학으로 제주에 유학의 보급과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들의 남긴 시문, 서간문 등과 그들의 공적을 기리는 碑文은 간간이 있지만 그들의 명성에 비해 可觀的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조의 제주인의 역사는 桎梏의 역사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을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낸다는 말로 표현되었던 제주의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사회에 통념화 되었듯이 제주도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여의치 않았다.

이곳은 600여년 동안 流配의 섬이며, 무려 200여년 동안 출륙금지령(1629~1830)으로 移住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철저히 폐쇄적인 생활이 강요된 섬이다.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죽어 갔으며 중앙정부에서 온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다. 이 금지령이 풀리면서 제주는 일제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¹⁸⁾.

15) 濟州道, 濟州道誌(下), 1982, p. 662.

16) 金宗堯, 전계서, p. 116

17) 金宗堯, 전계서, pp. 177~183.

제주의 역사적 사건은 조선 숙종 때의 목사 李衡祥의 불교와 미신타파 정책은 ‘당 오백, 절오백’인 제주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神堂과 寺刹을 불사르고 모든 심방(巫堂)을 歸農 시킨 이 사건은 민간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사찰문화재를 불사르고 제주 불교사의 맥을 끊어 버리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또한 日帝는 舊韓末까지 보존되어온 관청의 건물들을 헐어 버리고 도자기·서화 등 動産 文化財들도 거두어 가 버렸다. 해방 후에는 4·3사건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유적·유물들이 다시 불타 버리는 비운을 겪게 되어 제주 사회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5·16혁명 후에는 새마을 운동의 시행과정에 대부분의 民間信仰處 및 巫俗들이 없어지는 착오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庶民의 기반인 민속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건물이나 사찰 등은 없어도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들은 산재해 있어 학술적 가치를 풍부히 지니고 있어 鄉土色이 짙은 예술성과 실용성, 주민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문화재는 제주의 자연적 환경조건과 역사적 조건이 복합작용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소산이요 전승되어온 제주인의 魂의 結晶體이다.

2) 文化景觀

제주도의 觀光資源은 그 규모 및 경관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우수한 관광지에는 미치지 못한다¹⁸⁾하더라도,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형적인 특수성과 남해상의 환해적인 위치 관계에서 오는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驚異가 그 도처에 散在해 있다²⁰⁾.

18) 양영웅·김종태·김병택·이기옥, 전계논문, pp. 20~21.

19) 徐庚林, “제주도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 <논문집> 제9집, 1977, p. 637.

20) 張聖洙, “권역별 관광자원의 비교 고찰,” 제주대<논문집> 제 18집, 1985, p. 133.

이에 반해 육지와 격리되었던 地理的, 歷史的 背景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觀光欲求를 충족시켜 줄 만한 文化的 對象이 극히 빈약한 실정²¹⁾이다.

제주도의 문화적 경관으로는 국보는 한점도 없고 보물 1점(관덕정), 사적지 1개소(三姓穴), 천연기념물 18종이 있으며 이외에도 민속자료 7점을 비롯하여 유·무형 문화재 24점, 기념물 39종이 있다.²²⁾

제주도내에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굴되면서 계속 새롭게 발굴되고 있고 동굴 집 자리도 10여 군데나 있다<표 3-1>.

<표 3-1> 동굴집 자리

유 적 명(집자리)	소재지	시 대	유 물	비 고
빌레못굴집자리	애월읍 어음2리	구석기	황곰뼈, 석기	상태복원 필요
한들굴동굴집자리	한림읍 월령리	신석기-철기	토기, 패류	
협재동굴집자리	한림읍 협재리	철기	토기	현한림공원내
온평동굴집자리	성산읍 온평리	-	-	혼인지 옆, 삼 성신화와 관련
색달동굴집자리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	철기	토기, 석기	
천지연바위그늘집자리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에서 남쪽 100m 지점	구석기	재발굴 요망	해식현상에 의한 동굴
북촌리바위그늘집자리	조천읍 북촌리	신석기-철기	토기, 골각기	기념물 45호 지정
중문동바위그늘집자리	중문관광단지 내 포함	철기	석기	현재, 해녀탈의 장으로 이용

21) 宋成大, “관광자원 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 제주대 <논문집> 제18집, 1984, p. 525.

22) 濟州道, 제주도통계년보, 1993, pp. 318~319.

유 적 명 (집자리)	소 재 지	시 대	유 물	비 고
예혜동바위그늘집자리	중문관광단지 경계점	철기	토기, 패류	
하예리바위그늘집자리	남원읍 하예리	철기	토기	
한남리바위그늘집자리	남원읍 한남리	철기	토기	

〈표 3-2〉 용기굴·원담·포구·염전

종 별	문 화 재 명	수 량	소 재 지 명	비 고
용기굴	무릉2리 용기굴 신평용기굴	1곽 1곽	대정읍 무릉2리 대정읍 신평리	잔존부분 붕괴우려 보존상태 양호
원(개)	동복원 하모원 보목원 (1)맹지미원 (2)동애기원 (3)느알원 (4)물썸원 새배원 신흥마을원 금농마을원 연대마을원	1곽 1곽 4곽 1곽 5곽 8곽 6곽	구좌읍 동복리 대정읍 하모리 서귀포시 보목동 제주시 삼양1동 조천읍 신흥리 한림읍 금농리 제주시 외도2동	해안가 바다 포함, (1,000여평) 해안가 바다 포함, (5,000평) 해안가 일대 해안가 일대 " " "

종 별	문 화 재 명	수 량	소 재 지 명	비 고
포 구	화북포구	1곽	제주시 화북동	官港的 성격 해안가 바다 포함 (100여평) 해안가 일대
	벌랑개맛	1곽	제주시 삼양동 (벌랑)	
	성천포구	1곽	중문관광단지 내	
	보목포구	4곽	서귀포시 보목동	
	(1)배개			
	(2)큰머리개			
	(3)구두머개			
	(4)스태개			
	‘서홀개’ 앞개	1곽	제주시 삼양1동	해안가 일대
	벌방진 관개창	"	구좌읍 하도리	"
	필개	"	남원읍 태흥리	"
	베렁이개	"	한림읍 금능리	"
염 전	철무지개	"	애월읍 구엄리	"
	닭은개	"	제주시 수근동	"
	염쟁이 소금빌레	1곽	애월읍 구엄리	해안가 일대
	시흥 소금밭	"	성산읍 신흥리	
	필개 소금밭	"	남원읍 태흥리	
	종달리 소금밭	"	구좌읍 종달리	

〈표 3-3〉 環海長城 유적자원

유 적 자 원	수 량	소 재 지	비 고
애월 환해장성	1곽	애월읍 애월리	해안가 일대
고내 환해장성	-	애월읍 고내리	
화북 환해장성	-	제주시 화북동	
북촌 환해장성	-	조천읍 북촌리	
동북 환해장성	-	구좌읍 동북리	
함덕 환해장성	-	조천읍 함덕리	
평대 환해장성	-	구좌읍 평대리	
온평 환해장성	-	성산읍 온평리	
신산 환해장성	-	성산읍 신산리	
태흥 환해장성	-	남원읍 태흥리	
일과 환해장성	-	대정읍 일과리	

〈표 3-4〉 濟州의 城址

城址	所在地	實況規模			비고
		높이(m)	폭(m)	둘레(m)	
濟州城	제주시 2도1동	3.3		1,650	지방기념물 제3호
무근城	제주시 3도동 일대				현재 없음
禾北城	제주시 화북동	4.6		110	
西歸城	서귀포시 서귀동			240	현재 없음
東海城	서귀포시 회수동	3.6		150	
明月城	한림읍 동명리	2.4		906	지방기념물 제29호
涯月城	애월읍 애월리			164	
缸波豆里城	애월읍 고성리	2.4	3~4	6,000	지방기념물 제28호
別防城	구좌읍 하도리	4~5		1,500	" 제24호
遮歸城	한경면 고산리	4		720	
高山城	한경면 고산리				석축형태만 잔존
朝天城	조천읍 조천리	2.7	1.5	128	
環海長城	조천읍 북촌리	2~3	1~2	500	
慕瑟城	대정읍 상모리	3.6		100	
大靜城	대정읍 안성리	5		1,227	지방기념물 제12호
白山城	성산읍 고성리			200	석축형태만 잔존
古城城	성산읍 고성리	6			
水山鎭城	성산읍 수산리	1.8		1,200	
城邑城	표선면 성읍리	4		756	

〈표 3-1/2/3/4〉

자료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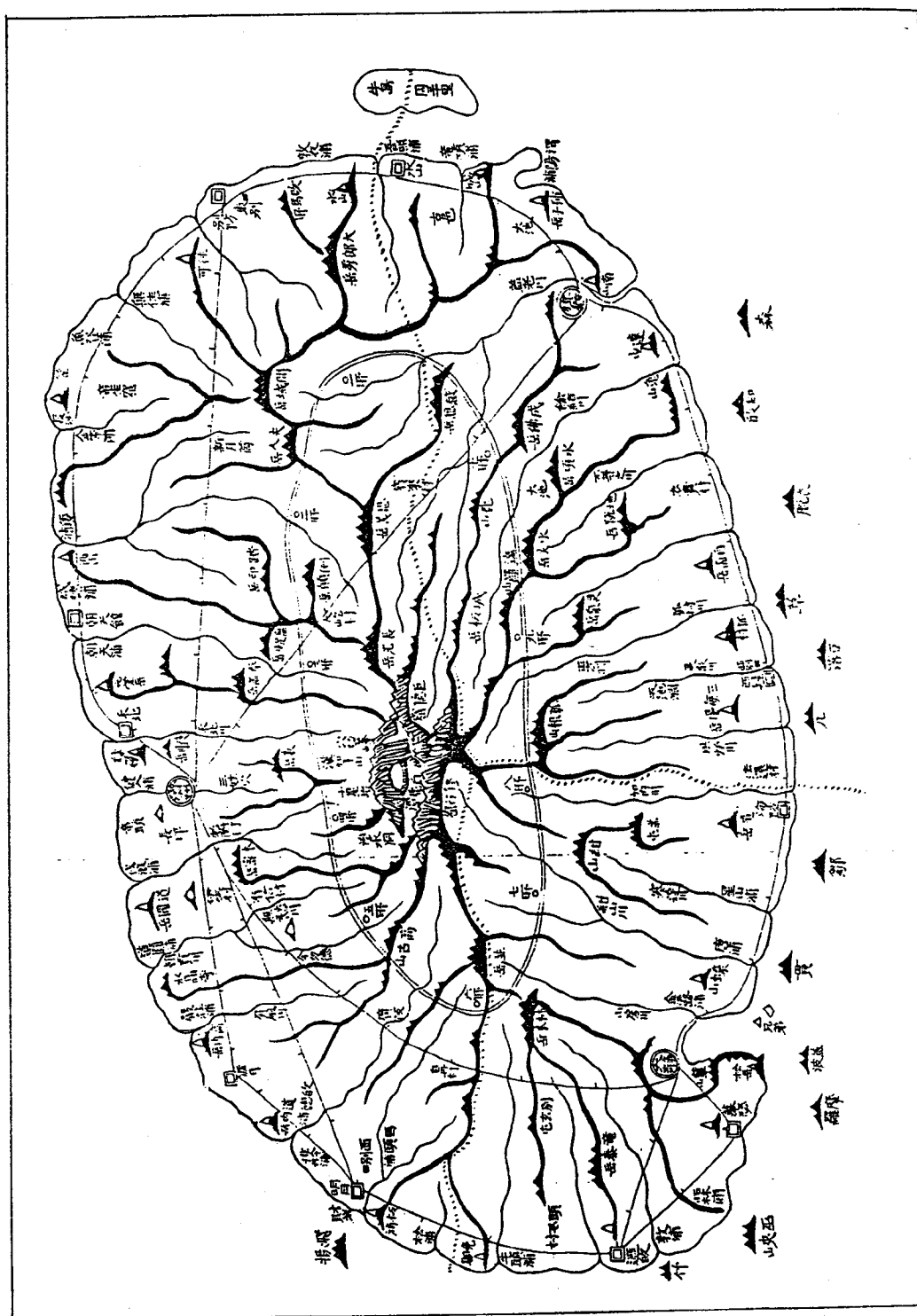
濟州道, 濟州道誌 제 3권, 1993. / 濟州의 文化財, 1982.

_____, 제주도 제81호, 1987. 1.

濟州道教育研究院, 耽羅의 教育遺産, 1983. 3. / 郷土文化財, 1985.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하권), 1989.

〈그림 3-1〉 「大東輿地圖」에 나타난 봉수(烽燧)와 煙臺



濟州道에 따르면 현재 道內에는 신앙유적으로 마을이 신당이 202개소, 포제단 16개소, 방사탑 19개소를 비롯, 선사유적으로 동굴집자리 11개소, 생활유적인 원, 포구, 염전 16개소 환해장성터 11군데가 남아 있다.

<표 3-2>에서 보면 웅기굴 2군데, 원이 7군데, 포구 13군데, 염전 4군데 등을 볼 수 있다.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環海長成 <표 3-3>은 11군데가 있고 제주의 城址 <표 3-4>는 19개가 있어 民俗資源이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한 신앙유적, 선사유적, 생활민속유적들은 이미 조사되었거나 알려진 것들인 限定的인 숫자이다. 제주도 전역에는 이러한 유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煙臺와 烽燧臺도 주로 해안선과 오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3-1>. 제주지역에는 봉수 25개소, 연대 35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남제주군 성산읍 신앙리와 온평리에 있는 煙臺 2기만이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支石墓(고인돌)는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것은 도합 55기로서 완전한 것은 28기이다. 제주시 지역이 31기, 애월읍 광평리에 20기, 애월읍 하귀리에 4기가 있다.

3) 濟州民俗의 特徵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 또는 개발의 방향을 논의하는데는 우선 제주도 민속문화의 특성부터 정리하여 그 것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²³⁾. 濟州 民俗의 특성은 자연 환경과 역사 배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濟州的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濟州的'이다 라는 말에는 島嶼 文化的, 庶民 文化的, 固有 文化的이라는 意味가²⁴⁾ 깃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방문화적 색채가 짙다, 강인불굴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등의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島嶼 文化的이라는 말은 도서라는 조건에 적응토록 문화의 특성을 지녔다는 거다. 농업은 잡곡(보리, 조, 팥 등) 병작이 주가 되고 축산은 방목, 어업은 연근해

23) 현용준, "제주도 민속 문화의 보존과 개발 방향," <제주도 연구> 제2집 1985. p. 3

24) 濟州道, 제주도지(하), 1982. pp. 678~679.

어업이 중심이 되고 또한 해녀 작업이라는 특수 漁撈 형태를 갖게 되었다. 초가지붕, 가옥구조, 노동복인 '갈옷', 건축에 석재 이용, 돌담 울타리, 石具, 석상, 기타 의식주 생활의 특이성들도 이 特性의 산물이며 民謠, 說話, 信仰儀禮 등에도 이런 성격이 농후하다.

庶民 文化的이란 것은 삼성 신화이래 고도의 문화 국가를 이루지 못했으니 남겨진 왕궁도 없고 유물, 유적도 없다는 것이다. 고려 이후에는 버려진 島嶼 僻地로 취급받아 왔기에 귀족 文化의 유적, 유물은 미미하다. 각박한 풍토를 강인한 의지로 개척 활용하여 전개해 온 庶民의 生活 文化가 濟州人에게 배여 있다.

衣生活에 있어 가족옷류는 이미 사라졌지만 '갈옷'이라는 노동복을 만들어 일상복으로 입었고, 食生活에 있어 보리, 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요리 방식이 발달치 못해 매우 검소했다. 住生活에 있어서는 人家(草家집)는 큼직큼직한 돌과 흙으로 지어, 띠로 지붕을 덮고 굽직한 밧줄로 바둑판처럼 엮어매고 있고, 울타리는 처마와 가지런한 높이로 널찍하게 돌로 두르고 대문이 없이 <정낭>을 걸치고, 한울타리 안에 一字型 건물이 <안거리>, <밖거리>로 배치되어 있어 부자간의 가족이 독립생계를 꾸려 가게 된 점, 그리고 석구류가 발달해 있다. 이러한 물질문화는 각박한 濟州 풍토와 잡곡 재배 문화에서 소산된 것으로 돌과 바람을 이겨낸 지혜의 文化라고 요약될 수 있다²⁵⁾. 이러한 여건 때문에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三無의 美風이 形成 되었다.

固有 文化性이란 것은 제주도는 절해 고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는 항시 늦게 들어와 옛 문화를 계승, 유지케 되었다는 것이다. 무속이 성행, 남녀 부락제의 이중 구조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 巫俗은 고유적 신앙 형태로 제주도민의 전생활 영역에 지주가 되었다. 근래에는 무속은 女性 信仰 形態로 변질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업, 무혼, 질병 치료 등에 작용하며 성행되고 있다.

제주도에는 男性들이 주관하는 儒敎式 部落祭인 포제(酬祭)와 女性들이 주관하는

25) 현용준, 전계서, pp.3~4.

무속식 부락제인 당굿이 병존하고 있다. 본래 남, 여 공유의 부락제였던 당굿에서 남성들이 분리 이탈하여 포제를 만들고 여성들은 원래의 신앙 중심인 당을 차지하여 二重 信仰性을 표출하게 되었다.

민요, 무가, 신화, 전설 등이 풍부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民謠의 80%이상이 勞動謠이고 그 중 80%가 女謠이다. 濟州人의 비통한 생활과 근면, 자립, 불굴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각박한 풍토의 잡곡재배 문화에서 우리난 생활의 표현이다. 巫俗의 굿은 무가, 신화를 산출하여 巫樂, 巫舞, 巫劇을 행하여 그 특이성과 예술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설 또한 제주인의 괴로웠던 삶과 꿈을 표현한 것들이 많아 特異性을 보인다.

이러한 제주민속의 특성은 濟州道 文化財의 特性에 그대로 연결된다. 文化財의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제주도의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이 많다.

둘째, 제주도에는 城址가 많다. 현재 지정 보호되고 있는 성지는 제주성지, 대정성지, 명월성지, 별방진, 향파두리만이 지방 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성지는 보존이 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지가 관리상태가 영성하고 헐리어지는 현실인바 그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3-4>

셋째, 사적이 南方 文化的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三姓穴과 같은 지중용출 신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밖에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이런 神話는 일본 오키나와 지방에서 볼 수 있으며 남방 文化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이 신화에 얽힌 유적은 삼사석, 혼인지 등이 생생히 남아 있다.

넷째, 무형문화재나 민속자료가 島嶼의 庶民 文化性을 짙게 반영하여 주고 있다. 지정 문화재의 중요 無形文化財에 칠머리당굿, 탕건, 갓모자가 있고 중요 민속 자료에 研子摩, 성읍의 초가들이 있으며, 지방 무형문화재에는 民謠 5首, 영감놀이, 영등굿놀이, 관포공예가 있다. 그리고 地方民俗 자료에는 복신미륵 2基, 돌하루방 45基와 초가 88棟, 瓦家 21棟이 있으며 이외로 城邑 民俗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無形文化財의 칠머리당굿, 영감놀이, 영등굿놀이는 제주도 무당굿의 대표적인 것들로서 濟州民의 오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초자연적 존재에의 順應樣式이다. 신앙적 측면에서는 각박한 풍토와 거친 바다와 싸워 온 제주민의 생활에서 저절로 형성된 俗信이 담겨 있고 예술적 측면에서는 그 초자연적 존재에의 順應技藝로서 음악, 문학, 무용, 연극이 종합예술체로 융해되어 있는 것이다. 民謠 5首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해녀노래’, ‘멧돌노래’로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희謠와 노동요를 뽑은 것이다. 이 民謠들에는 濟州民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고 근면한 노동과 강인한 생활 정신이 담겨 있다.

탕건, 갓모자, 양태 등 冠帽工藝는 濟州 여성들의 부지런함과 그 手工藝의 섬세함을 보여 주는 동시에 제주가 목마장으로서 이용된 역사적 배경에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 해주는 技藝이다.

연자매와 초가는 石多, 風多로 일컬어지는 濟州의 풍토적 악조건을 지혜롭게 이겨낸 文化 소산으로 他道の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색을 지닌 것이다. 특히 초가의 형태나 구조를 돌과 나무, 띠와 흙을 활용하여 가족 구조와 친족구조에 알맞는 생활공간으로 짜놓은 것은 펴 지혜로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생업, 건조물 등의 유기적인 文化構造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城邑 民俗마을을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돌하르방, 복신미륵 역시 濟州民의 신앙과 조형예술의 美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他道の 석상이나 미륵상에서 느낄 수 없는 造形美를 담고 있는 이 석조미술품은 濟州民 특유의 美意識을 대변해 주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무형문화재나 민속자료는 각박한 섬의 풍토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온 서민의 文化的 特性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民謠의 섬>, <民俗의 고장>이니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지정이 적은 것은 民謠, 巫歌, 舞蹈이니 하는 無形的 文化 소산이나 民俗이 오늘날 道民의 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문화재에는 사찰문화재가 적다는 것이 또한 특색이다. ‘당 5백 절 5백’이란 표현이 관용되어 온 제주이지만 지금 역사가 오랜 사찰은 하나도 없다. 제주의 불교는 元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되며 寺刹의 규모나 신앙성, 불상의 조각 등에 불만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믿어지나 아쉽게도 燒失, 破損되고 말았다.

3. 觀光環境

관광자원은 인간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 대상의 총체로서 관광객체에 해당한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다른 어느 지방 어느 나라의 자원 못지 않게 매우 뛰어난 多樣性和 複合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 다른 지방의 관광자원은 대개 단일성 관광가치는 뛰어나지만 가치의 複合性은 결여되어 관광욕구 충족의 限界性을 나타낸다.

제주도는 자연적인 靜態性和 動態性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성 등 하나의 제한된 도서 공간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자연가치와 복합적인 인문기능을 단 시일 내에 감상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

1) 영주 12경(瀛州 12景)

濟州에서는 예로부터 대표적인 경관으로 12군데의 風致를 영주12경(10경)이라 일컬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있다. 이 영주 12경은 제주관광의 중요한 대상들이고, 7경이 濟州市에 있다.

영주 12경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성산일출(城山日出) : 日 出 景 | ② 사봉낙조(絲峰落照) : 日 沒 景 |
| ③ 영구춘화(瀛丘春花) : 春 景 | ④ 굴림추색(橘林秋色) : 秋 景 |
| ⑤ 정방하폭(正房夏瀑) : 夏 景 | ⑥ 녹담만설(鹿潭晚雪) : 冬 景 |
| ⑦ 산포조어(山浦釣漁) : 水 産 景 | ⑧ 고수목마(高藪牧馬) : 畜 産 景 |

⑨ 영실기암(靈室奇岩) : 奇 岩 景

⑩ 산방굴사(山房窟寺) : 窟 寺 景

⑪ 용연야밤(龍淵夜帆) : 地上夜景

⑫ 서진노성(西鎭老星) : 天上夜景

①경에서 ⑩景까지는 모두 晝間 景觀인데, <영주10경>이라 할 때는 이 주관경관을 지칭하고, 12경을 추가할 때는 ⑪, ⑫景인 夜間景觀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①, ②景은 朝夕景觀, ③, ④, ⑤, ⑥景은 四季景觀, ⑦, ⑧景은 産業景觀, ⑨, ⑩景은 佛教景觀이다.²⁶⁾

(1) 성산일출(城山日出)

성산 일출봉(해발 182m)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는 장관을 말한다. 정상은 99봉우리의 암벽으로 성곽처럼 둘러싸여,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분화구가 하나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암벽에는 풍란이 자라고 있고 바다쪽 절벽에는 일본군이 최후의 격전지로 파놓은 참호인 지하동굴들이 널려 있다. 바다 건너에는 소섬(牛島)이 있고, 남쪽으로는 新陽煙臺, 신양해수욕장, 섭지코지, 그리고 耽羅의 高·梁·夫 세神人이 三公主를 맞아들어 결혼했다는 溫平里 바닷가와 婚姻池로 이어지는 관광지가 산재하여 있다.

(2) 사봉낙조(蘇峰落照)

제주시 蘇羅峰에서 바다로 지는 日沒의 광경을 말한다. 사라봉은 제주시 관문인 제주항에 연이은 공원지역으로서 정상에는 팔각정인 望洋亭, 연대가 있고 북쪽 산기슭 절벽 위에는 등대, 남쪽에는 모충사와 우당도서관이 있다. 산허리에는 몇 군데 일본군이 파놓은 지하 동굴과 칠머리당이 있다. 동쪽으로는 별도봉, 그 옆마을 화북동에는 제주의 옛관문인 鎭이 있었고 지금도 화북성 일부와 海神祠, 삼성혈 신화의 三射石 그리고 비석거리가 있다.

26) 이 근, “영주10경(12경)의 선전기준과 그 사상적 배경”, 제주관광개발연구소 <관광문화> 제1집, 1991, pp.18~26.

(3) 영구춘화(瀛丘春花)

제주시 오등동 남쪽 4km 지점에 위치한 곳에 기암절벽과 함께 松林으로 우거진 절경이 있다. 訪仙門이라 불리는 이 곳에서 봄의 철죽꽃을 감상하는 일을 영구춘화라 한다. 방선문 기암절벽에는 옛 사람들의 시구와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4) 굴림추색(橘林秋色)

제주시 중심부 이도동 五賢壇 주변 橘果園의 가을 경치에서 유래한다. 지금은 이곳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제주 전지역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다.

(5) 정방하폭(正房夏瀑)

서귀포 동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직접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높이 23m)로 진시왕의 不老草 전설이 깃들인 곳이기도 하다. 앞바다의 썰섬, 문섬, 새섬 등은 난대림이 우거져 남국의 風致를 안겨 준다. 외국의 수쿠버 дай버들도 찾아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저 관광의 명소이다. 주변에는 서귀포칼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등이 있고 해안도로는 서귀포항과 천지연, 보목동으로 연결이 된다. 동쪽에 위치한 보목동에는 민속유적인 보목원과 함께 해안경관을 과시하고 있다.

(6) 녹담만설(鹿潭晩雪)

한라산 정상에 쌓인 겨울눈이 이듬해 5월까지 녹지 않아서 산봉우리를 하얗게 빛내는 광경을 말한다. 한라산의 겨울은 환상적이고 아름답다. 특히 겨울철 관광은 춘하추동의 경관을 맛볼 수 있는 신비감을 맛본다.

(7) 산포조어(山浦釣漁)

옛날 山地浦(지금의 제주항)에서 작은배를 타고 낚시하던 모습을 말한다. 지금은 제주항의 방파제가 낚시꾼들의 낚시터로 바뀌고 近海에서 집어등을 켜놓고 고기 잡는 어선들의 불빛이 장관을 이룬다.

(8) 고수목마(高敷牧馬)

古馬場에서 말을 풀어 기르는 風景을 말한다.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자유롭게 뛰노는 말떼의 평화로운 목장풍경은 제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壯觀이다. 목장으로 적합한 조건을 가진 제주지역은 중산간 일대에 120여개의 목장들이 있다. 목장은 기업목장과 마을 공동목장이 대부분이다. 한편 재래종말인 조랑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9) 영실기암(靈室奇岩)

한라산 제 2횡단도로에서 6km 지점에 있는 靈室의 五百羅漢型 奇岩들을 말한다. 오백장군의 전설과 불교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尊者庵이 최근 발굴되고 있다.

(10) 산방굴사(山房窟寺)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치솟아 화순향을 바라보는 험준한 바위산(해발 395m)이다. 예로부터 불상을 모셨던 곳으로 고려 때의 고승 慧日이 도장을 만들었으며, 유배되었던 추사 김정희도 즐겨 찾았던 곳이다.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해안 풍경은 절경이다. 바로 앞에 웅머리,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가 보인다. 주변 일대에는 송악산, 해녀촌 사계리, 대정고을, 대정향교, 추사 적거지, 안덕계곡, 조각공원, 덕수마을, 제1훈련소 터, 안덕해수욕장, 대정해수욕장 등의 관광지가 있다.

(11) 용연야범(龍淵夜帆)

제주시 서쪽 용담동 해안가에 위치한 이곳은 목사가 교체될 때마다 송구영신하는 잔치자리로서 바다로 흘러드는 물에 배를 띄워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즐겼던 놀이를 용연야범이라 한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 정취가 없어졌지만 동쪽으로는 제주향교, 관덕정, 제주관아지, 사라봉 등으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건축가 김중업의 현대 건축물에 이정표를 긋는 건물(현재의 제주사대부고 도서관), 용두암, 해안도로, 연대, 민속유적 어영포구, 해안시민공원 등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있다.

(12) 서진노성(西鎭老星)

西歸鎭 老人星을 줄여서 서진노성이라 한다. 옛 서귀진은 천지연 하류, 서귀포구 언덕에 성을 쌓아 鎭將을 두었던 곳으로 지금은 흔적도 없다. 이곳에서 不老長壽를 상징하는 남극노인성을 볼 수 있어 長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지금도 서귀포구 언덕에 올라 한라산과 천지연 폭포의 기암절벽, 바다에 떠있는 범섬, 새섬, 문섬, 쇠섬을 바라보는 情景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2) 自然觀光資源

제주도는 漢拏山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재한 폭포를 비롯하여 용암굴, 계곡, 기암절벽 및 분화구를 갖는 寄生火山과 四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해안,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곳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島嶼라는 점에서 여타 내륙과는 다른 魅力과 好奇心이 찬 마치 異國의 情緒와 분위기를 풍기는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²⁷⁾.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산악지대와 광활한 중산간지대 그리고 수려한 해안 지대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 등 자연환경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춘하추동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自然景觀은 <표 3-5>과 같이 총 110개소에 달하고 있다.

奇岩絶景으로는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오백나한,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등이 있다. 제주도의 섬은 有人島가 8개소로 비양도(북제주군 한림읍), 우도(북제주군 우도면), 상추자도(북제주군 추자면), 하추자도(추자면), 횡간도(추자면), 추포도(추자면), 가파도(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대정읍)이다. 無人島는 54개(서귀포시 7개, 북제주군 44개, 남제주군 3개가 된다. 또한 寄生火山(오름)이 360여개나 있어 이들 대부분이 噴火口를 가지고 있어 중산간

27) ① 고남옥,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진흥방안,”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호, 1985, p.101.

② 김태보, “제주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제18집, 1984, p.357.

지대 오름들은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뽐내고 있다.

〈표 3-5〉 제주도 자연관광자원

자원유형	자원의 개소		각 자원의 명칭
	총개발 대상	기활용 자원	
산악	15	4	물장울, 흙붉은오름, 돌오름, 어승생악*, 사제비동산, 만수동산, 불레오름, 성판악*, 사라악, 논고악, 동수악, 백록담, 영실*, 1100고지, 방아오름
고원	7	-	큰두레밭, 장구목, 속밭, 상밭, 윗세오름일대, 3형제오름일대, 물가마밭
동굴	10	2	협재굴*, 만장굴*, 사굴, 와홀굴, 한들굴, 빌레못굴, 돌배낭굴, 수산굴, 미천굴, 구린굴
폭포	9	3	천제연*, 천지연*, 정방*, 영또, 안팎구석, 부성원, 선돌, 창천, 어위
계곡	11	4	탐라계곡, 구구곡*, 선녀탕, Y계곡, 수악계곡*, 돈네코용연*, 안덕계곡, 방선문, 무수천, 효돈천
분화구	5	1	산굼부리*, 물영아리, 체오름, 거린사슴, 수악, 성산일출봉*
해안 경관지	20	5	용두암*, 도두해안, 월대, 남포리해안, 수월봉, 산방산*, 손애속굴, 외돌괴*, 사라봉*, 예촌망, 남원해안, 식산봉, 삼매봉, 송악산, 새구각, 월평해안, 두산봉, 조선달이, 개깍
섬	12	-	비양도, 차귀도, 가파도, 형제섬, 문섬, 범섬, 새섬, 섭섬, 달여도, 토끼섬, 우도
해수욕장	11	10	이호*, 광지*, 협재*, 함덕*, 삼양*, 세화*, 증문*, 화순*, 표선*, 신양*, 공천포*
식생군락	6	1	비자림*, 금산공원, 금덕절동산, 동백동산, 명이동곶, 선인장자생지
호수 및 하천	4	-	혼인지, 연화지, 강정천, 악근천
계	110	30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중 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1983, PP.4~5.

*는 기활용자원의 표시임

3) 人文觀光資源

(1) 文化財

제주도의 문화재는 異國的인 風致와 더불어 색다른 전통과 풍습 및 고유의 색깔을 지니고 있어 觀光資源으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제주도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에서 비추어 볼 때 육지부와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유형문화재에 비해 높은 觀光性을 지니고 있다. 국보나 명승은 없고 지정문화재 32점, 지방문화재 73점이 지정되어 있다. 文化財의 분포는 주로 제주시와 북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상 분포의 차이가 현저하다.

〈표 3-6〉 제주도의 문화재 분포현황

문 화 재		계	도일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 계		105	9	38	8	30	20
지 정 문 화 재	계	32	2	9	5	7	9
	보 물	1	-	1	-	-	-
	사 적	1	-	1	-	-	-
	천 연 기 념 물	18	2	3	5	6	2
	중요민속자료	7	-	-	-	1	6
	주요무형문화재	5	-	4	-	-	1
지 방 문 화 재	계	73	7	29	3	23	11
	유 형 문 화 재	15	-	9	-	3	3
	기 념 물	39	2	13	3	16	5
	무 형 문 화 재	9	2	-	-	4	3
	민 속 자 료	7	3	4	-	-	-
	문 화 재 자 료	3	-	3	-	-	-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년보, 1992.

<표 3-6>처럼 제주도의 文化財 現況은 총 105건으로 국가지정이 32건, 제주도 지정이 73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건, 사적 1건, 천연기념물 18건, 중요민속자료 7건, 중요무형문화재 9건, 기념물 39건, 민속자료 7건, 문화재자료 3건이다.

濟州道內에 지정된 국가문화재 가운데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제주시에 있다. 이는 濟州市가 예로부터 제주도의 首府로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²⁸⁾. 또한 제주도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에서도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은 제주시에 비교적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文化財의 주종은 천연기념물 및 기념물이고, 그중 대부분이 자연경관 및 식물로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의 수려함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史的 文化財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적문화재 가운데서도 옥지부와는 달리 사찰문화재가 비교적 적은 반면 城址, 燧臺, 煙臺 등 방호시설이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풍토성과 서민문화를 질게 반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은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적 가치가 풍부하여 양적으로 부족한 문화자원의 취약점을 보충하여 주고 있다.

天然記念物을 제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문화재는 제주시에 위치한 관덕정, 삼성혈, 혼인지, 오현단, 삼사석, 목석원과 북군의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그리고 남군의 성읍 민속마을 등을 들 수 있다.

寺刹은 과거에 규모가 컸다고 전해지는 서귀포시 法華寺의 寺址를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관광객이 찾아가는 사찰은 조계종 제주본사인 觀音寺, 한라산 국립공원내 아흔아홉골에 위치한 天王寺, 산방산에 위치한 山房窟寺 등이 있다²⁹⁾. 그러나 관광자원 가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28) 濟州市, 濟州市三十年史, 1985, p. 982.

29)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 地方篇IV, 1986, p. 494.

(2) 博物館

제주에는 국립박물관은 하나도 없다. 觀光客을 위한 박물관으로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총수집 20,910 중 2,966점 전시), 제주민속박물관(민속자료 3,400여 점 소장)이 있다. 그 외에 제주대학교부속 박물관(소장품 4,730점), 김만덕기념관(김만덕 영정 및 유품 100점 전시), 중문민속박물관, 남읍민속박물관, 제주민속촌(농기구:4,000점, 민구류:9,000점, 어로구:1,000점) 등³⁰⁾이 있다. 제주민속음악박물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3) 遺物 · 遺蹟

제주에는 주민의 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원초적 생활관련 문화재 및 신앙 유적과 近代史 관련유적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많은 유물·유적들은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몇 개의 관청건물지를 제외하고는 祠址, 學堂址, 廟壇 등은 기록에나 있을 뿐이다.

未指定 有形文化財에 해당하는 것은 신앙유적으로 마을의 신당이 202개소, 포제단이 16개소, 방사탑이 19개소, 역사유적으로 동굴집자리 10여 개소, 生活遺跡으로 원, 포구, 엽전 등이 16개소, 중세사 유적으로 尊者庵, 근대사 유적으로 삼의사비, 백조일손지묘, 일본군 전적지 등이 있으며 300년 이상 되는 入島 先墓가 여러 곳에 있다. <표 3-7>, <표 3-8>

濟州의 城址는 봉수, 연대는 대부분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왜구방어가 주목적이었으니 제주민들이 얼마나 왜구침입에 시련을 겪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30) 제주도문화진흥원, 문화공간현황, 1992,

〈표 3-7〉 近代史 유적

유적 지명	수량	소재지	비고
삼의사비	1기	대정읍 안성리	대정현 관내 현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짐
백조일손지묘	-	대정읍 하모리	"4·3사건"으로 희생된 자의 묘들
4·3사건 순례지	다수	제주도 일원	송악산을 중심으로 산재
일본군 전적지	다수	대정읍 하모리	성산 일출봉 일대
일본군 포진지	12개소	성산읍 성산리	(길이 15m, 폭 3.4m, 높이 2.2m)
일본군 전적지	다수	제주시 사라봉외	오등봉, 어승생악, 남조순오름의 동굴 등
모슬포 전적지	다수	대정읍 일대	6·25사변시 제1훈련소(강병대)
조설대	1기	제주시 오라동	일제시 항일 유적지
만세동산	1기	조천읍 조천리	일제시 항일 유적지

〈표 3-8〉 入島 先墓

입도선묘	소재지	비고
高 兆 基 묘	제주시 아라동 2464번지	도지정문화재
康 永의 묘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	信川강씨 입도조(1402년 입도)
金萬希의 묘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金海김씨左政丞公派 (1393년 입도)
金胤祖의 묘	" 구좌읍 서김녕리	光山김씨(1368년 입도)
金儉龍의 묘	" " 종달리	慶州김씨(1401년 ? 입도)
韓 藏의 묘	남제주군 표선읍 가시리	淸州한씨(1392년 입도)
李 美의 묘	한라산 영실부근	慶州이씨益齋公派(1401년 입도)
그외 각 성씨 입도조묘		

자료 : 漢學日報, 연재기획기사 〈先賢의 故郷 : 姜龍三〉, 1989.4.22~12.12日字

4) 기타 觀光資源

産業資源으로서는 한라산 제1횡단도로 및 제2횡단도로, 동·서부산업도로 및 남조로, 해안도로 및 산록도로, 관광농원, 목장(송당목장, 이시들목장, 제동목장 등), 어업기지 등이 있다.

觀光施設로는 중문관광단지, 제주민속촌, 한림공원, 탐라목석원, 신천지미술관, 제주조각공원, 제주분재원, 해수욕장(이호, 삼양, 함덕, 각지, 협재, 세화, 중문, 신양, 표선, 화순, 대정 등) 11개소, 골프장(오라, 아라, 관광단지내 골프장) 3개, 마린파크 시설, 해상유람선, 해저유람선 등이 있다.

레저·스포츠로는 싸이클링, 보드세일링, 행글라이더, 수쿠버다이빙, 수렵 및 승마장 등이 있다. 제주지역은 1963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라산 기슭에 자연수렵지구가 지정되어 유료수렵장으로 개방되어 禁獵區를 제외한 道全域의 수렵장도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사육조수를 수렵할 수 있는 인공수렵장인 대유수렵장이 1978년 10월부터 개장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와 청소년층이 이용되고 있는 승마장은 1992년 12월말 기준으로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바다낚시는 제주도 전 海岸線이 낚시터가 되며 季節따라 어종이 다양하다.

<표 3-9> 제주도의 주요 낚시터

낚시터	유명장소
제주시 지역	제주항, 서부두, 사라봉, 원당봉, 용두암, 도두봉, 제주시해안도로 해변가
서귀포시 지역	새섬, 문섬, 섣섬, 범섬, 외돌개
북제주군 지역	하귀가문동, 애월포구, 귀덕리, 비양도, 용수리, 차귀도, 북촌리, 추자도, 우도
남제주군 지역	모슬포, 성산포, 가파도, 마라도,

자료 : 論者 作成

제주도의 낚시는 갯바위낚시, 트롤링과 배낚시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배낚시(Boat Fishing)에는 외줄낚시가 성행된다. 선박은 제주항을 비롯하여 이호, 하귀, 애월, 화북, 조천, 북촌, 김녕, 세화, 행원 등 항포구마다 수척씩 있으며 2~3톤 정도의 소형어선들이다.

이외에도 漢拏山 등산로가 5개소가 있지만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로만 등산이 가능하고 어리목과 영실 코스는 한라산의 식생보호를 위해 자연휴식년제 실시로 윗세오름(1,700m)까지만 등반이 가능하다. 돈네코 코스는 거의 이용치 않아 제주관광안내도에도 한라산등반안내를 안하고 있다³¹⁾.

근래에는 한라산의 겨울 雪景을 즐기기 위해 가족단위의 관광객과 대만관광객들이 찾아와 겨울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31) 濟州道觀光協會, 제주관광안내, 1994.9.

第 2 節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1. 民俗資源 現況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민속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民俗文化는 민중의 모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 민속문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風土의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풍토적 민속문화라는 점, 둘째, 지리·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된 複合 文化的 특징이라는 점, 셋째, 原形이 잘 保全된 문화라는 점이다. 실제로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화라는 것이다³²⁾.

민속은 전승되는 민간의 生活全體이므로 제주지역의 민속자원 대상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민속자원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指定文化財에 따른 민속자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은 대궁전이나 대사찰은 없어도 서민적 기반인 民俗文化를 계속 견지해 옴으로써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면에서는 그 학술적 가치를 풍부히 지니고 있다³³⁾.

여기서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현황파악과 함께, 未指定 文化財도 필요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에서 民俗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물 1개, 사적 1개, 천연기념물 14개, 중요 무형문화재가 5개가 해당되고 道指定文化財 中에는 유형문화재 7개, 무형문화재 10개, 기념물 23개, 민속자료 9개가 해당된다.

1) 역사유적에 따른 민속자원 : 9종 * () 안은 소재지

관덕정(삼도동)	제주향교(제주시)	대정향교(사계)	연북정(조천)
정의향교(성읍)	향사당(삼도동)	일관헌(성읍)	신촌객사(신촌)
추자처서각(추자)			

32) 林漢洙의 5인, 관광지리(한국편), 백산출판사, 1992, p. 376.

33) 濟州道 文化公報擔當官室, 1982, pp. 410~413

2) 기념유적에 따른 민속자원 : 8종 56개

삼성혈(2도동) 지석묘(용담, 도련, 삼양:5기)

돌하르방(제주시:21기, 성읍:12기, 보성:12기, 총 45기)

조천비석거리(조천) 화북비석거리(화북) 문경공 고조기묘(아라동)

삼사석(화북동) 명월대(명월)

3) 군사유적에 따른 민속자원 : 6종 11개

(1) 城址 : 5개

제주성지(2도동) 대정성지(보성) 명월성지(명월)

별방진(하도) 항몽유적지(고성)

(2) 煙臺 : 7개

신양, 신천, 은평, 조천, 귀덕, 신엄, 표선

4) 民俗資料에 의한 민속자원

(1) 生活文化財 : 4종 73개

(2) 民具 : 3개

연자매 : 2개, 잣동네 말방아(하가), 당거리 말방아(신엄)

남방아 : 1개(제주대 박물관)

(3) 民家 : 초가 52동, 화가 13동

초가 : 국가지정(성읍)

도지정 (제주시:외도, 삼양. 북군:하가, 남읍. 남군:보성, 영락, 신
에, 하천 등)

화가 : 도지정 (제주시 화북, 조천, 신촌 등)

5) 民俗마을 : 1개, 성읍 민속마을

6) 民俗酒 : 오매기술

7) 民間信仰資料 : 7종 8개

오현단(2도동)	불탑사오층석탑(삼양)	법화사지(하원)
복신미륵(1도동)	동자복(건입동)	서자복(용담동)
최영장군사당(추자)	해신사(화북)	절부암(용수)

8) 工藝技術 : 5종

(1) 갯일, 탕건장 : 망건장(화북), 갯일양태(조천), 갯일총모자(도두),
청동벌립장(귀덕)

(2) 불미공예(덕수)

9) 祭禮儀式 : 4종

칠머리당굿(건입동)	영감놀이(행원)
송당마을제(송당)	납읍마을제(납읍)

10) 民謠 : 7종

(1) 民謠 : 5首 -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해녀노래, 땃돌노래

(2) 방앗돌 굴리는 노래(덕수), 멸치 후리는 노래(동김녕)

2. 其他 民俗資源 現況

1) 三多·三無·三麗

三多란 제주의 風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서 石多, 風多, 女多를 가리킨다. 三無란 제주도민의 정직, 순박, 검소한 품성을 말해 주는 표현으로 거지, 도둑, 대문이 없음을 일컫는 것이다. 대문이 없는 대신에 집 입구에 긴나무를 가로질러 놓는다. 이것이 <정낭>이라는 것이다. 이 <정낭정신>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제주선민의 미풍양속이다. 三麗(또는 三寶)란 세가지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로서 인심, 자연,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제주민속권을 이룬다. 제주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의식주, 세시풍속 등이 독특하고 개성적이기 때문에 古語, 神話, 傳說, 民謠 등 구비전승이 豊富하다³⁴⁾

2) 民間信仰³⁵⁾

제주도의 전통마을은 해마다 정초에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酬祭)와 무속적인 마을제인 당굿을 제주도에 있는 252군데의 神堂에서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기적 세시풍속은 생산공동체이자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1) 儒敎式 마을祭

석전제를 기본틀로 하는 유교식 의례방식에 따라 남성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거행되는 형식의례로 다음 몇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포제(마을수호신을 위한 의례)

나) 別祭(포제와 별도로 지내는 염병이나 재난을 방지하는 의례)

다) 祈雨祭(가뭄의 해갈을 비는 의례)

라) 海神祭(그물코스:어업 특히 어망업 관장신을 위한 의례)

마) 帝釋祭(農神을 위한 의례)

바) 기타(무속의 본향당제)

등이 있어 마을공동체 信仰을 이루어 섬 특유의 風俗을 이루고 있다.

(2) 당 굿

女性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교식 마을제를 ‘마을굿’ 또는 ‘堂祭(당굿)’라 한

34) 濟州道, 濟州道誌 제2권, p.1000.

35) ① 濟州道, 濟州道誌 제2권, 199, pp.1108~1146

② 濟州市·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濟州市의 郷土民俗, 1992, pp.13~149를 참조함.

다. 당굿은 마을사람들(단골 신앙민)이 당을 맨 심방(매인 심방)과 함께 당의 祭日에 당(굿판)에게 벌이는 집단적인 마을 굿이다. 당굿을 하는 祭場을 <堂> 또는 <할망당>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그해의 농사와 어업의 豐饒를 기원하며 마을의 액운을 막고, 개인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굿이 벌어진다. 마을 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本郷堂神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서 치러지는데 歲時, 規模에 따라 당굿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집단적,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굿으로는 신과세제, 영등굿, 백중제, 시만국대제 등이 있다.

가) 新過歲祭

음력정월에 행해지는 마을의 新年祭이다. 제일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있으며 마을마다 다르다. 당굿은 보통 심방 4~5인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부락의 안녕, 생업의 풍요와 가내 평안과 생업번창을 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며 여느 당굿보다 참가자가 많다.

나) 영등굿

영등신은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2월 15일에 나가는 來訪神이다. 초하룻날 영등환영제를 하고 13일~15일 사이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해산물의 풍요와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漁村信仰이 주종을 이룬다. '요왕굿', '좁수굿'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다) 마불림제와 백중제

이러한 祭들은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조를 중심으로 한 雜穀의 성장을 기원하는 천후조절의 제라고 말할 수 있다. 백중제와 겹한다. 백중제는 우마번성을 기원하는 '테우리코스', '쉐멩질'이라하여 '산신놀이'를 하는 등 비중이 크다. 지역에 따라서 6월 17일~18일, 7월 13일~14일, 8월 추석 등에 행해진다.

라) 시만국대제(新萬國大祭)

10월의 萬穀大祭³⁶⁾로 추곡의 수확후에 새곡식을 마련하여 올리는 추수감사제이다. 주로 음력 9~10월 어느날 祭日을 정하여 행한다.

마) 不定期的 儀禮

- | | |
|------------------------|---------------|
| 0. 七日堂(일째당)과 八日堂(여드레당) | 0. 보름堂祭 |
| 0. 丑日堂과 午日堂 | 0. 三四月堂(사나흘당) |

바) 濟州市의 重要 當굿

제주시·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의 <濟州市의 鄉土民俗>을 중심³⁷⁾으로 당굿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시의 대부분의 堂에는 당굿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당에 찾아가서 한해의 소원을 빌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굿을 하는 당은 동회천동 「새미하루산당」의 <신과세제>와 <백중마불림제> 그리고 건입동의 「칠머리당」의 <영등손맞이>와 <영등송별제> 뿐이다.

중요 당굿에는 칠머리당굿, 새미하루당굿, 儒敎式 堂祭 등이 있다.

① 건입동 「칠머리당」 당굿

이곳에서 행하는 영등굿은 5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와 음력 2월 초하루날에 하는 <영등손맞이>와 음력 2월 14일에 하는 <영등송별제>가 있다. 안사인씨가 인간문화재 71호로 선정되어 당을 매어 오다가 사망하자 전수생 김윤수씨가 계승하고 있다.

② 동회천동 「새미하루산당」 당굿

이곳에서는 두번 당굿을 하는데 정월 열나흘날 <신과세제>와 7월 열나흘날 <백중마불림제>가 그것이다. 제주시의 자연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심방을 모셔다가 당굿을 크게 하는 곳이다. 당굿의 맨 마지막에 堂神을 놀이는 <산신놀이>를 한다.

36) 秦聖獻, 南國의 民俗-濟州島 歲時風俗-(敎學新書 7), 敎학사, 1980, p.337.

37) 濟州市·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濟州市의 鄉土民俗, 1992.

〈산신놀이〉가 중산간 마을의 당굿에 남아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놀이 굿이라면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며, 마을의 신앙민들이 심방과 함께 벌이는 당굿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굿놀이로서 그 가치를 높이 사고 보존 전승되어야 할 民俗藝術이다. 이에 대한 조사와 보존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③ 해안동 유교식 堂祭

해안동은 당굿을 유교식 당제로 바꾸어 동당(하르방당)과 서당(할망당)의 제사를 같은 날에 하고 있다. 堂祭日은 정월 초일레이다. 당굿은 3헌관과 집사 2인을 두어 정월에 웃당과 함께 치르고 7월에는 마을 포제를 한다.

3) 家神信仰 :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세시풍속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다.

(1) 告祀(유교식 제사)

가) 土神祭

나) 山神祭

다) 祭釋할망제

라) 白中祭

마) 船王祭

바) 불미제

(2) 佛供

(3) 巫俗儀禮

가) 산신제

나) 문전제

다) 조왕제

라) 칠성제

마) 요왕제

4) 民俗놀이

제주도 민속놀이는 대부분 ‘일노래’와 ‘굿놀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민속놀이로서 문헌에 기록된 것은 〈照里戲〉가 있다. 이것 제외하면 극적 전개의 연희는 대부분 巫俗儀禮로서 행해진다. 무속의례(굿)는 종교와 예능이 종합된 의례행사이다. 굿은 음악, 무용, 신화 등과 더불어 연극적 요소가 짙거나, 굿 전체가 극으

로 전개된다. 이런 곳들은 '놀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한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전승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급조되거나 문헌자료를 근거로 복원된 것, 마을의 傳說을 중심으로 再構成 한 것이고 제주의 특유의 노동요로 민속놀이를 꾸민 것이다.

제주시 지역에는 건입동, 용담동, 도두동, 오라동(정실) 등에 걸궁패가 최근까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고, 국악협회 걸궁팀이 있어 행사 때마다 각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민속놀이에 대해 살펴보면 걸궁, 입춘굿놀이, 세경놀이, 영감놀이, 영등굿놀이(악마희: 躍馬戲), 조리희(照里戲), 정소암화전(鼎沼岩花煎)놀이, 산신놀이, 연신맞이 굿놀이, 불싸움놀이, 연물놀이, 떼몰이놀이 등이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 漢學文化祭에 참가했던 민속놀이 가운데 축제와 관련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굿놀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칠머리당 영등굿 - 요왕맞이, 영감놀이, 떼몰이놀이
- ② 수협풍어제 - 뱃코스, 요왕맞이, 영감놀이
- ③ 동회천 동새맞당 당굿 - 산신놀이
- ④ 각 동리의 걸궁

그리고 <입춘굿놀이>는 원형대로 복원하여 官民合同의 민속놀 이로 발전시킬 만한 것이다.

오늘날 내려오는 민속놀이 가운데서 성인들의 놀이를 두고 信仰性을 띤 것을 빼고 순수한 오락적인 놀이는 그리 많지 못하다. 秦聖麒에 의해 정리된 것을 보면 62개의 놀이가 있다³⁸⁾.

38) 秦聖麒, 南國의 민속놀이, 1975, pp.9~13.

〈표 3-10〉 민속놀이

민속놀이 종류	내 용
겉 궁	30~50명으로 구성된 두레패 연희집단
立 春 굿 놀 이	풍년을 비는 관과 민의 합동제의이다. 사물패의 가장 행렬과 길놀이로 이루어진 겉궁 등 종합적인 구경거리를 연출하는 한마당의 큰잔치임.
세 경 놀 이	農神에 대한 의례
영 감 놀 이	신과 인간이 교섭하고 대화하는 의례
영 등 굿 놀 이	해안부락에서 어민, 해녀들의 채취물을 증식시켜 주는 의례
조 리 희	오락적인 면이 순수하게 강조된 민속놀이
정소암 화전놀이	성읍에서 관민이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놀이
산 신 놀 이	수렵의 풍요를 비는 놀이 굿
연신맛이 굿놀이	배를 짓고나서 안전과 풍요를 비는 굿
불 싸 움 놀 이	조천읍 와흘리와 대흘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本鄕堂神을 모셨던 당에서 유래된 굿놀이
연 물 놀 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무악기로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면서 펼치는 무속놀이
떼 물 이 놀 이	영등굿의 맨 마지막 순서인 '배망선' 祭次에서 펼쳐지는 競漕民俗

자료 :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1993, pp.918~966. 論者 再作成

그리고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했던 것³⁹⁾ 중에는 입춘굿놀이, 세경놀이, 영감놀이, 조리희, 톱질놀이, 정소암화전놀이, 산신놀이, 테우 만드는 놀이, 연신맛이

39) 제주도, 문화현황, 1992.

굿놀이, 불싸움놀이 등이 있다. 특히 방앗돌 굴리는 노래와 서우젓 소리는 대통령 상을 받아 開發性이 아주 높은 관광상품이다.

5) 民俗舞踊

문헌이나 민간생활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무용은 없고 제주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몇가지 무용적인 요소들을 골라내어 민속무용화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제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굿놀이를 과거의 의미를 살리면서 재구성한다면 훌륭한 민속무용이 될 것이다. 재구성한 비바리춤, 차사영맞이, 해녀놀이 등은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무용이다.

6) 民俗音樂

제주도의 민요는 1,600여수가 되는데 濟州島의 民俗音樂은 노동요, 의식요, 자장가, 통속민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중적 통속민요인 ‘오돌또기’, ‘너영나영’, ‘이야홍타령’과 특징적 통속민요인 ‘산천초목’, ‘봉지가’, ‘동풍가’, ‘관덕정앞’, ‘계화타령’, ‘용천검’, ‘증타령’, ‘길군악’, ‘사랑가’로 구분할 수 있다⁴⁰⁾. 주류를 이루는 노동요는 ‘맷돌노래’, ‘방아노래’, ‘해녀노래’, ‘밭때는 노래’, ‘아웨기 소리’ 등이다. 노동요가 많다는 것은 제주도민은 부지런하면서도 일을 즐겁게 해왔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거움을 노래할 줄 아는 여유와 낭만을 가지고 있었다.

7) 說話

제주도는 지리·역사·정치적으로 특수한 狀況을 지녀 왔기에 독특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說話에도 素朴하게 形象化 되었다. 설화는 神話·傳說·民譚으로 분류한다. 설화를 관광지마다 재현시키는 작업을 행하여 민속관광과 함께 제주적인 것

40) 趙泳培, 濟州道 民俗音樂, 제주: 신아문화사, 1991, pp.75~84.

을 보여 주어야 한다. 濟州木石苑의 '갑돌이와 갑순이의 생애'나 오백장군의 전설을 돌과 나무로 설화내용을 형상화시킨 작품은 설화나 전설을 잘 활용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예이다.

8) 民俗工藝

가) 목공예 : 남방애(느티나무로 제작)

나) 죽공예 : 삿갓, 애기구덕, 물구덕, 떡구덕, 차룻, 푸는체, 골체, 태체, 줌너구덕 등

다) 갓양태공예 : 망건장, 갓일양태, 갓일총모자, 청동벌립장

9) 衣食住

가) 衣生活 : 갈옷, 갓, 망 건, 빙거지, 가죽옷, 가죽감티, 가죽신, 우장(도롱이), 해너복(물소중이, 물적삼)

나) 食生活 : 생미역국, 조떡(오매기떡), 빙떡, 개역(미수가루), 자리회, 갈치국, 뭍국(모자반국), 성계국, 팽메밀국수, 들얼매(삼동, 시러미, 틀, 머루, 다래, 불래 등), 민속주(오매기술)

다) 住生活 : 草家(안거리, 밖거리, 이문거리) ;

10) 民具 : 애기구덕, 물허벅과 물구덕, 덩드렁막개, 맷돌, 절구통, 불화로, 도구리, 남박, 나막신, 남방아, 연자방아 등

11) 돌 文化

제주도는 돌을 떠나서는 文化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주의 돌은 自然의 克服, 生業의 手段, 왜적을 방어, 생활민구를 제작, 주거공간 확보, 祭壇과 堂을 만들기 위해서 宿命的으로 제주인과 삶을 같이했다. 그래서 풍속이 形成 된 것이다.

城<표 3-4>이나 환해장성<표 3-3>, 연대 및 봉수는 역사적인 여건이 큰 것이나

제주에서는 제주민과 생사를 같이한 유적·유물이기에 民俗의 측면에서 다루어야겠다. 또한 浦口나 원(바닷가 마을에서 돌로 돌을 쌓아 고기를 잡던 곳), 염전<표 3-2>도 民俗資源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의 마을은 바닷가의 물을 찾아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각 마을의 물에는 전해지는 얘기도, 이에 얽힌 사연도 많다. 바닷가 돌을 이용하여 만든 물통은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生活 民俗資源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돌하르방, 비석, 연자매(말방아), 동자북, 서자북, 절부암, 맏 돌, 각 제단, 신당, 돌담, 비석담⁴¹⁾ 등 제주민의 생활전반에 돌을 떠나서는 살아 나갈 수가 없다.

3.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現況

제주의 民俗資源은 도처에 깔려 있는 돌한덩이나 풀한포기에도 제주인의 꿈과 애환이 깊이 스며 있다. 단지 유형재로서 表出이 안되고 관광홍보가 안돼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민속 문화행사와 민속공예 현황을 중심으로 그 現況을 살펴본다.

1) 民俗文化行事

민속문화행사로는 만설제, 영등굿, 삼성혈 춘기대제, 유채꽃큰잔치, 철쭉제, 삼성혈 추기대제, 한라문화제, 감귤축제, 억새꽃큰잔치 등이 있고 근래에는 벚꽃잔치도 행하여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4년에는 성산리 마을회에서 신정초하루에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제와 음력 7월7일의 견우직녀제를, 성읍 민속마을보존회에서 성읍민속축제 등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 제주시 탐동해변가에서 민속음악과 함께 해변음악제가 개최되고 있다. 제주경마장에서는 삼다축제가 기획됐으나 운영의 미숙, 홍보의 결여, 계획의 불합리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西歸浦市에서는 올해부터 천지연폭포앞 광장에서 매주 화·토일 오후에 常設

41) 한라일보, <기획연재물>: 제주의 돌문화, 1992~1994.

民俗公演을 하고 있다. 서귀포농협 주부대학의 두레무용단은 해녀춤, 물허벅춤 등 민속무용을 선보이고 있고, 대천동 부녀회 결궁팀은 명쾌한 사물놀이와 4명의 민요경창인들이 ‘오돌또기’ 등 제주의 대표적인 민요들을 공연하고 있다⁴²⁾. 제주시에서는 민속공연이 밤무대를 중심으로 빈약한 공연을 하고 있으나 상설적인 공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民俗에 관련된 정기적인 공연은 없다.

〈표 3-11〉 제주의 민속문화행사현황

행 사 명	개 최 일	장 소	주 관 처	비 고
만 설 제	1월중	한라산	제주산악회	산악인 행사로 유도
영 등 굴	2.14~15	제주시 건입동	예총제주도지부	칠머리당굴(무형문 화재 제71호)
춘 기 대 제	4.10	삼성혈	삼성재단	三姓祠祭
유채꽃큰잔치	5월중	도일원	제주관광협회· KBS제주방송총국	
철 족 제	5월중	한라산	제주산악연맹	산악인 행사로 유도
추기대제	10.10	삼성혈	삼성재단	三姓祠祭
한라문화제	10월중	도일원	제주도· 예총제주도지부	10월 첫째주 토요일 부터 7일간으로 고정
감귤축제	10월말	종 합 경기장	제주감귤협동조합	
乾始祭	12.10.	삼성혈	삼성재단	三姓穴祭
일출제	새해 초하루	성산포 일출봉	성산리마을회	‘94년 시작

42) 제민일보 1994. 8.25, 9. 13 字 : 한라일보 1994. 8. 25 字 참조: 論者 參觀

행 사 명	개 최 일	장 소	주 관 처	비 고
벚꽃잔치	5월중	제주시 전농로	제주도관광협회	
견우직녀제	음력 7.7~8	성산포	성산리마을회	'94년 시작
성읍민속축제	9.17~18	성 읍 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 보존회	'94년 시작
제주역새꽃 큰 잔 치	10월중	중산간 일 대	제주도관광협회	'93년 시작 서부산업 도로 옆 이시돌목장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국민속행사요람, 1990.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안내, 1994. 8. 31.

제민일보, 제주신문, 한라일보 참고 및 직접 참여. 論者 作成

2) 民俗工藝

본도는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民俗土產品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土產品이란 특정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나 재료로 만든 공예품이나 민속공예품과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農水產物을 말한다⁴³⁾. 전통적 의미, 토산품의 보수성(전래 기술, 제한된 재료사용)은 오늘날 현대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토산품의 범주에 가공식품, 향토 요리, 건어물, 생활용품, 과일 주류, 과자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⁴⁴⁾. 傳統民藝品은 민예품과 엄격한 구분이 어렵지만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工藝品을 말하며, 民藝品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선조들의 창조정신에 의한 소산물로 향토의 독특한 재료를 발견하여 工人들의 反復, 숙달된 수작업過程으로 같은 形態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산하는 民衆 또는 大衆의 日常用

43) 金範國·金昌中·金炯吉, “농외소득증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2집, 1987, p.262.

44) 金忠鎭, 관광사업경영론, 남영문화사, 1984, pp.124~125.

具를 뜻한다⁴⁵⁾.

제주에서 직접 만든 대표적인 토산품은 玄武岩을 이용한 석제품, 패각제품, 산호제품, 칩재료 등을 이용한 제품 등으로 약 30여종류가 된다. 제주지역 관광기념품 제조업체 수는 총 85개이다⁴⁶⁾.

관광토산품 취급 도매업소는 20개소이며 소매업소가 210개소인데 그중 66.7%인 140개소가 제주시에 있으며,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은 총 11개소 중 10개소는 제주시에, 1개소는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토산품재료는 대부분 도내에서 자체 공급되어지고 있으나 자금과 가내수공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民俗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징성의 부족과 디자인의 다양성 결여 등으로 생산에 활발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觀光土産品을 농협중앙회의 대상품목에 의하여 분류해 보면 민예공예품 5개 품목 46개종류, 공예품 5개 품목 20개 종류, 식료품 14개 종류, 양털제품 5개 종류이다.

연 3천5백억원의 잠재시장으로 추정되는 토산품 시장에 정작 제주 토산 상품은 없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20%이하에 머물고 있다.⁴⁷⁾

이중 돌하르방이 대표적인 郷土特産品으로 관광객이 인기를 끌고 있고, 띠제품, 멸구슬제품, 돌시계는 '84년 이후 개발되어 판매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감귤, 제주토종귤, 옥돔 등 식료품에 대한 관광객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토산품을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郷土性이 없고, 가격이 비싸고 多樣性과 實用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토산품은 공예품 중에는 돌하르방, 목기류, 산호제품이 주로 매매되고 있다.

45) 정복상, "민예품 개발 및 육성방안", 계명대 <계명연구논총> 제2집, 1984, p. 401.

46) 韓國銀行 濟州支店,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p. 89.

47) 濟民日報, 1994. 7. 27 字.

〈표3-12〉 濟州地域 觀光紀念品 現況

구 분	품 목	종 류
민 속 공예품	석 제 품 죽 제 품	돌하르방, 뗏돌, (연자)방아, 재떨이, 절구, 돌거북, 해녀. 돌시계 대바구니, 아기구덕, 차룻, 삿갓, 핸드백
민 속 공예품	초 경 제 품 목 각 제 품 말 총 제 품	띠모자, 띠부채, 띠편지꽃이, 띠핸드백, 뿔구슬베개, 정동모자 뿔구슬지갑, 뿔구슬필통, 넝쿨삼태기, 넝줄바구니, 정동바구니 해녀상, 물허벅, 하르방, 궤뒤주, 방망이, 나막신, 등잔대, 목걸 이, 남박, 솔박, 촛대, 과반, 빗, 필통 탕건, 바둑무늬모자, 양태식모자, 핸드백
공예품	산 호 제 품 패 각 제 품 호마이카제품 박 제 품 기 타	목걸이, 재떨이, 브로치, 파이프, 반지, 열쇠고리 목걸이, 재떨이, 브로치, 반지, 열쇠고리, 사진틀 삼각선인장, 하르방, 담배함, 해녀 핑, 어류, 새우 핑털핸드백
식료품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임 산 물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소라, 전복, 옥돔, 자리, 감태, 톳 벌꿀, 로얄제리, 화분립 표고버섯
직물류	양 털 제 품	스웨터, 장갑, 머플러, 모자, 담요

자료 : 金範國·高載乾·金炯吉, “제주도 관광토산품 개발과 농어가 소득 증대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13호, 1989, pp. 44~45.

특히 제주의 특산물은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대
부분이 원상품 상태로만 판매되는 실정이다. 관광기념품 시장이 진정한 제주토산품
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주 특유의 유명상품을 브랜드화 하는 작업에서부터 시
작, 신상품의 개발, 상학협동체제의 구축, 관광상품개발 위원회의 구성 등이 추가
되어야 겠다.

3) 指定文化財에 따른 觀光商品化 現況

吳南三⁴⁸⁾에 의하면 제주도전역 217개소에 분포하고 있는 83종의 지정문화재를

교육성·향토성(희귀성)·매혹성·접근성·발전성 등의 5개 개념으로 압축하여 평가했다. 현재 자원적 가치가 있는 적극적 자원, 전망이 있는 예비자원으로 소극적 자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보존자원으로 규정하였다.

역사유적에서 積極的 資源을 보면 순위 1은 觀德亭과 三姓穴이고⁴⁹⁾, 3위의 日觀軒⁵⁰⁾, 4위는 支石墓와 抗蒙 遺蹟地이다. 消極的 資源은 6위의 濟州城址와 정의향 교이며 8위의 濟州鄕校·大靜鄕校·大靜城址와 11위의 文敬公高兆基墓·別防鎭·煙臺 등이며 14위의 鄕舍堂과 新村客舍⁵¹⁾가 이에 속한다,

민속자료에서 적극적 자원은 1위의 城邑 民俗마을⁵²⁾과 2위의 국가지정초가(성읍)가 있다. 3위의 칠머리당굿, 영감놀이와 5위의 복신미륵·탕건장·갓일총모자·갓일양태·정동벌립장·오돌또기·해녀노래 등과 12위의 五賢壇·법화사지·불미공예·멀치후리는 노래와 16위의 佛塔寺 五層石塔·산천초목·방앗돌 굴리는 노래, 19위의 연자매·송당마을제·납읍마을제·봉지가·맷돌노래 등이 소극적 자원에 속한다.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유적 중에서 관덕정과 삼성혈은 제주도의 옛모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원이다. 일관현·지석묘·항몽유적지 등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모습 그 자체로 관광자원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으나 이제는 점차 매력을 잃고 있다.

돌하르방·정동벌립장·탕건장·갓양태·갓모자·오층석탑·복신미륵 등은 관광상품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돌하르방과 정동벌립장은 관광자원화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정동벌립장의 문제점은 상품의 질이 투박하고 판매체제가 농가에 의존되어 있어 商品의 弘報와 販賣市場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48) 吳南三,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론 고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6호, 1987, pp. 203~237., “제주도 고유문화의 보존 및 선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 3집, 1987, pp. 325~354.

49) 濟州市, 제주시 30년사, 1985, pp. 985~986.

50) 濟州道, 제주의 문화재, 1982, p. 92.

51) 濟州道, 전계서, pp. 118~184.

52) 濟州道, 전계서, p. 198.

4. 濟州地域 民俗觀光의 育成

제주지역의 民俗文化觀光의 育成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⁵³⁾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향토문화보존회를 통한 민속보존과 마을별 특성 민속예술 지정 육성

마을별로 향토문화보존회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여, 민요, 민속놀이, 민속춤 등을 발굴·보존·전승하도록 한다.

또한 제주시 용담동의 걸궁, 구좌읍 김녕리의 멸치 후리는 노래, 안덕면 덕수리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조천면 와흘리의 산신놀이 등, 각 마을에 민속예술 중 한 종목 이상을 선정, 마을별 향토문화보존회로 하여금 증점 육성하도록 지정한다.

2) 마을 축제일의 민속예술 공연

마을의 축제는 세시풍속이며 정기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고 축제일은 신앙과 농사 관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각 마을의 포제, 당굿 등을 축제화하여 그 마을 실정에 맞는 조출하고 실속 있는 특성민속예술이 공연되도록 한다. 마을의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0. 조천읍 와흘리 : 백중마불림제(제일 : 7월 14일)

0. 안덕면 덕수리 : 민속축제(제일 미지정 : 3월경), 지붕잇기, 방앗돌 굴리기,
불미질

0. 성산읍 온평리 : 마을제(제일 : 정월 초정일), 포제→당굿

0. 구좌읍 행원리 : 남당중놀이(제일 : 10월 15일), 당굿→남당중놀이→민요

0. 구좌읍 하도리 : 영등굿(제일 2월 12일)

53) 濟州道,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 pp. 619~624.

3) 한라문화제의 범도민 축제화

한라문화제는 행정기관이 경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관민합동의 도민 축제가 되도록 하고 耽羅國祭인 동시에 한라산신제, 산신불공, 당굿 등의 초감제(서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마을이 민속예술이 총집결된 종합축제인 대동놀이 한마당이 되도록 하고 교육현장에서 갖고 닦은 청소년 민속예술의 경연장이어야 한다.立春굿놀이, 화반(花盤), 떼몰이놀이 등과 같이 전통이 깊은 민속놀이는 전승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고증을 통해 재현하며, 점차 보강하여 전승의 맥을 이어 나가야 한다.

4) 야외놀이 마당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연

민속예술 공연단체를 육성하여 민속예술전수관과 지역단위 전수회관에서 상시 공연 및 야외놀이 마당을 통해 정기적 공연을 한다. 자연의 원시적인 무대는 한국인의 무대감각에 잘 어울릴 수 있다. 민속의 자연적인 맛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넓은 들, 바닷가, 계곡 등을 이용한 무대예술을 연출해야 한다.

5) 각급 학교·기관행사의 민속공연

학교의 축제나 기관의 행사에 민속공연을 하여 비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행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한다.

6) 민속관광 정보지의 작성 보급

각 마을축제일을 월별로 고려하여 조정, 공연정보를 알리는 민속관광 정보지를 제작 보급하여 널리 홍보한다.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작을 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어떤 행사가 행해지는 가를 널리 알려야 한다.

7) 민속공방 설립

관광지, 민속촌에 민속공방, 도요지 등을 설치 운영한다.

- 0. 제주시 용강동 : 목공예단지(나막신, 도고리 등)
- 0. 제주시 도련동 : 죽공예단지(구덕, 차통 등)
- 0. 안덕면 덕수리 : 불미공방
- 0. 제주시 도두동, 삼양동 : 갓공예단지(갓, 망건, 탕건, 양태 등)
- 0. 전도 각지 짚공예단지(명석, 짚신 등)
- 0. 전도각지 석공예단지
- 0. 전도 각지 연직공예단지(갈옷 등)
- 0. 대정읍, 신평, 구억 등 도요지(항아리 등)

8) 민속공연단체의 육성

현존 제주도 민속예술단과 기존단체를 육성함과 동시에 시·군별 민속예술단을 점차 창립한다. 마을별로 소규모의 민속공연 동아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참여하는 자격은 청소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폭을 넓혀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제주민속의 전승과 제주교육의 國際化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9) 상설 공연장 마련과 연중 민속공연

민속촌·관광단지,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상설 민속예술공연장을 둔다.

10) '설문대할망' 과 같은 전설의 활용

제주지역의 무궁무진한 口碑文學인 설화나 민요 등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은 관광객들 누구나 찾아가고 싶어한다. 실제 그곳은 불거리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로렐라이라는 전설은 유인매력을 주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곳곳에 유인매력을 주는 전설을 활용하면 새로운 민속관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표 3-13〉 각 마을의 民俗公演 現況

음력 월일	마을이름 (시군동리)		축제의 명칭	축제에 거행되는 주요민속		
				마을제(행사)	세시풍속	민속놀이
1.14 입춘 丁亥 13 정해 15 13 14 정해 정해 18 정해	제 주 시	회천동	새미하로산 당굿	신과세제	연날리기	산신놀이
		용담동	입춘굿놀이	입춘굿	입춘점	입춘굿놀이
	서 귀 포	영평동	마을포제	마을포제	당에 가기	화반놀이
		보목동	마을당굿	신과세제	액막이	결궁
	북 제 주	호근동	마을포제	마을포제	올래쿠사	원달깃소리
		중문동	도람지괘당굿	신과세제	돌전(월점)	요왕맞이
	북 제 주	송당리	송당 당굿	신과세제	모밀국수	니나난니나
		와흘리	노닐 당굿	신과세제	액막이	산신놀이
	남 제 주	납읍리	마을 포제	마을포제	토신제	결궁
		성읍리	마을포제	마을포제	좁쌀술담그기	화전놀이
2월1 - 15	제 주 시	신천리	마을 당굿	신과세제	도채비방쉬	전상놀이
		온평리	마을포제, 포제굿	마을제	제물분육	씨 름
	서 귀 포	건입동	영등손맞이(1일)및 영등송별제(14일)	칠머리당굿	요왕쿠사 요왕제(불교)	떼몰이 놀이 요왕맞이 영감놀이
		보목동	영등손맞이(12일)	영등굿	요왕쿠사 요왕제(불교)	테우만드는 놀이 그 래 7 는 소리
	북 제 주	하효동	영등손맞이(14일)			
		동흥동	영등송별제(13일)	영등굿	요왕쿠사 요왕제(불교)	서천꽃놀이 요왕맞이 배방선
	남 제 주	하도리	영등손맞이(12일)	영등굿	요왕쿠사 액막이	요왕맞이 배방선
		북촌리	영등손맞이(13일)	영등굿		
3월	*기관, 단체 주관 행사	연평리	영등손맞이(15일)	영등굿	요왕쿠사	요왕맞이
		신양리 수산리	영등손맞이(15일) 영등손맞이(13일)	영등굿 영등굿	액막이	배방선
3월	*기관, 단체 주관 행사	*기관, 단체 주관 행사		유채꽃 대잔치 (방송국, 도청)	기념행사	물탈락 노래자랑 오돌또기 결궁 줄다리기 화전놀이
		*기관, 단체 주관 행사		풍어제(수협)	좁수굿 유교식고사	떼몰이놀이 영감놀이 해너노래
3월	*기관, 단체 주관 행사	*기관, 단체 주관 행사		묘제(각 종친회)	묘제(시제)	문중회의
		*기관, 단체 주관 행사		철쭉제(산악회)	한라산신제	고사리꺾기 전통혼례 산신놀이 사또놀이

음력 월일	마을이름 (시군동리)		축제의 명칭	축제에 거행되는 주요 민속		
				마을제(행사)	세시 풍속	민속놀이
3월	북	동김녕리	좁수굿(해너굿)	좁수굿	선왕극사 요왕극사	동김녕 서우젯소리, 기타 산신놀이
	주	화산리	화산당굿	불도당굿	고사리격기	
	전도	각 마을	발 밟는 고사(제석 할망고사)	발볼리는 고사	발 밟기	발볼리는소리 검질매는소리
4월	*기관, 단체 주관 행사		삼성혈제(삼성재단) 석전제(제주, 대정, 정의 향교)	耽羅國祭	각종 행사 및 민속놀이 혼인지(성지) 유람	
	*기관, 단체 주관 행사			유교식 의례	각종 행사 및 민속놀이	
	제 주 시	서 귀 포	전도 민속놀이 한마 당 큰잔치		*전도 민속놀이 한마당에 출품 한 민속예술은 지방문화재로 지정, 한라문화재에 시범 공연 하며, 청소년 축제에서도 우수 자를 선발 장려한다. 특히 청 소년인 경우 민요, 민속 무용 에 관심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1. 시·군대항 줄다리기			
			2. 민속예술(지방문 화재지정)시범공연 및 소년예술 축제			
5월	남군 안덕면 덕수리		덕수리 솔불미마당 재현(민속공방설치, 관광·민속공예품 제작 판매)	단오제	널뛰기 그네뛰기 뚝들들기	방앗돌굴리는노 래, 집줄농는노래 , 불미노래 등 공 연
	남군 표선면 성읍리		성읍리 민속공방, 민 속 음식시장 공개	단오제	말타기 씨름	민요공연 정소암 화전놀 이, 걸궁
6월 8 7 7	남	신천리	현씨일월(여드렛당)	당굿	닭잡아먹기 매밀파종	갈치낚는노래 해너노래
	주	토산리	당굿	당굿		발밟는 노래
		신흥리	이레한집 당굿	당굿		흙질 노래
		의귀리	이레한집 당굿	당굿		산신놀이
	북	함덕리	해양축제(해수욕장 개장)	해신제	모래뜸 갈옷만들기 초석짜기	때몰이놀이 걸궁, 씨름 영감놀이 요왕맞이
7월	제	회천동	백중마불림제(14일)	당굿(마을굿)	백중물맞이	산신놀이
	주	삼양동	설개본향백중제(14)	당굿(비님)	테우리극사	봉지가, 탕건 노래
	시	오라동	남세당백중제(13일)	당굿(비님)	백중와살	
	서	서귀동	마불림제(13일)	당굿(비님)	테우리극사	맷돌노래
	귀	강정동			백중물천	논다루는노래

음력 월일	마을이름 (시군동리)	축제의 명칭	축제에 거행되는 주요민속		
			마을제(행사)	세시풍속	민속놀이
	남군성읍리	백중제(14일)	당굿	태우리쿠사	백중놀이
	북 제 주	행원리 백중제(14,15일) 김녕리 마불림제(13,14일) 한동리 마불림제(13일)	당굿 당굿 당굿	태우리쿠사 백중물친 백중물맞이	남당중놀이 멸치후리는노 래, 영감놀이
	서 귀 포	상하에동 마불림제(15일) 색달동 마불림제(15일) 중문동 도람지괘당마불림제 강정동 마불림제(15일)	당굿 당굿 당굿 당굿	모듬별초 출비기 달구경	요왕맞이 논다루는노래 해너뻗노래 전통초가짓기
8월	애월고내리	장군당 추석제(15일)	당굿	활쏘기	사데소리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대회	체전	조리회(줄다 리기) 씨름 지개발걸기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결궁
9월	*기관, 단체 주도행사	한라산신제(한라문화제 초감제)	산신굿(무속) 산신불공(불) 산신제(유교)	민속장터 민속공방 민속공예 문학백일장 연극제 무용제 사진전 건축, 미술전 국악제 한시백일장등	결 궁 길놀이 산신놀이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민속놀이 민요 칠머리당굿 민속경기
		한라문화제	기념행사		
10월	*기관, 단체 주도행사	삼성혈제(삼성재단) (10일)	유교식 의례	각종 기념 행사 및 혼인지 (성지)순례	
	서귀 서흥동 구좌 송당리 구좌 한동리	시만폭대제(말일) 시만폭대제(13일) 시만폭대제(13일)	당굿 당굿 당굿	지붕잇기 머쉬귀패(牛 馬耳標)	달구질소리 발볼리는소리 결 궁
11월	성산 수산리 남원 수망리 서귀신, 하효동 서귀 동홍동	시만폭대제(14일) 시만폭대제(7일) 시만폭대제(14일) 분향생신제(14일)	당굿 당굿 당굿 당굿	동지팔죽	사데소리 산신놀이 그레그는소리 출베는 소리
12월	*기관, 단체 주도행사	한라산 만설제(산악회)	한라산신제	산신쿠사 망년과제	산신놀이
		삼성혈제(삼성재단)	유교식 의례	각종 기념행사	

자료 :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 pp.622~624

第 3 節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問題點

1. 觀光商品 企劃의 問題點

제주도의 民俗은 獨특하다. 오랜 세월을 반복하여 그 固有性을 保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 어느 곳을 가나 다른 地方에서 보지 못했던 무한한 민속 양상을 찾아 볼 수 있어 濟州만이 지닌 훌륭한 보배가 된다. 平和的이고 근실성과 인내성이 강하며 자주성과 진취성이 있고 淳朴性이 풍부한 濟州道民性은⁵⁴⁾ 觀光商品 企劃을 하는데도 조심스런 시도를 하게 된다.

제주도의 민속은 생활 전반에 뿌리내린 風俗이다. 그래서 民俗이 觀光資源으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觀光資源으로서 開發이 구체적 주제로 상정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企劃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기획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요구한다. 觀光기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觀光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타당성을 겸비한 미래에 대한 기준과 개발을 목표로 인간이 수행하는 過程이다⁵⁵⁾

文化的資源인 민속은 예술성, 종교성, 학문성, 역사성 등의 側面에서 觀光 價値가 평가된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이 문화적 특성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언어, 음악, 무용, 수공예, 건축, 축제, 관습 등이 傳統的 文化를 재생시키는 노력을 시도했다⁵⁶⁾. 본 地域은 문화적 觀光資源인 民俗에 대한 ① 사적지, ② 公演藝術, ③ 특별 민속행사, ④ 傳統文化 樣式, ⑤ 博物館 등 5개 부분으로 商品商品 企劃

54) 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美風民俗, 1976. pp23~28.

55) 李長春, 觀光計劃·開發論, 대왕사, 1991, p. 84.

56) 金在珉, 觀光계획 개발론, 대왕사, 1993, p. 161.

의 問題點을 導出하고자 한다.

〈표 3-14〉 觀光資源開發 目標와 〈표 3-15〉 觀光開發 과정의 제단계는 觀光 商品化 企劃을 하는 과정이다.

2. 觀光商品化 方法의 問題點

한 민족의 문화는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념,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文化는 動的이며 살아 있는 문화는 언제나 變化過程에 있다⁵⁷⁾.

관광상품화 문제점으로는 관광개발상의 문제, 관광수용태세의 미흡, 관광코스 의 단순성과 환대정신의 미흡 등을 들 수가 있다

1) 觀光開發上의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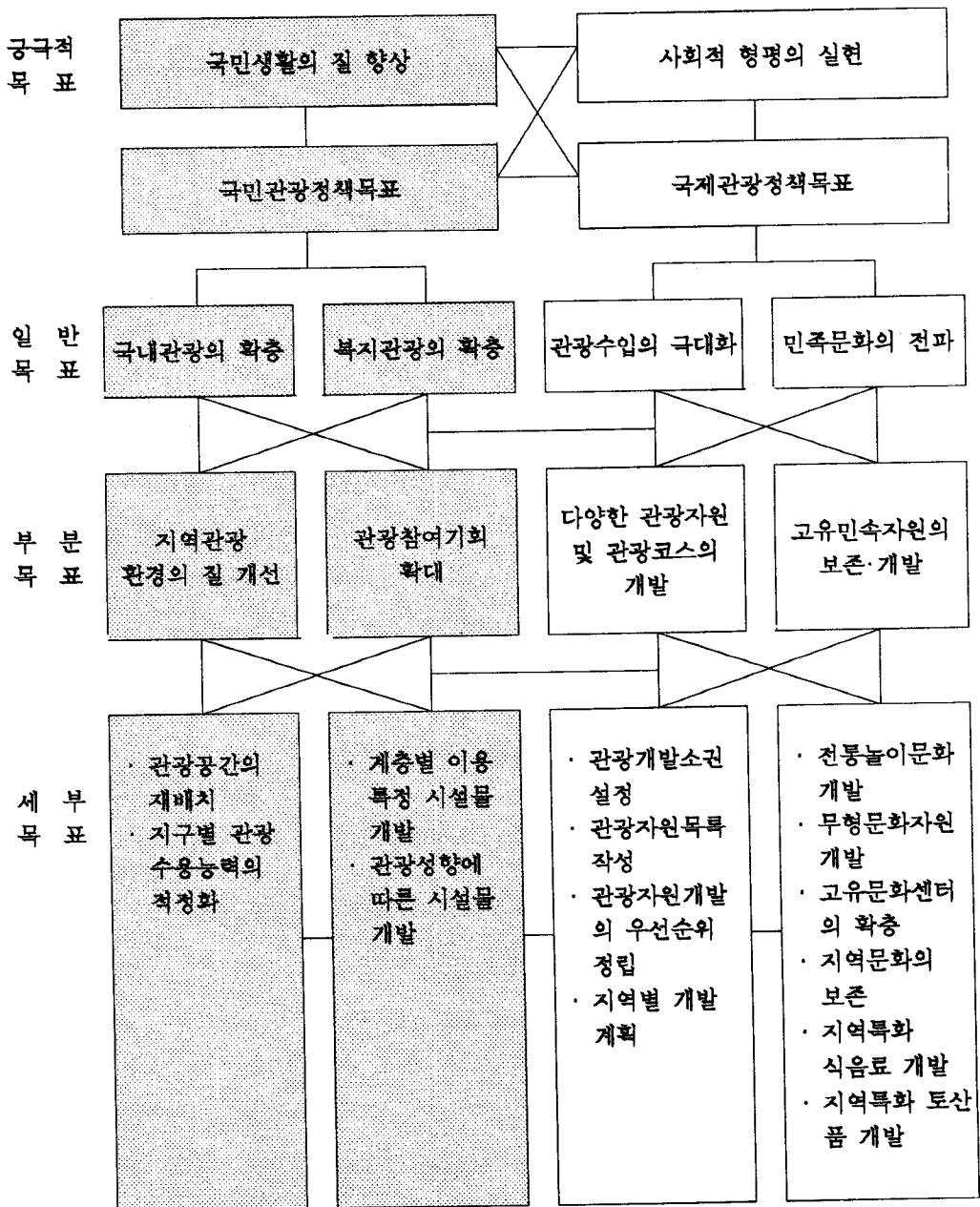
제주지역 觀光開發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 관광객들은 제주도 지역 관광 개발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⁵⁸⁾.

그러나 제주지역은 관광객이 단기 체재를 선호하고 저소비 패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노동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증대, 생활 가치관의 변화 등에 힘입어 '餘暇를 얻기 위한 勞動'의 사고가 발전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형'에서 '생활향상형'으로 다양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57) Robert Christie Mill(원저)·손해식의 2인(번역), Tourism·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93,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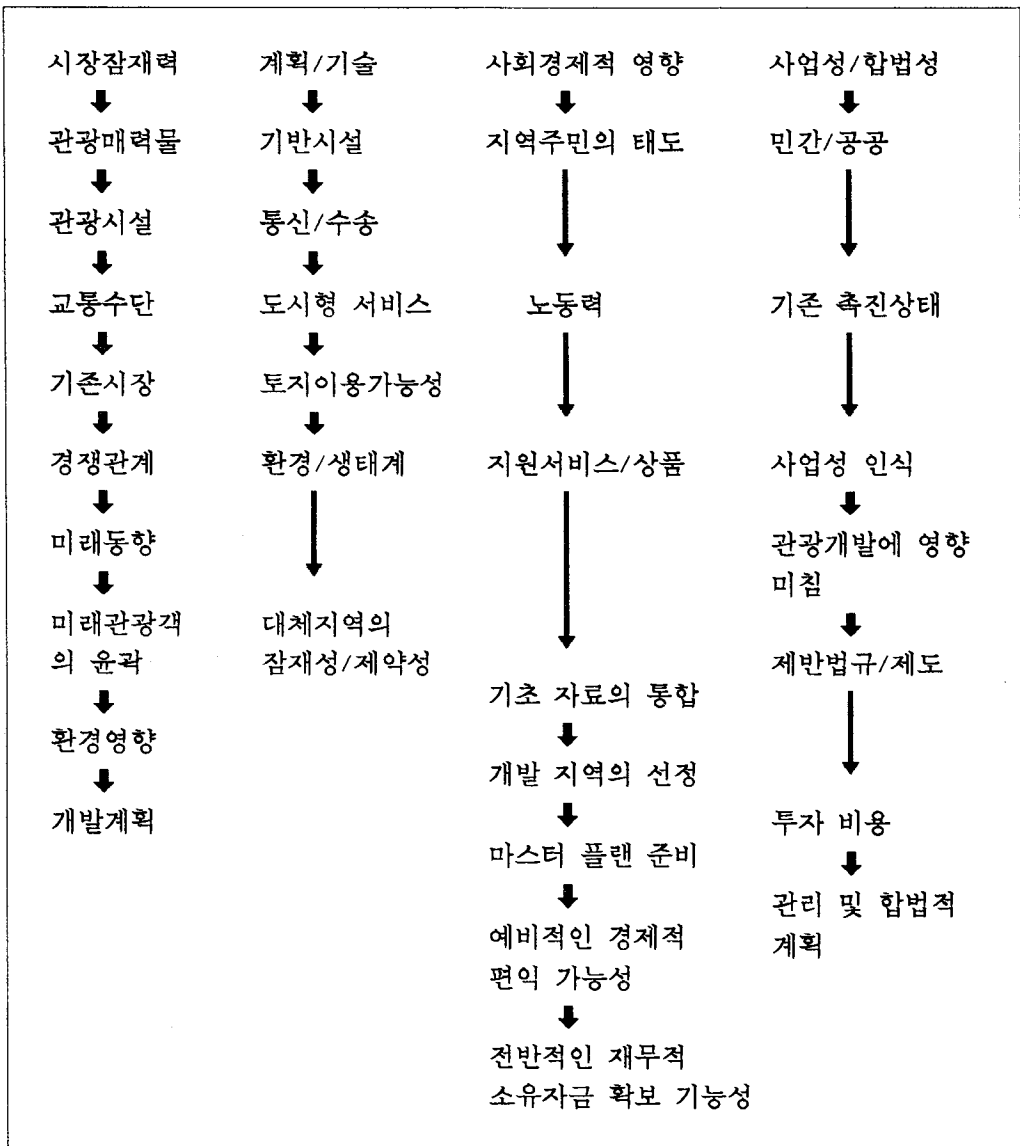
58) 高承益, "제주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실증적 고찰," 경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3

〈표 3-14〉 觀光資源開發 目標



자료 : 李長春, 관광과 통일, 1991, p.117

〈표 3-15〉 觀光開發 過程의 諸段階



자료 : Adapted from A Proposal to Prepare Feasibility Study of Tourism Development in Nicaragua, Laventhol & Horwath, Leo A, Daly Company, and Osorio Y. Teran, 1975.
 손해식·정익준·이방식(편역), 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93, p.211에서 재인용.

본 지역은 觀光者로 하여금 체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원 개발이 저조한 상태이다.

2) 觀光受容態勢의 未治

觀光地 開發이 중문관광단지 등 특정지역에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인문 사회적 자원의 觀光商品化가 시급하다. 또한 내도 관광객 수에 비하여 시설확충이 부진하다.

관광객들은 식당 시설, 피서지 편의 시설, 관광안내 시설, 숙박시설, 쇼핑시설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 지역은 전원 관광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원형 숙박시설(Informal Types)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시형 숙박시설(Formal Types)만이 있다⁵⁹⁾.

3) 관광코스의 單純性과 歡待精神의 未治

관광객들은 보다 많은 흥미로움과 볼거리를 찾고 있지만 숙박지 분포가 제주시와 서귀포에 국한되고 있어 관광코스는 제주시와 서귀포 두지역을 연계해야 하므로 코스의 단조로움이 문제가 생긴다.

최근의 수요의 급증과 인재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지에서의 접대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저하되어서, 行樂客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태에 달해 있다⁶⁰⁾. 제주지역은 觀光 先進地域으로 주민 모두가 안내원이 되어야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무뚝뚝하고 親和力이 없는 어려움이 제기된다. 관광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에도 개선할 여지가 많고 특히 식당의 서비스 부족 및 저질의 음식으로 관광의욕을 喪失하게 한다.

59) H. Robinson, A. Geography of Tourism, London: Macdonald and Evans, 1746, p. 48.

60) 鈴木忠義 : 관광교재편찬회 역, 현대관광론, 1991, p. 167.

3. 觀光商品 節次의 問題點

제2장 제1절에서도 언급했다시피 觀光商品 節次에 있어서는 관광의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그 절차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간에 야기되는 갈등은 커다란 문제를 안겨다 준다. 民俗資源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의 지대한 문제를 안겨다 준다.

조상의 남긴 값진 유산들이 비록 전시용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광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적영역까지 침투해 올 때 주민들의 사회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자기 비하의 모멸감으로 극도의 사회적 고립과 대립 양상을 갖는다.

제주도 중문단지에서나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이나 대규모 호텔 건설 지역 주민들의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住民들이 관광객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옛시대의 생활이 현대와 共存하여 殘存해 있는 地域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제주지역인 경우 觀光地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돌하르방”은 마을의 守護神으로 신당의 대상이 되어 와 제주의 象徵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열쇠고리나 장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호신의 모습이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대상의 商品化한 대표적인 예이다.

文化는 動的이며 언제나 변화한다. 文化의 商品化 概念은 관광개발과 발전으로 인한 일련의 파행적인 문화파괴 현상을 의미한다. 제주민속자원의 상품화로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民俗의 상품화의 과정은 판매라는 경제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基層文化를 퇴화시키고 과거의 뿌리가 와해되면서 제주문화는 이제 固有性을 하나 둘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전승연희와 전승기능들은 정부의 觀光資源化 方案에 따라,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民俗은 자생적으로 생겨 창조,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주민들의 감정을 파악하여 商品化 節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4. 觀光商品 販賣의 問題點

관광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觀光弘報이다. 아무리 民俗資源이 풍부하고 관광시설이 극대화되었다 해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홍보를 행하지 않고는 판매와는 거리가 요원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판매의 근원이 되고 활력소를 안겨다 줄 廣告와 弘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관광홍보는 침체되어 가는 제주관광을 活性化 시키는데 전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최근 들어 제주의 관광산업은 산업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국민들의 해외여행추세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런데다가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구조조성과 合理化가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觀光商品 판매의 기술과 이에 대한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

훌륭한 商品計劃이 수립되고 만족할 만한 추세가 되었다고 해도 그 商品이 반드시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제주지역의 민속자원이 독특하고 異國的이라 하더라도 홍보전략이나 홍보활동의 미비와 미숙으로 觀光 活性化와 여건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觀光需要의 계절적 불완전성으로 인한 盛需期와 非需期의 平衡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반관광시설을 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상품들을 제대로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廣告(Advertising)와 弘報(Public Relations)와 人的販賣(Personal Selling)와 販賣 促進 戰略⁶¹⁾은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장소에서 적

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화 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觀光需要의 불안정성은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예를 들면 단체 관광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交通業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紀念品 販賣業의 경우는 겨울철 매출액의 비중은 16~18%에 불과하다⁶²⁾ .

그리고 觀光地를 알리기 위해서는 觀光弘報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홍보는 관광객의 관광지 여행 일정에 魅惑的이고 郷土性이 어린 민속과 주요지점을 빠뜨리기 쉬운 習性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체제기간과 여행 일정에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行政當局의 홍보대책을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계획은 미미하다.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제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서나 觀光弘報紙를 볼 수가 있으나 정작 필요할 때에는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5. 行政·制度·法規의 問題點

우리 사회의 국제화, 개방화에 맞춰 國民의 餘暇活動 擴大에 대처하고 民俗資源을 문화관광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行政的인 밑받침과 行政·制度·法規 상의 補完이 필요하다. 올바른 관광산업이 育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民俗觀光 推進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

觀光基本法 제1조는 국제 친선의 증진, 국민 경제의 향상, 건전 국민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자원 및 관광 시설 개발을 특정 계층과 획일적인 고급시설 및 특정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치중하고 있고, 건전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소수의 계층이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經濟活動의 일부로 轉落시키고 있다.

61) 李仙熙, 관광마케팅개론, 1993, pp.388~408.

62)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p.135.

觀光施設 開發을 위한 정부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대상이 사치한 편의 시설 및 기반 시설에 국한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 영세업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活性化 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자연 관광지에 개발의 대상을 편중시키고 있어 문화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制度的 기틀이 미미하다.

觀光 行政機構에 있어서는 총괄적이고 일괄된 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관광계획은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자연 관광지 위주로 特定施設에 편중, 획일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行政·制度·法規의 불합리와 전문인력의 부족, 관광자원화 방안의 미흡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1) 民俗資源에 관한 法規의 問題點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제화·개발화에 맞춰 民俗을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관광 기본법 제1조는 국제친선증진·국민경제의 향상·건전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施設 및 事業種類 및 開發對象을 대규모의 高級 便宜 施設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觀光政策의 목적이 사업내용과 일치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特定地域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치중하고 있어 관광정책 방향이 소수계층의 사치와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

또한 觀光施設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地方의 零細 業體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그리고 개발의 대상을 자연자원에 편중시키고 있어 地方化時代에 어울리는 郷土의 文化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빈약하다.

2) 行政·制度의 問題點

民俗을 商品化 시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觀光 行政機構의 業務 重複이다. 관광행정업무 중복으로 문화관광 및 大衆 觀光時代의 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 행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가 힘들고, 觀光 行政의 자율성·효율성·합리성·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괄적이고 일관된 觀光政策의 수립과 施行에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觀光行政 전문기구의 부재이다. 한국 관광행정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은 교통부 觀光局으로 관광행정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및 기관과의 횡적인 업무 협조와 조정이 어렵다. 각 시·도인 경우에도 관광 행정기구는 내무부 소속이지만 실제의 觀光 主務部處는 交通部 觀光局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도 관광 행정 편제는 교통관광국 산하의 觀光課에 관광진흥계, 선전계, 관광지도계, 관광시설계 등 네개의 계로 편성되어 제주관광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濟州道觀光協會는 회장, 상근 부회장, 총무부, 진흥부, 지도조정실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주관광산업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 관광기구의 자치 운영체계가 미흡하다. 그래서 관광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觀光 濟州의 선도자적 役割 遂行이 어렵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행정 기구와는 달리 독립된 공익기관으로서 고유한 업무를 개발하는 기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이거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어 관광전문 공익 기관으로서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다⁶³⁾.

셋째, 觀光 行政 專門要員의 不在이다. 관광 행정의 실무자가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다. 또한 대도시나 기타 지역에 있는 文化資源은 비전문 요원들에 의해 대부분 관리되고 있고, 현지 주민의 무지와 함께 문화자원의 固有性과 원형 보존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6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관광에 대한 기초 연구, 1989, P.105.

第 4 章 民俗資源 觀光商品化 方案

第 1 節 觀光商品 企劃化 方案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많은 觀光資源이 도시개발, 새마을 事業, 댐건설 등 開發主義와 어치구니없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란 미명하에 原形이 파괴되는 걸 무수히 보아 왔다¹⁾.

관광자원 開發에 있어서는 순수한 것(自然的)과 유인 對象으로서 전환 내지 造作을 위해 研究 考案(人工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창의성과 고유성이란 중심 개념을 잃지 말아야 한다²⁾.

구체적인 상품계획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經營者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계획이 확립되어 이 계획에 입각하여 상품계획, 상품개발, 상품결정 등의 세부문을 商品企劃이라 한다.

관광기획시의 기본요소는 관광시장의 분석, 이용 가능한 자원의 평가 마케팅, 경제 및 재무분석, 환경, 사회적 영향과 관계 관련 법규 및 마스터 플랜이 요구된다. 특히 地域住民의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고용창출, 소득증가, 지역 쾌적성의 제고 및 생활의 질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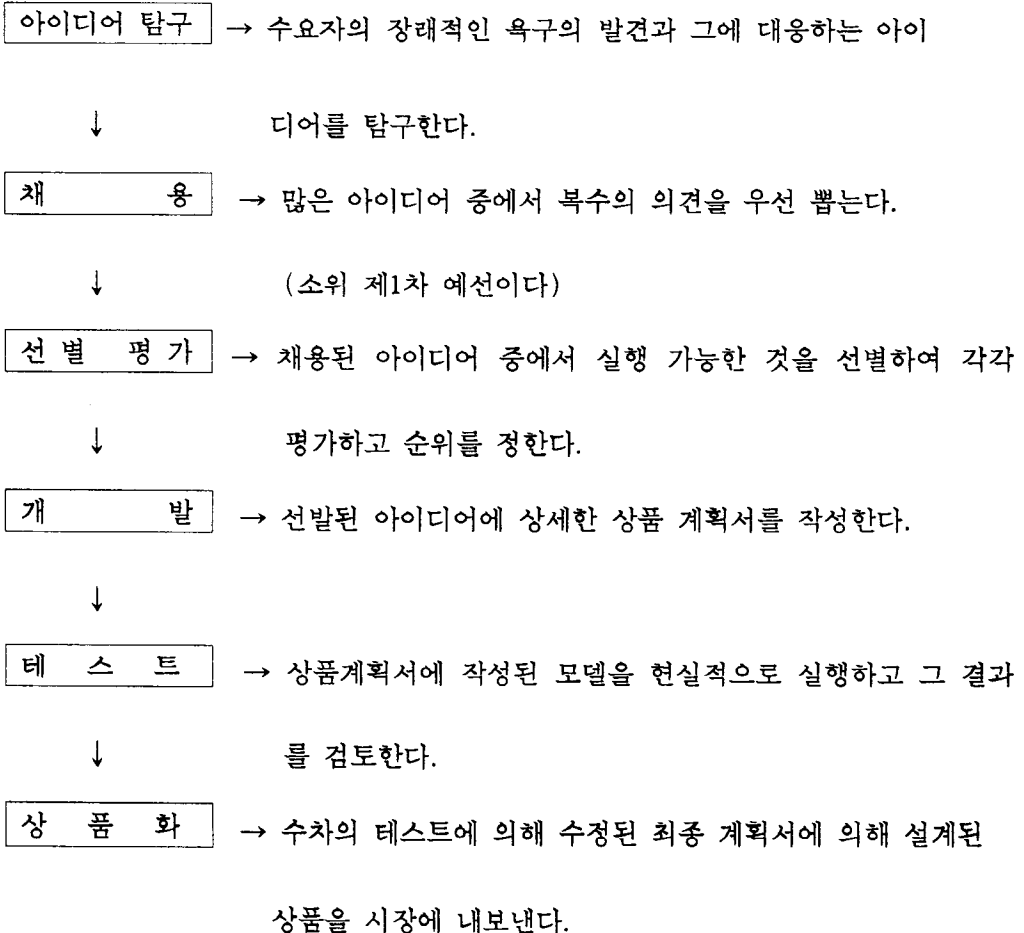
즉 <그림 표 4-1>³⁾과 같은 과정을 거쳐 市場에 내 보내지게 된다.

1) 孫大鉉, 觀光論, 일신사, 1990, p.365.

2) Kaier, Jr., Charles and Lerry E. Helber,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MA : Boston, CBI, 1978, p.31.

3) 鄭榮鍾, 旅行業務管理論, 백산출판, 1992, P.61.

<그림 4-1> 商品의 企劃化 過程



1) 사적지의 계획

고고학적인 기술과 조사는 최근에 開發된 기술의 응용으로 歷史的 文化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대시킴과 동시에 관광객을 위한 흥미로운 장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주 지역의 역사 유적인 동굴집자리, 제주관아터, 기록이 있었던 성터, 사찰지, 봉수대터 등은 가능하면 빠르게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한라산

영실의 <존자암>의 발굴은 화급을 요청한다.

그리고 나서는 좀더 완전한 歷史的 原形을 복원하기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한다. 사적지나 歷史的 建物이 없다 하더라도 하멜 漂流記 記念碑와 같은 중요한 歷史的 事件의 장소를 선정하여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적지와 環境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考古學的 遺物의 보호이며, 이러한 지역에 관광객의 편의와 흥미를 위해서 觀光施設이 신중하게 건설되어야 한다. 쉽게 파손되기 쉬운 관광 대상물은 보는 것만 허용하고, 觀光客의 수를 통제해야 하겠다. 안내판은 사적지의 배경과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주위조건에 맞게 鄉土的인 조형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적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마네킨(Mannequin)과 역사적 가품의 장면을 설명하고 歷史的 光景과 활동을 재창출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Event)와 관련하여 말하고 설명하는 소리와 빛의 쇼(Light Show)라든가 역사적 사건 등을 공연하는 무대 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적 영향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구가 수행되어야 한다⁴⁾

2) 公演藝術과 特別 文化 行事

제주 지역의 祭禮儀式(칠머리 당굿, 영감놀이, 송당마을제, 남읍마을제 등) 민요, 민속놀이, 민속무용 등을 試演할 空間이 요구된다. 現代的 시설에서 이러한 것이 공연되기 때문에 편리한 위치, 적당한 극장과 홀의 개발, 공연 그룹의 조직화와 훈련이 필요하다.

公演 藝術은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濟州地域인 경우는 민속관광의 효과를 기대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濟州 民俗의 香氣를 맡기 위해서 소규모 공연장이

4) 金在珉, 전계서, p.164.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야겠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수기, 비수기의 어려움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漢拏文化祭와 같은 특별 문화행사는 대중에 의한 혼잡과 규율이 혼란함과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참가할 주민이나 관광객이 未來를 기대하고 향상과 축진이 요구되는 이벤트가 약속이 되어야 한다. 한라문화제는 올해부터 10월 첫째주 토요일부터 7일간 계속되고 있다. 연례적인 행사로서의 이미지 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94 한국 방문이 해’ 선언과 같은 특징적인 표어를 내걸어 郷土文化와 民俗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3) 傳統 文化 樣式

生活方式, 信仰制度, 慣習, 樣式, 衣裳 그리고 경제적 활동의 傳統的 樣式은 관광객에게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편익을 주며 文化的 觀光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⁵⁾.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전통문화양식을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한다.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향기를 맡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성읍 민속마을과 같은 본래의 장소나 濟州民俗村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4) 博物館

제주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國立博物館이 건설되어 文化觀光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존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확충과 함께 私設인 濟州民俗博物館들은 空間 이용, 照明을 활용한 빛과 소리의 공간을 만들면 夜間 觀光地가 없는 이 地域에 명소가 될 것이다. 문화 관광객을 위하여 제주 역사의 발전과정, 주제가 있는 展示, 거리풍경과 기타 對象物의 재창출이 요구된다.

5) 김재민, 전계서, p. 165.

또한 外國人들을 위해 多國的 言語와 안내 서비스가 요구된다. 제주지역은 일본인 관광객 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홍보전략에 문제점이 파생된다. 2000년대를 바라보며 단 한 사람의 觀光客이 올지라도 영어와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작은 부분이나 안 보이는 곳에 정성어린 자상함이 배여있는 걸 느낄 때 관광이미지는 고가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觀光客이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Cassette Player)를 구비하여 언어 서비스와 함께 관광안내 서비스가 요구된다.

第 2 節 觀光商品化 方法의 改善方案

觀光開發의 方向은 경제성·상업성·양적 개념을 추구하는 硬性觀光(Hard Tourism)을 억제하고 잠재 관광자원의 발굴, 관광지지의 이용, 방문자와 방문지의 주민간에 지정한 相互作用을 위한 질적 개념으로서 軟性觀光(Soft Tourism)을 그 모토로 한다⁶⁾.

1. 滯在型 觀光資源의 活性化 方案

濟州地域은 유람형 관광인 ‘보는 관광(Flow and See)’이 중심이 되어 단조롭고 밋밋한 관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고 즐기며 活動하는 觀光(Resort and Do)’⁷⁾으로 개발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자연관광 자원이 주요 대상이 되어 인문관광자원의 관광은 몇 군데 안되고 있다. 漢拏山과 들로 조화롭게 이어지는 풍경과 바다는 참여하고 즐기며 활동하는 관광에는 최적지이다.

낙시와 승마, 동굴탐험과 환해장성 트레킹, 360여개의 오름을 이용한 트레킹과 비디오 촬영과 행글라이더, 영주 10경을 주제로 한 가족영화 만들기, 조랑말을 이용한 간단한 馬技와 馬上才(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무예의 하나)의 실연과 승마기술 습득, 해안도로와 목장을 이용한 조랑말 하이킹, 윈드서핑, 제주 특유의 歲時風俗을 이용한 고사리 꺾기대회 등 이에 알맞은 레크레이션 자원의 개발은 제주 구석구석에서 체감할 수 있는 民俗과 함께 삶의 活力을 가속시켜 관광 매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해양·내륙·산지를 대상으로 특화 시설물을 개발하며 내국인의 건전한 휴가

6) 孫大鉉 編, 觀光經營論講讀, 서울: 경영문화원, 1984, pp. 337~349.

7) Travel Journal International, 1985.2, pp.12~15.

문화 정착을 지향하는 국민 관광 수요 충족 공간으로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特化施設物은 선비마을, 연금생활자촌, 보양관광촌, 농어촌 문화박물관, 관광농원, 귀양살이촌, 해양교통수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그리고 夜間 觀光地의 개발로 제주관광의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觀光客은 지역의 언어, 민속, 생활문화, 생활 양식에 접하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제주를 찾아 왔던 관광객들은 그 자연과 함께 제주 특유의 생활상에 대하여 강렬한 인상을 받고 있고 제주도를 여러번 찾아온 관광객들은 그 자연에 대한 감탄은 한 두번에 그치나, 제주도의 언어, 민속과 생활문화의 변화상에 대하여는 항상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본다⁹⁾

2. 民俗資源을 連繫한 開發 方案

漢拏山을 배경으로 한 제주의 특이한 민속자원은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이젠 우리나라도 자연자원, 문화유적 등 기존 관광자원 위주의 상품화에서 조속히 탈피, 무형의 문화·예술·풍속·스포츠·레크레이션·식도락·쇼핑·행사·축제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 商品化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¹⁰⁾.

觀光客들은 자연경관 및 풍속 민속문화를 保存하면서 魅力性 있는 관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은 기존해 있는 중문 관광단지, 성읍 민속마을과 표선 민속촌, 현재 건설중인 제주관광민속관, 제주해변공연장 등과 같은 인위적인 관광시설은 배경으로 濟州의 독특한 風俗, 소박한 인정, 특색 있는 생활습관, 예절 및 제도 등과 전

8) 李長春, “90년대 제주관광개발의 방향,”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제주도연구회주최 전국 학술세미나, 1990. 11. pp.52~54.

9) 玄容駿, “제주도 민속과 관광”, <제주도>지 제30호, p.31.

10) 韓國觀光公社, 세계주요국관광진흥정책, 1991, pp.324~325.

승되어 온 각종 민속행사를 연계시켜 商品化의 가치를 갖게 해야 한다.

현지 주민과의 마찰을 극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동적관광, 정적관광을 완전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신기원을 創出해야 한다.

夜間에는 숙박장소에서 맛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극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의 체험을 갖게 한다.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민속인 입춘굿놀이, 세경놀이, 영감놀이, 영등굿, 칠머리당굿, 민속놀이인 걸궁 등과 민속무용인 해녀놀이, 비바리춤, 차사영맞이 등을 지역 주민들과 거리감 없이 친근감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고 동시에 異國的인 제주의 멋을 만끽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전설, 민요 등은 수준 높은 독자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민족문화로서 가치가 높다. 2000年代를 향한 국제화에 발맞추어 가장 향토적인 것이 국제적이라는 인식아래 향토문화를 바르게 정리하여 濟州 民俗觀光의 진수를 보여 줘야 한다.

3. 觀光施設の 再構成

관광지의 숙박과 식사 및 유흥시설들은 제주관광의 관문인 제주시와 중문 관광단지 및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해 있다.

주요 환대 시설로는 중문관광단지내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의 호텔과 여관 그리고 서귀포시내, 중문관광단지, 제주시내의 나이트 클럽과 술집, 관광음식점, 카지노, 슬러트 머신들이 있다.

단기형 관광에서 장기형 관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숙박지 시설을 민속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도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 근접지역과 각종 관광지들과 위락시설은 서로 연계되도록 도로망과 각종 운송체계의 재정비를 무리 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관광 숙박시설은 제주지역의 立地性을 고려하여 문화성과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제주도 지형에 적합한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민속자원에 있어서는 현대적 숙박 상품은 오히려 판매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개선은 현재의 시설을 우리의 전통적 구조를 살려서 異質感이 없도록 한다.

4. 歡待 精神의 向上

관광객들은 어느 지역을 여행하든 대우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취급을 받기를 원한다. 각종 관광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교육, 훈련을 수시로 받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접대를 관광객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特定地域의 歡待(Hospitality)라 함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다. 관광객들이 여행을 마친 후 여행경험을 회고할 때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딪쳤던 사람들과의 유쾌했거나 불쾌했던 일들이다¹¹⁾. 그래서 地域住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광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절, 용모,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1) Robert Christie Mill(原著), 손해식의 2인 譯, Tourism : 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93, pp. 45~46.

第 3 節 觀光商品化 節次 改善方案

일반적으로 인식된 觀光地 開發의 진행과정 절차는 지역주민의 태도로 다음의 5 단계로 감지되고 측정된다¹²⁾. 즉 행복감(Euphoria), 냉담(Apathy), 짜증(Irritation), 적대감(Antagonism), 조종단계(Final level)이다.

첫째, 행복감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관광개발과 발전에 대해 흥분하여 행복감에 젖는다.

둘째, 냉담이다. 觀光客 流入에 따라 관광객의 존재는 주민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냉담해진다.

셋째, 짜증이다. 관광객은 수용시설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여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 짜증의 상태로 변한다.

넷째는 적대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관광의 발전과 개발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의 상실과 연관된다고 크게 우려한 단계이다.

그 지역 관광자원을 觀光商品化 하는데 있어서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같이 참여시켜 이런 사회적 영향의 단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관광지발전단계상 위기단계로 관광발전은 쇠퇴(Decline)되고 다시 재기하느냐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보장계획을 강구하고 발전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의 의무화, 토지 소유자의 투자 참여보장, 인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義務化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접하는 것은 상품화된 土着文化 자체만이 아니고 주민과의 문화의

12) C.V Doxey, "When Enough's Enough:The Natives Are Restless in Old Niagara", *Neritage*, Canada, Vol.2, No.2, pp.26~27.

식이다. 이러한 문화의 商品化 節次에서 지역주민들이 경험하고 자기 비하, 소외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광객에게 방문지와 그 지역주민의 문화를 미리 주지시킴으로서 관광을 통해 발생할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觀光弘報와 홍보활동, 특히 투어 가이드(Tour Guide)의 철저한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이러한 관광 마케팅을 위한 多樣化와 홍보 및 전달체계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 요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기본 정보 자료의 처리가 미흡하고 홍보대상 구분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홍보지들 중에는 부피가 큰 책의 모양을 갖춘 홍보지들이 제주도 관광과 등에서 발간되고 있으나 일반에게 배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관광에 대한 弘報의 다양함과 확충에 따라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된다. 유럽의 어느 마을을 가거나, 일본의 각 縣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광홍보에 활발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地方化時代의 地域觀光弘報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상공회의소라든가 규모가 큰 기업이 동참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주도여행 경비로 해외에 여행할 수 있다는 관광여행사들의 광고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제주도나 관광관련기관은 관광홍보에 소극적이다. 이를 극복키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제주지역에서든 감직하고 특색 있는 홍보지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언제라도 손쉽게 배포되게 해야 된다.

올해('94년) 후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제작한 관광 캘린더가 배포되고 있으나 크기와 화면구성의 단순화로 效用性은 적은 것 같다. 다채롭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실속 있는 정보가 실린 작은 크기의 포켓용 안내 책자나 홍보 리플렛(Leaflet) 등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여행의 추억이 담긴 紀念品이 될 수가 있다.

第 4 節 觀光商品 販賣의 改善方案

제주지역 觀光商品化 판매의 개선을 위해서는 觀光弘報와 宣傳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신문, 라디오, TV 등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세미나, 홍보책자 발간·배포, 관광객 유치단 파견 등이 있다.

觀光商品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다.

첫째, 觀光弘報 機構의 설치가 필요하다. 매스컴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관광객 특성과 관광 형태를 파악하여 판매 촉진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濟州道와 觀光業體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운영비용은 관광업체의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률의 분담금 납부와 제주도 당국의 보조금에서 충당하며 관광상품과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국내외 광고 등을 담당할 수가 있다.

둘째, 韓國觀光公社, 濟州道, 각 市·郡, 濟州道觀光協會 및 業體間에 협동하여 관광상품을 선전 판촉 하는 連繫 體系를 구축한다. 국내는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선전사업부, KOTRA 해외지사, 문공부 해외 공보관, 종합상사의 해외 지사 등을 연계하여 민속 관광상품을 효율적으로 선전 판촉 하는 기능도 같이 수반해야 한다.

셋째, 제주도의 주된 시장별로 대상별, 계층별, 弘報對策을 강구한다. 특히 해외에는 Asia Package Tour Route에 제주도가 포함되도록 민간차원의 외교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적인 民俗祭를 연계적으로 개최하며 다각적인 컨벤션(Convention) 유치하는 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비수기의 대책으로 최고의 방법이 되겠다.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민속문화나 사라져 버린 생활양식

을 체험하는 민속제와 컨벤션 체제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민속관광, 쇼핑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

다섯째, 濟州 Package 商品의 共同開發 및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온천 관광을 연결하는 共同體制를 수립하여 동남아 지역에 집중 홍보한다.

여섯째,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객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의 販賣戰略 樹立에 도움이 되게 한다.

끝으로 “三多의 섬”, “平和의 섬”, “太陽의 쉬어 가는 섬”, “신들이 휴식하는 섬” 등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 주는데 주력하고 이것들을 선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인다. 동시에 환상의 어린 지역으로서의 관광의 질을 고급화시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대문이 없고 인심 좋은 ‘三無精神’의 이미지도 필수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관광수요의 季節的 불안정성으로 비수기, 성수기의 편차가 심한 제주지역은 성수기의 과밀 대책으로 교통시설, 관광자원 등 관광객 수용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CRS을 어느 곳에서나 이용하여 분산의 효과도 가져야 한다. 각종 간이 시설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불균형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비수기의 과소화 대책은 제주지역 관광의 魅力을 제고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계절성을 타지 않는 레저 관광자원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계절적 자원을 이용한 계절별 행사 개최 및 계절과 무관한 세미나, 국제회의 등의 컨벤션 시스템을 위한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완벽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비수기 이용가격 인하, 특정세대 및 계층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비수기 人的資源에 대한 연수교육 강화 등 비수기 서비스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第 5 節 行政·制度·法規上 改善方案

1. 민속자원에 관한 法規의 改善 方案

관광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의 대상을 문화 및 예술에도 포괄 설정하고 지역별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문화 자원을 발굴 또는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광 관련 법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관광 활동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개방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문화 및 예술에 관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2. 觀光 行政 制度의 改善 方案

1) 觀光 行政 機構의 一元化

현재의 교통 관광국으로 바꾸어 관광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사회 변화 및 관광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업무의 기능에 따라 전담 부서를 두어 국가의 관광 행정 및 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관광 공사는 정책 연구 기능과 정보수집 및 대내외 홍보를 전담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

2) 地方 行政 機構의 細分化

濟州道인 경우 관광 행정 편제는 관광과 밑에 진흥계·선전계·관광지도계·관광시설계로 되어 있다. 계단위로 編成되어 있어 업무 내용이 복잡하고 제주지역처럼 觀光 分野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방관광 行政의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의 效率性도 매우 微弱한 실정이다. 그래서 4개의 계로 편성되어 있는 편제

를 관광진흥과·관광지도과·관광선정과·관광시설과·민속관광과로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는 觀光科를 新設하고 면단위에는 관광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기구의 세분화로 전문기구로서의 機能을 수행할 수 있다. 濟州道觀光協會인 경우에도 기획 조정실 및 민속자원 관리부를 두어 觀光 촉진활동과 상품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규대학(관광 관련학과) 출신 이상의 專門要員의 擴充이 필요하다. 경험은 언제나 지식에 앞서기 때문에 이론관광으로 교육된 전문요원이 아닌 실제 경험관광이 몸에 배인 전문가이어야 한다.

3) 觀光行政 節次의 容易性

관광 행정 절차의 簡素化 追求로 관광에 관련된 제 분야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確立해야 한다. 타부처와 관련된 관광행정체계를 하나의 종합관리체계로 일원화시켜 협조체 제도에 대한 改善策을 마련해야 한다.

4) 觀光行政에 現地住民 參與擴大

관광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지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관광개발의 부정적 시각이 많아 民俗資源의 開發 商品化에는 현지주민 參與가 절실히 要求되고 있다.

觀光政策의 입안단계에는 지역별로 주민대표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두어 地域住民의 意思를 관광개발에 많이 반영시켜 地域發展을 도모하고 信賴받는 觀光行政이 되도록 해야 한다.

第 5 章 結 論

國民生活 수준의 향상과 여가생활 증대로 전통 문화자원인 民俗은 觀光商品으로서 가치가 높아가고 있다. 제주의 歷史性은 독특한 風俗과 文化를 형성시켜 鄉土性 짙은 魅力을 발산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로 山과 바다, 들로 이어지는 情景이 무척이나 잘 調和를 이루어 관광성이 높은 곳이다. 제주도의 資源은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고 있어 인문사회자원의 개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뛰어난 有形, 無形의 傳統文化 施設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開發의 미흡으로 이러한 觀光需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觀光商品化라고 하면 넓게는 관광객이 집을 떠나 행하는 모든 대상을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民俗을 상품화하는 데는 文化의 從屬化 등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관광개발과 향토의 문화가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觀光客에게 보일 수 만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觀光商品이 될 것이다.

한나라의 固有한 傳統이나 風俗 및 言語들은 언제 어디서고 觀光魅力을 안겨다 주는 유인물이다. 최근의 관광은 靜的觀光에서 動的觀光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民俗資源에 대한 개발과 관광상품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가 增大된다. 이에 본 論文은 濟州地域의 民俗資源을 연구의 범주에 두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우리의 관광문화를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담은 文化觀光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可能性을 모색해 본다.

첫째, 제주지역의 民俗資源은 靜的인 觀光에서뿐만 아니라 動的인 觀光에서도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광 매력물이 된다. 때문에 관광관

현법규의 재정비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문화자원을 발굴, 개발하거나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國際 交流를 促進시켜 외국 관광객이 국내 유치를 통한 외화 소득의 효과를 增大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文化觀光 및 大衆觀光 時代의 需要充足을 위한 관광행정체계의 改善 方案을 모색하여 觀光行政의 자율성, 효율성, 합리성,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觀光行政의 簡素化를 통해 과다한 시간과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더욱 효율적인 生産體系를 확립해야 한다. 지방 행정조직의 강화와 관광행정에서의 國民參與 擴大로 現地 住民에게 신뢰받는 관광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각종 傳統文化의 開發 및 造成으로 傳統 文化資源 및 유적에 대한 확대, 기금조성, 文化資源의 管理를 위한 전문가 양성, 전통 문화관광 노선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각종 指定文化財와 비지정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의 기회를 增大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지역별 文化 觀光地는 인근의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들과 연계 개발해야 한다. 民俗觀光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을 가급적 한곳에 집중하게 유도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외래객의 방문으로 侵害될 수 있는 日常生活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

일곱째, 時代에 變貌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民俗資料 요소는 전시공간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고 그중 중요한 것은 文化財로 指定하여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論文을 濟州 民俗資源의 保存과 開發의 方向에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濟州地域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는 제주지역 文化의 本質에 맞게 변용 시

켜 받아들인다. 문화는 한 요소가 변화할 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維持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속문화는 生活文化이므로 濟州文化的 特質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다른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자원보다는 제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민속자원을 개발해서 제주지역관광을 特化 또는 專門化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셋째, 變化에 따라 기능을 喪失하는 것은 집단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文化財로 保存해야 한다.

넷째, 濟州民俗文化의 철저한 고증과 조사연구가 民俗文化가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제주민속문화의 價値를 바르게 인식하여 관광전문가나 제주도민이 矜持와 愛着을 가져야 한다. 즉, 民俗에 대한 애호정신이 充滿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제주도는 제주 나름의 文化施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民俗資源의 觀光商品化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 볼 때 다음의 연구는 더욱 더 事實的이고 論理的인 연구가 되어야 겠다.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더 심층적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國 內 文 獻

가. 書 籍

- 金在珉, 觀光計劃·開發論, 대왕사, 1993.
- 金在珉·申鉉柱, 觀光호텔經營論, 대왕사, 1986.
- 金東旭의 4인, 韓國民俗學, 새문사, 1994.
- 金炳文, 觀光地理學, 형설출판사, 1990.
- 金相勳, 觀光學概論, 집문당, 1981.
- 金榮敦,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 金忠鎬, 觀光事業經營論, 남영문화사, 1984.
- 김택규, 성병희, 한국민속연구문선(2), 일조각, 1982.
- 金洪雲, 觀光資源論, 일신사, 1994.
- 손해식·정익준·이방식(편역), 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93.
- 孫大鉉, 觀光論, 일신사, 1990.
- _____, 觀光마케팅論, 일신사, 1985.
- _____,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일신사, 1992.
- 宋路燮, 현대마케팅론, 법문사, 1985.
- 鈴木忠義 : 관광교재편찬회 역, 현대관광론, 1991.
- 安鍾允編著, 觀光用語事典, 法文社, 1985.
- 梁淳泌·金順澤외,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서울), 1986.
- 禹榮基, 濟州道, 정문사, 1980.

- 尙成達, 最新商品學, 박영사, 1981.
- 俞鵬老, 新商品學, 博英社, 1989.
- 尹大淳, 旅行社經營論, 기문사, 1992.
- 李 根, 觀光資源論, 학문사, 1985.
- 李長春, 관광과 통일, 1991.
- _____, 觀光計劃·開發論, 대왕사, 1987.
- _____, 觀光地理資源學, 大旺社, 1974.
- _____, 觀光資源論, 大旺社, 1986.
- 李仙熙, 觀光마케팅概論, 1993.
- 李亢求, 國際觀光學, 탐구당, 1992.
- _____, 現代觀光學, 명보출판, 1983.
- 任東權, 韓國民俗學論考, 宣明文化社, 1971.
- 林漢洙외 5인, 觀光地理(한국편), 백산출판사, 1992.
- 鄭榮鍾, 旅行業務管理論, 백산출판, 1992.
- 鄭益駿, 觀光事業論, 형설출판사, 1990.
- 趙松彬, 新稿觀光學總說, 형설출판사, 1994.
- _____, 旅行社經營管理論, 백산출판사, 1993.
- 趙泳培, 濟州道 民俗音樂, 제주: 신아문화사, 1991.
- 秦聖麒, 南國의 民俗(濟州島 歲時風俗), 교학사, 1980.
- _____, 南國의 민속놀이, 서울: 흥인문화사, 1975.
- 崔泰光, 觀光經營學, 백산출판사, 1992.
- 韓昌榮, 濟州道 隨想, 創文閣, 1979.
- 韓義泳, 商品學總論, 三英社, 1994.

나. 論 文

- 姜景濤·徐庚林·梁淳珌, “濟州道內 特殊資源의 開發과 活用方案,” 제주대 지역사회 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2집, 1986.
- 고금희, “우리나라 민속행사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0집, 1987.
- 高南旭,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진흥방안,”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호, 1985.
- 高承益, “제주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실증적 고찰,” 경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96.
- 권혁을, “지역전통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金敬昊, “濟州圈 旅行業의 市場細分化에 關한 考察,” 제주대논문집 제33집, 1991.
- _____, “제주지역 관광토산품업의 과제,” 제주대 <논문집> 제11집, 1979.
- 金範國·高載乾·金炯吉, “제주도 관광토산품 개발과 농어가 소득 증대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13호, 1989.
- 金思憲, “觀光需要函數와 旅行費用 模型에 關한 批判的 考察,” <京大 學報>, 1981. 3. 27.
- 金相勳, “관광자원과 향토의 개발,” <용왕> 제5집, 1981.
- 金榮敦·高南旭·夫萬根·申幸澈·金泰保·許鐵洙,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Ⅲ) -사회과학분야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집, 1985.
- 金榮敦, “제주의 연자매(研子摩),” 제주대제주도문제연구소, <濟研> 제2집, 1975.

- _____, “제주의 연자매(돌방애),”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1집, 1984.,
“민속촌 지정·보존을 위한 문제점 및 방안,” 제주대 제주도문제연구
소, <濟研> 제4집, 1977.
- 金在滄·孫大鉉, “지역관광 개발 계획을 위한 방략,”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제5집, 1986.
- 金在珉, “觀光事業 서비스 改善에 관한 研究,” 東亞學園 <논문집>, 제9집,
1980.
- 金泰保, “제주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 발전연구> 제2집, 1987.
- 金洪雲, “민속관광자원에 대한 고찰,” <地籍>, 1985. 3.
“한국의 지방민속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학>, 1986. 8.
- _____,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
학회, <관광학연구> 제12호, 1988.
- _____, “한국의 민속놀이극의 관광축제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제1권, 1989.
- _____, “문화관광과 민속놀이의 관광자원화,” 한국관광협회, <관협>, 1989. 7.
- 朴石熙, “관광지의 배경적 요소 및 놀이의 연출에 관한 연구,” 경기대 <논문
집> 제19집 제1호, 1986.
- 朴龍虎, “韓國民俗行使의 觀光的 價値,” 경기대 <논문집> 제6집, 1978.
- _____, “한국민속행사의 관광적 가치,” 경기대 <논문집> 제6집, 1978.
- 朴忠熙, “觀光호텔 人的 서비스質의 管理에 관한 實證分析,” 경기대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1988,

- 朴賢淑, 濟州島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徐庚林,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 方案,” 제주대 <논문집> 제10집, 1978.
- _____, “제주도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 <논문집> 제9집, 1977.
- 孫海植,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宋炳圭, “傳統文化의 觀光資源化에 關한 研究,”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宋成大, “관광자원 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 제주대 <논문집> 제18집, 1984
- 梁淳泌·梁鎮健, “제주도 고유문화의 보존 및 宣揚方案에 관한 연구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87.
- 梁英雄·金種太·金昞澤·李起旭, “한국 문화 속의 제주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 제주대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6집, 1990
- 吳南三,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론 고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6호, 1987,
- _____, “제주도 고유문화의 보존 및 선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97.
- 俞敏喆, “한국의 관광단지 개발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1.
- 李光奎,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 -사회민속측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연구> 제13집, 1993.

- 李 根, “영주10경(12경)의 선전 기준과 그 사상적 배경,” 제주관광개발 연구
소 <관광문화> 제1집, 1991, pp.18~26.
- 이기춘,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李長春, “한국형특화관광상품개발과 선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논문집>,
제10집, 1980.
- _____,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방향,” 경기대 <논문집>, 제13집, 1983.
- 이청규, “제주도 선사문화의 여러 단계의 양상,”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학우회
- 張聖洙, “권역별 관광자원의 비교 고찰,” 제주대<논문집> 제 18집, 1985.
- 全梅姬, “민속무용에 관한 小考,” 경기대 <논문집> 제6집, 1978.
- 鄭甲植, “한국 전통 민속마을의 합리적인 관광자원화 방안,” 경희대 경영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정복상, “민예품 개발 및 육성방안,” 계명대 <계명연구논총> 제2집, 1984.
- 정영화,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3호, 1984.
- 趙煥成, “傳統 민속놀이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관한 연
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玄容駿,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안,”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다. 其 他 資 料

- 建設部,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1974.

- _____, 국립지리원, 韓國地誌 地方篇Ⅳ, 1986.
- 交通部,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교통부, 1981.
- 國際觀光公社, 여행상품과 유통구조, 1979.
- _____, 한국관광진흥장기종합계획, 1979.
- _____, 韓國觀光振興長期綜合計劃, 1979.
- 國土開發研究員,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중 관광단지개발 계획 및 기본 계획, 1983.
- 문화발전연구소, 문화 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 문화 예술진흥원, 1988.
- 문예진흥원, <문예진흥> 제3권, 3호, 1984.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 濟民日報, 1994. 8. 25., 7. 27, 9. 13 字
- 中央日報社, 中央大百科, 1990.
- 濟州道, 濟州道誌(하), 1982.
- _____,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
- _____, 濟州道誌 제 2권, 1993.
- _____, 濟州道誌 제 3권, 1993.
- _____, 濟州의 文化財, 1982.
- _____, 제주도 제 81호, 1987. 1.
- _____, 제주통계년보, 1992.
- _____, 문화공간현황(제주도), 1992.
- 濟州道敎育研究院, 탐라의 敎育유산, 1983. 3.
- _____, 耽羅美風民俗, 1976.
- 濟州道觀光協會, 제주관광안내, 1994. 9.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집, 1984.
- 濟州市·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濟州市의 鄉土民俗, 1992.
- 濟州市, 제주시 30년사, 1985.
- 韓國觀光公社, 2000년대의 관광환경분석과 전망 (1980).
- _____,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KNTC, 1983.
- _____, 관광교육원, 민속문화, 1989.
- _____, 전국민속행사요람, 1990.
- 韓國觀光學會·韓國觀光振興研究院, 1967~1993. 관광관련자료목록집, 1993. 12.
- 韓國觀光地開發研究所編, 韓國觀光資源論, 1986.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峯燧(하권), 1989.
- 漢拏日報, 1994. 8. 25, 1992~1994 字
- 漢拏日報社, 한라연감, 1991.
- 韓國銀行 濟州支店,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관광에 대한 기초 연구, 1989.

2. 國 外 文 獻

- A. J. Burkart and S. Medlik, *The Management of Tourism*(London : Heinemann, 1975).
- Albert J. Rutledge, ASLA, *Anatomy of a Park*, McGraw-Hill, Inc., 1971.
- Anonymous, 1975 Faraway Places : Special Report, Newsweek, July, 14, 1975.
- Bermard H. Booms and M. J. Bitner, "New Management Tools for the Successful Tourism Manager", *Annals of Tourism Research*(Vol. 7, NO.

3), 1980.

- o Ciare. A. Gunn, *Tourism Planning*(N. Y : Crane Russak, 1978).
- o Douglas Foster, *Travel and Tourism Management*, (Hong kong : Macmillan, 1985).
- o G. A. Schmoll, *Tourism Promotion*(London : Tourism International press, 1977).
- o H. Robinson, A. *Geography of Tourism*, London : Macdonald and Evans, 1746.
- o Jafar Jafari,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No 3, 1974.
- o J. C. Crampton, "Lecture on Tourism", Given at Unit of Hawaii :
- o Kaier, jr., Charles and Lerry E .Helber,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MA : Boston, CBI, 1978. Spring Semester, 1972.
- o Le Monde, 1991. 7. 7.
- o M. Clawson, R. Held and C. Stoddard, *Land or the Future*(Baltumore : Johns Hopkins Press, 1960).
- o P. Kotler, *Principles of Marketing*, 4th ed.,(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Hall, 1980).
- o Robert Christie Mill·손해식의 2인(번역), *Tourism·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83.
- o S. Medlik and V. T. C Middleton, "The Tourist Product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International Tourism Quarterly*, No. 3 Special Article, 1973.
- o Travel Journal International, 1985. 2.

- o S. Wahab, *Tourism Management*(London : Tourism international Press, 1975.
- o William J.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McGraw-Hill, 1978.
- o W. J.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4th ed(N. Y.: McGraw-Hill, 1975.
- o WTO, *Integrated Tourism Planning*(Madrid : WTO, 1978).
- o 國際觀光年記念行事協會, 觀光과 觀光行事, 東京, 1967.
- o 末武直義, 觀光論入門, 法律文化社, 1974.
- o 津田昇, 國際觀光論,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964.
- o 週刊朝日, 1986. 3. 28~1986. 8. 1(20回 連載), “耽羅紀行”, 司馬療太郎記

ABSTRACT

A Study on the Tourist Products as Folk Resources in Cheju Island

Ko, Byung Joon

Th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ong Gi University

The invisible cultural properties, such as traditions, customs, and language, have a good value as tourism resources. Therefore, the folk resources of any countries- representing their own history, customs, and living conditions- should be developed as tourism merchandise.

Cheju island, having a good harmony of beauty between the mountain and the sea, has a high value for tourism resorts outstanding selected among the most attractive tourism resorts in the world. And also, today, tourism has been changed from the static(seeing and feeling) tourism into the dynamic(active) tourism.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merchandise of folk resources have more value than at

any other tim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o make the folk resources of Cheju island to blink with tourism. And it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as follows:

- i) the purpose, the category, and the method of research are described.
- ii) the theory on the folk resources as tourism products is stated.
- iii) this chapter shows the status quo of the tourism merchandise and problems of the folk resources of Cheju island shown.
- iv) a reform measure regarding to the tourism merchandise of folk resource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frame and status quo is suggested.
- v) the conclusion.

The folk custom is the living custom which is made up of the custom, the intelligence, and the belief that are transmitted and through the continual repetition of life, and the civilian life as well. Folk custom will change inevitable because it is the life itself.

The utilization of folk custom as tourism products in Cheju should be made in order to represent the cultural peculiarity originated from the natural features of Cheju. Merchandising of folk resources as tourism products in Cheju must be the tourism resources that are full of the pride, the affection and the preservation of cheju people through correct valuation on Cheju folk customs on the basis of the nativeness of Cheju.